


마음은 표개어,

너와 나의 이야기

2025 인천송현초등학교 6학년

 화도진문화원

×

 인천송현초등학교









창작동화 '마음을 포개어, 너와 나의 이야기', 여는 글

인천송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과 함께한 ‘창작동화 만들기’가 드디어 한 권의 책으로 완성되었습니다.

한 장 한 장 넘길 때마다 아이들의 따뜻한 마음과 동심에서 나오는 솔직한 상상력이 고스란히 느껴져, 이 책이 더욱 소중하고 특별하게 다가옵니다.

이 책은 인천광역시남부교육지원청의 ‘2025 문화원과 함께하는 저자 양성 프로젝트’로 기획되어, 우리 아이들이 일상에서 얻은 경험과 감정을 스스로의 언어와 그림으로 표현해 보는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글 수업에서는 자신의 생각을 어떻게 독창적으로 담아낼지 고민했고, 그림 수업에서는 이야기 속 분위기와 감정을 어떻게 전할지 한 번 더 생각해 보며 작품을 완성했습니다.

모둠 별 창작 과정도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반마다 5~6개의 모둠을 구성하여 서로의 생각을 표현하고 의견을 나누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갔습니다. 혼자였다면 해내기 어려웠을 과정도 친구들과 함께여서 즐겁게 이겨냈고, 의견이 다를 때마다 서로의 생각을 듣고 조율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배웠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기에 완성된 동화들은 더 깊어지고, 더 따뜻한 작품이 되었습니다. 학교에서의 하루, 친구와의 소중한 순간, 마을의 풍경, 상상을 담은 이야기까지 아이들은 다양한 주제로 자신만의 세계를 펼쳐 보였습니다. 동화책 한 권 속에 담긴 이야기들은 단지 ‘작품’이 아니라, 아이들이 서로에게 배우고 성장한 발자국이기도 합니다.

이 책이 아이들에게 “나는 스스로 이야기를 만들 수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심어 주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글을 쓰고 싶을 때, 그림을 그리고 싶을 때, 오늘의 경험이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 새로운 시작을 돕는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써 주신 인천송현초등학교 선생님들과 인천광역시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열정과 웃음으로 과정을 채워 준 6학년 학생들에게 큰 박수를 보냅니다. 여러분의 노력이 한 권이 책으로 출판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하며, 앞으로도 여러분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이야기들을 기대하겠습니다.



창작동화 '마음을 포개어, 너와 나의 이야기', 함께 여는 글

우리 마을은 매일 조금씩 달라지고 있습니다.
학교 가는 길에 새로 생긴 벤치, 오래된 골목 바닥에 새로 그려진 도색,
계절마다 다른 표정을 짓는 공원의 나무들처럼
우리가 사는 마을은 눈을 크게 뜨고 보면 늘 새로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동화책은 그 변화를 송현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시선으로 담아낸
기록입니다.

어른들은 바쁘게 지나쳐 놓치기 쉬운 장면들도
우리는 천천히 바라보고, 궁금해하고, 때로는 상상하며
마을이 가진 작은 빛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렇게 모은 이야기는
지금의 마을을 기억하는 향토자료가 되고,
우리가 배우는 터전을 이해하는 교육자료가 됩니다.

마을은 단지 사는 곳이 아니라
아이들이 자라고 배우는 또 하나의 큰 교실입니다.
골목은 탐구의 길이 되고, 이웃들은 배움의 친구가 됩니다.

우리가 보고 느낀 마을의 모습은
‘교육은 학교 안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마을은 우리를 키우는 교육의 주체이며,
우리는 그 안에서 스스로 참여하고 성장하는 주인공입니다.

이 책이 우리 마을의 오늘을 기록하고,
앞으로 우리마을이 더 따뜻하고 배움이 넘치는 곳으로 나아가는 데
작은 발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이들의 눈으로 바라본 마을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도 오래 남아
더 좋은 마을을 함께 만들어가는 힘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차

CONTENTS

6학년 1반



01

“책들의 고민” 박아현 엄태웅 정준호 조윤서

14P



02

“비밀이 가득한 문방구” 김지유 박진명 송예진 임지울 최예찬

32P



03

“늙은 어부의 꿈” 남택윤 왕금비 윤건후 이나윤 천근아

50P



04

“다른 세계” 강수성 설가은 이민정 허지호

68P



05

“행방불명이 된 도아를 찾아서” 김도하 이연우 이유라 이준우

86P



06

“솜사탕 할아버지” 김유리 신정우 이루리 이승우

104P

6학년 2반



01

“문이 사라졌다” ● 박태진 서채원 유승호 허주나

124P



02

“작은 용기로 깊어진 우정” ● 김태건 김태은 남택연 이연서

142P



03

“마지막 일기장” ● 김다빈 오민준 전서준 조윤솔 한수호

160P



04

“전지적 하루 시점” ● 김도윤 김지유 김효린 이예은 이유림

178P



05

“나 혼자만 편식” ● 김윤아 백승현 신하은 이유겸

196P



06

“최고의 파트너” ● 김지호 박선미 이하람 장연재 최라운

214P

6학년 3반



01

“게 샀거라 프데렐라” 김채원 양소이 이지원 최희은

234P



02

“수문통 찜빵의 탄생” 김민준 김지오 김지환 이수현 지한빛

252P



03

“버려진 창고” 안소민 윤해인 이슬 이태경 이하솜 조아윤

270P



04

“세계 목욕탕의 역사” 강신울 이재원 이재현 최아준

288P



05

“달려라 만석!” 김대웅 이상울 최만성 최종우

306P

6학년 1반



01. 책들의 고민



02. 비밀이 가득한 문방구



03. 늙은어부의 꿈

04. 다른 세계



05. 행방불명이 된 도아를 찾아서



06. 솜사탕 할아버지



01 “책들의 고민”

박아현 엄태웅 정준호 조윤서



오늘의 책 소개!

사서 선생님이 퇴근 준비를 하는데, 아이들 소리가 들려요.

아니,
아직 집에 안 가고
뭐 하는 거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찾으려고 말소리가 들리는 책장으로 갔어요.

시집과 새 책의 말소리가 들려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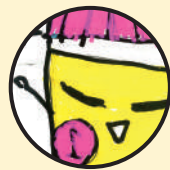
그때 만화책이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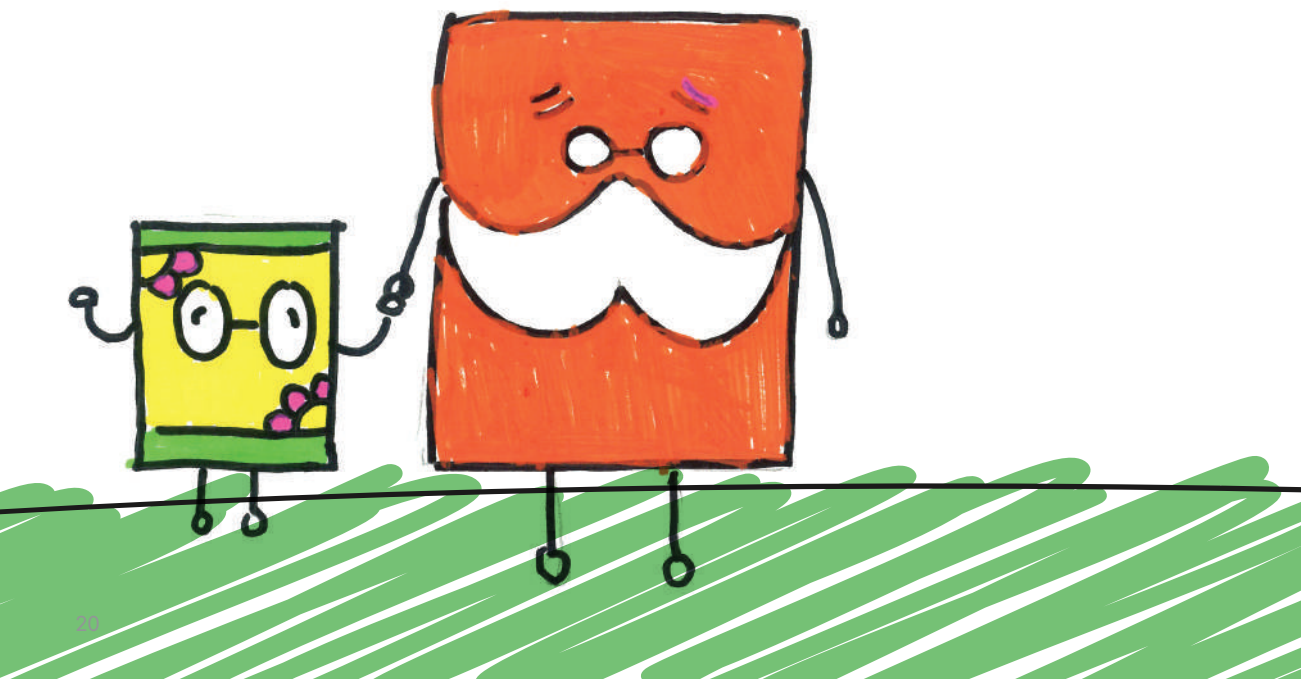
나는 하루에도 몇 번씩 나갔다 와.
너희들은 아무도 밖에 못 나갔지?

하며 잘난 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도 재미있어지라고,
너희가 재미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지.

만화책이 한 번 더 까불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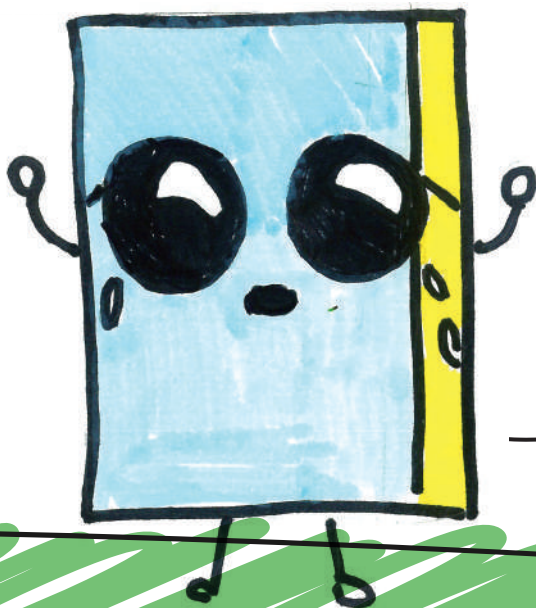


새 책이 말했어요.

여기에 처음 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많이 찾을 줄 알았어.

그런데 아무도 오지 않아.
나 이렇게 있다가 먼지만 쌓이고
까맣게 변해 갈 거야.

새롭게 나온 책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
너희는 걸만 보고 어떻게 아니?
속을 펴 봐야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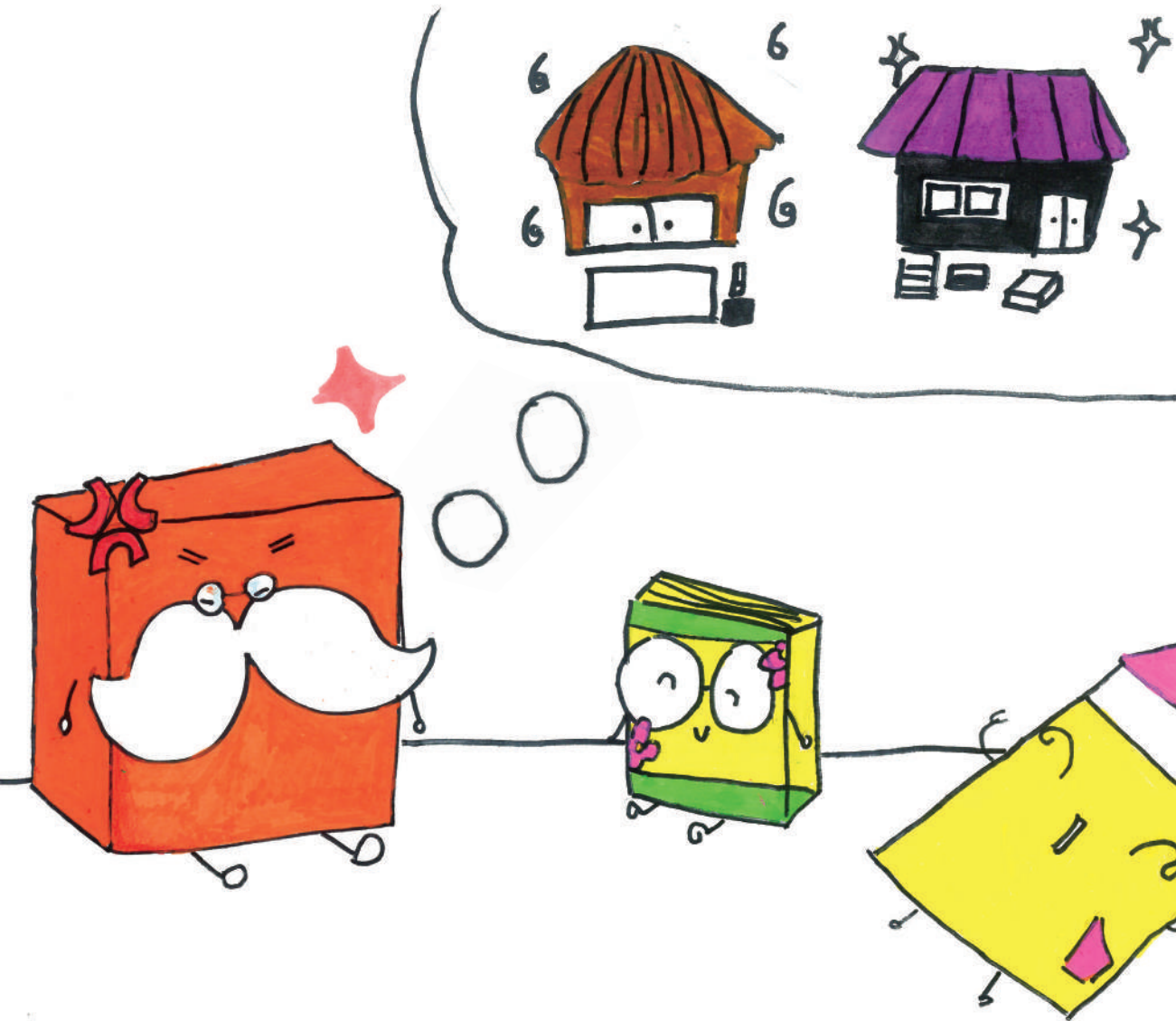


역사책이 말했어요.

아이들이 나를 빌리지 않아서 화가나.
책은 정보를 얻기 위해 존재한다고.

옛날 내 조상들이 얼마나 인기 있었는지 알아?
귀족들만 읽을 수 있었어.
또 글 쓰는 것도 좋아해서 종이와 붓이 많이 팔렸어.

요즘 아이들은 지혜가 부족해.
역사를 보고 느끼면 얼마나 재미있고 위대한지 몰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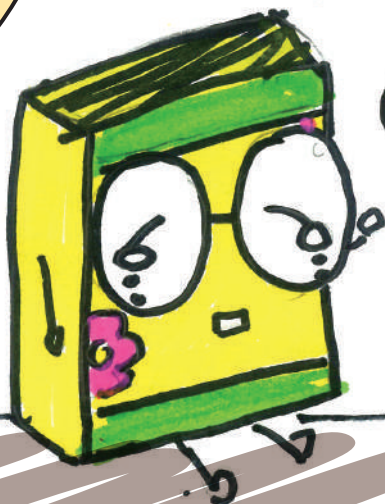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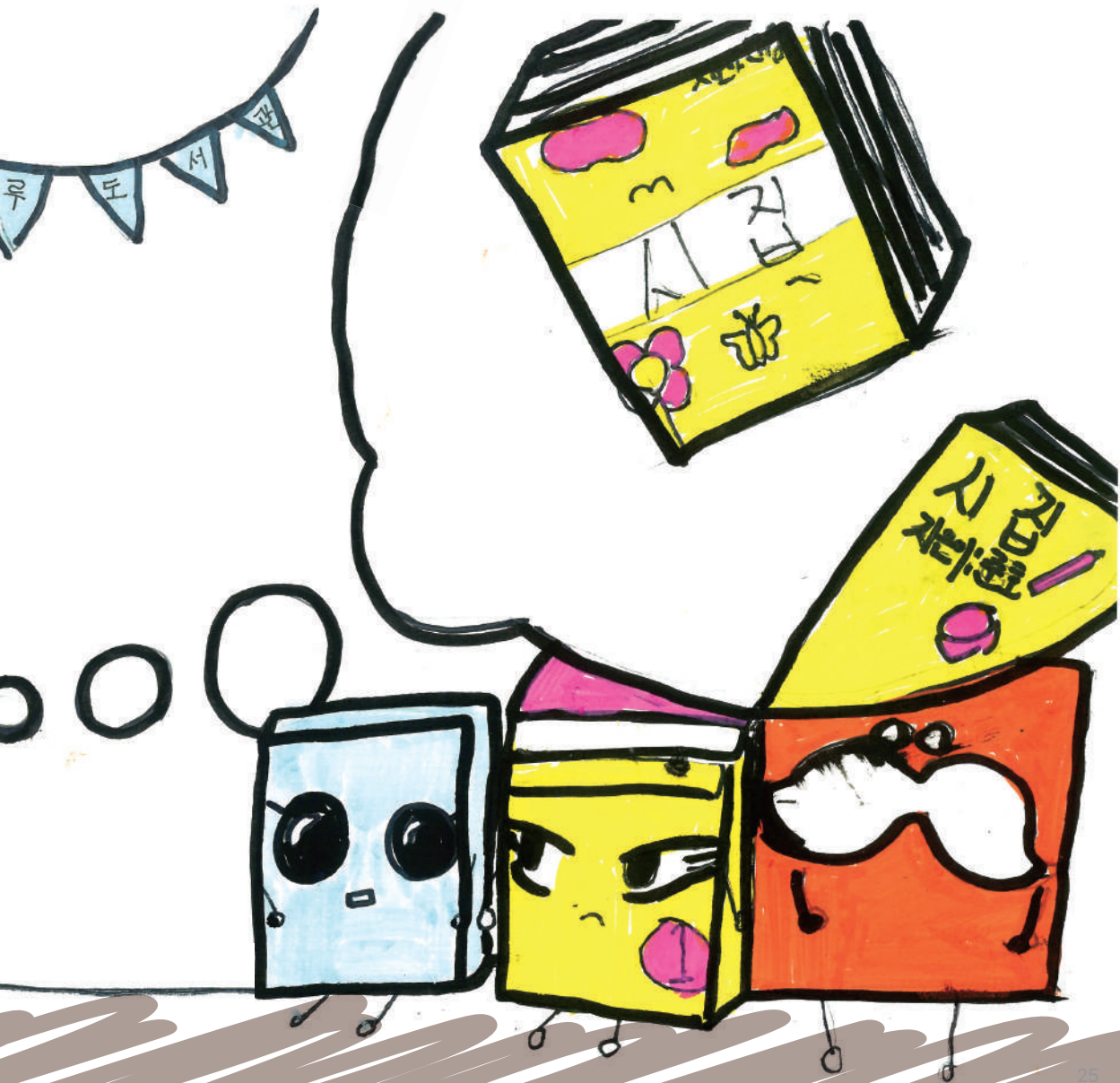
시집이 말했어요.

나는 지식이나 내용이 있지는 않지만,
유명한 시인분들이 쓴 거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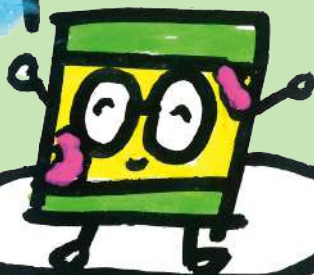
시에는 그림도 있어서 보는 재미도 있지.
글에는 쓰임새와 반복되는 낱말을 찾아보면 재미있어.

사람들이 나를 왜 안 빌리는지 이해할 수 없어.
내가 얼마나 재미있는지.





오늘의 책 소개!



이 말을 들은 사서 선생님은
빌려 가지 않는 책을 위해
이벤트를 열기로 했어요.



오늘의 베스트 책상에
그동안 인기가 없는 책들을 올려 두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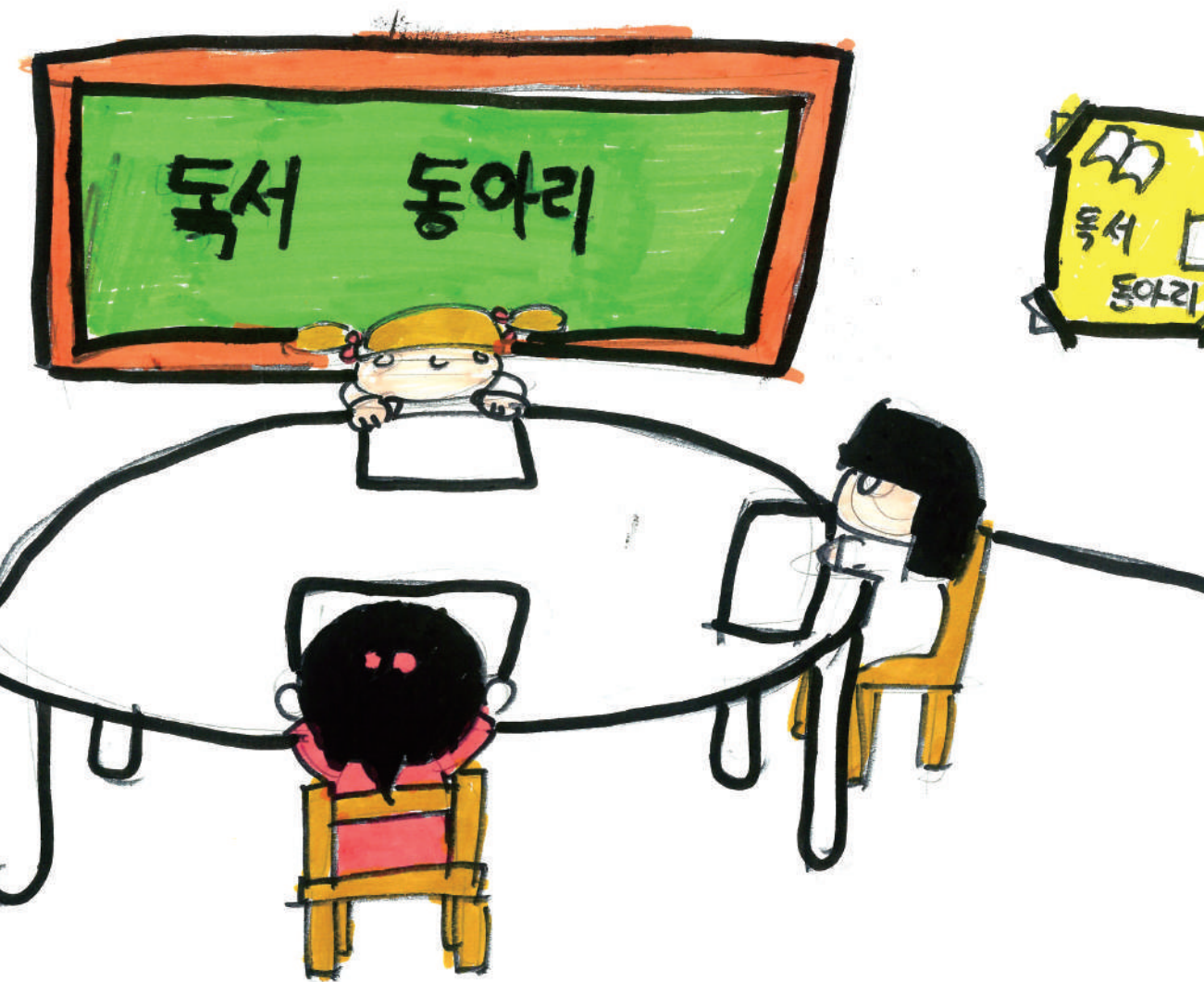
그러자 아이들이 빌려 가기 시작했어요.
역사책, 시집, 새 책 등
이것저것 펼치며 관심을 보였어요.

선생님은 아이들이 어떻게 해야 책을 많이 빌릴지
또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선생님은 독서 동아리를 만들었어요.
매주 같은 책을 읽으며 다 같이 읽고
책을 주제로 토론하는 것이예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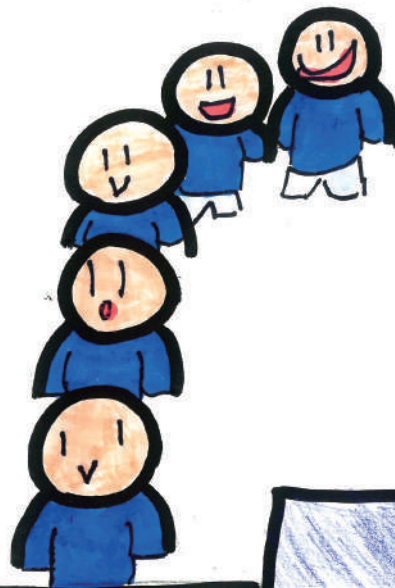
아이들은 독서 동아리에 많이 참가했어요.
아이들은 자기 의견 내는 것을 좋아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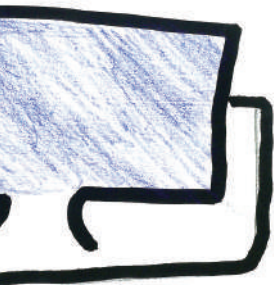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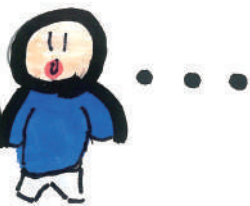




대출기간) 2주일

설문 조사





책 10권을 읽으면 아이스크림을 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아이들은 열심히 책을 읽었어요.

또 선생님은 아이들에게 설문 조사를 했어요.
그중 70%가 대출 기간이 부족해서
책을 못 빌린다는 아이들이 많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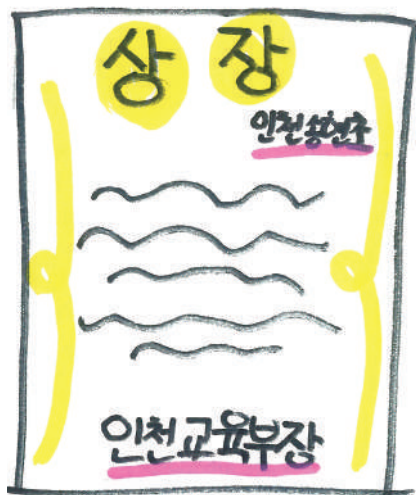
대출 기간을 늘렸어요.
원래 1주일이었는데 2주일로 바꿨어요.

아이들은 부담 없이 책을 빌려 읽었지요.



결국, 사서 선생님과 도서관의 책들이 바빠졌어요.
도서관은 매일 시끌벅적하게 아이들이 드나들었어요.

만화책은 어떻게 됐냐고요?
역사책에게 까불다가 참교육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인천송현초등학교가
책을 많이 읽는 학교로 뽑혔어요.

02 “비밀이 가득한 문방구.”

김지유 박진명 송예진 임지율 최예찬



송현초등학교 앞에는 물건이 안 팔리는 문방구가 있습니다.

어느 날은 한 명도 안 올 때도 있습니다.

물건은 오래되어서 먼지가 쌓이고, 아직도 코로나 때 붙인

〈마스크 착용 후 들어오세요〉라는 문구가 붙어있습니다.

오늘은 학교가 일찍 끝나는 날입니다.

친구가 없는 영희는 문방구를 기웃거렸습니다.

문방구 주인 할머니는 영희에게

문방구에 들어와 볼래?

영희는 심심하던 차에 그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영희는 안으로 들어가면서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애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애들은 모두
행복할까요?
저는 행복하지 않아요.



여기도 아이들이 안 와서,
나도 행복하지 않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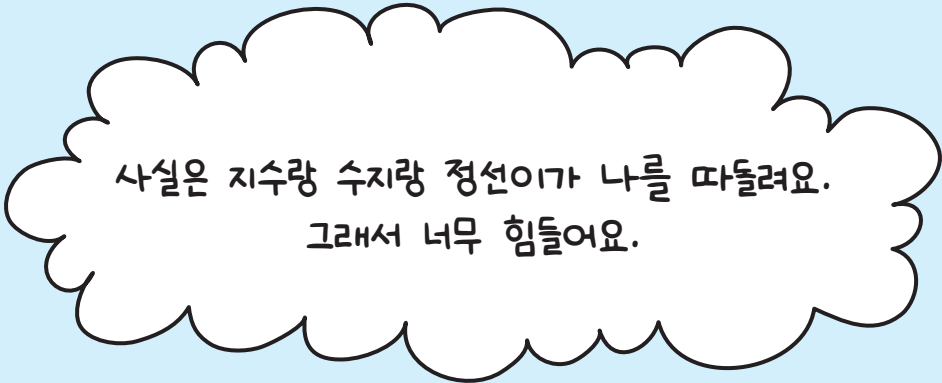
여자는 아이들만
안와서 나도
행복하지 않아서
모르겠네.



그런데 할머니랑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 졌습니다.
이곳이 쉼터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영희를
방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사실은 지수랑 수지랑 정선이가 나를 따돌려요.
그래서 너무 힘들어요.

할머니는 영희 마음을 이해한다고 했습니다.

평소 영희는 얘기를 털어놓을 사람이 없었습니다.
혼자 속으로 힘들어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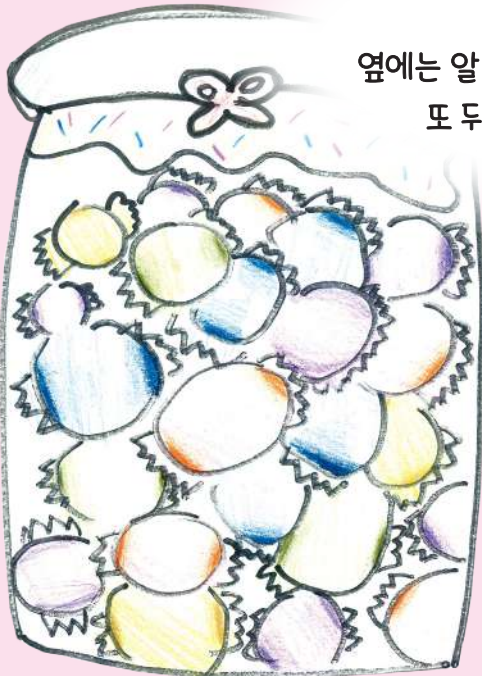
할머니는 다른 방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도착한 곳에는 달콤한 과자들이 많이 쌓여 있었습니다.

옆에는 알 수 없는 지도와 눈을 가린 곰 인형이 있었습니다.

또 뒤로는 금괴와 보석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놀라는 영희를 보며 할머니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영희는 지도와 눈을 가린 곰 인형이 가장 궁금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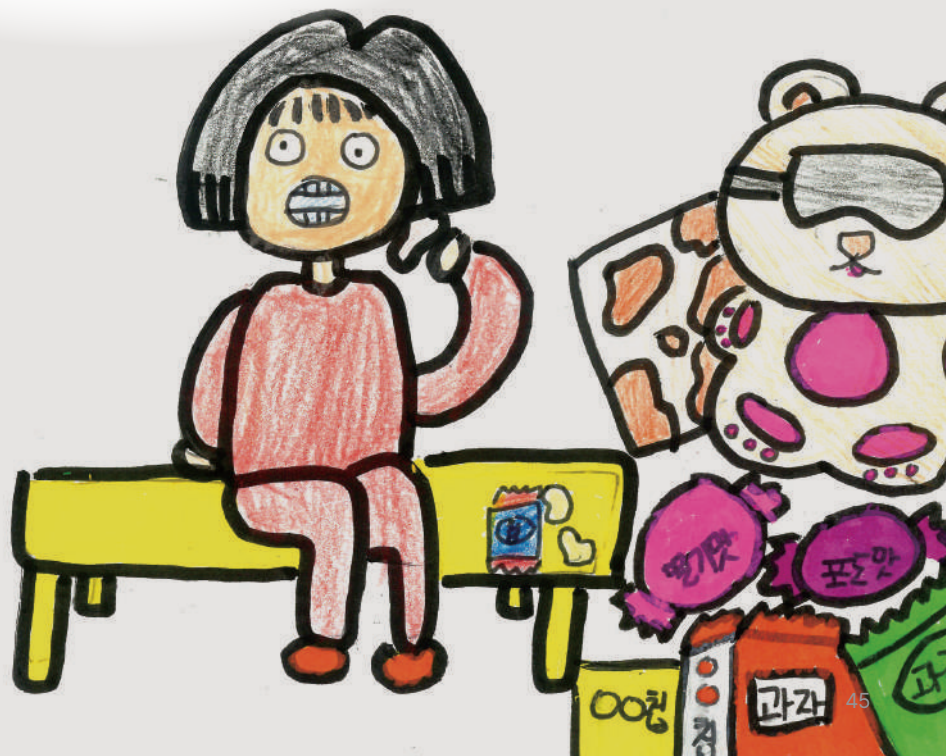


순간, 주인 할머니는 영희에게
아무것도 만지지 말라고 했습니다.

할머니는 문방구로 물건을 가지러 갔습니다.
요술봉과 가위를 가져 왔습니다.
그리고 곰 인형 두 개를 더 가져 왔습니다.



할머니는 갑자기 문을 잠갔습니다.
영희는 주인 할머니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영희에게 과자를 먹고 있으라고 했습니다.
영희는 과자를 먹기 시작했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지도를 펴더니 요술봉으로 점을 찍고는
곰 인형의 눈가리개를 가위로 잘랐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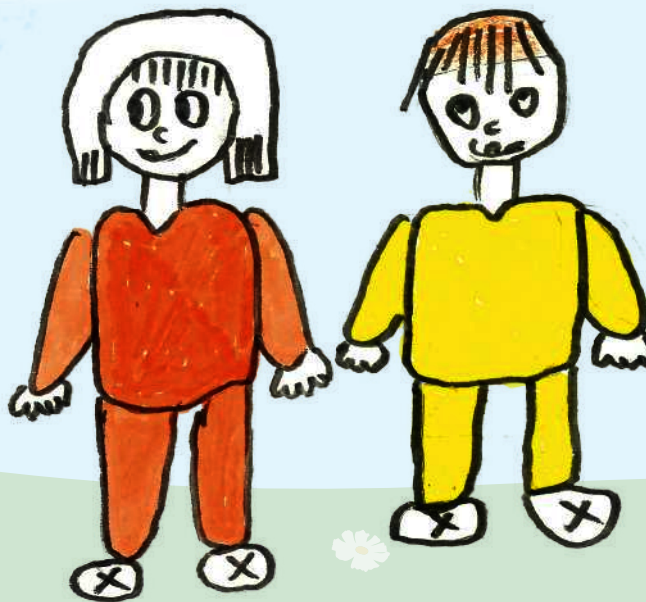
밖에서 지수, 수지, 정선이가 문을 열고 들어 왔습니다.
안에서는 할머니의 이상한 의식이 펼쳐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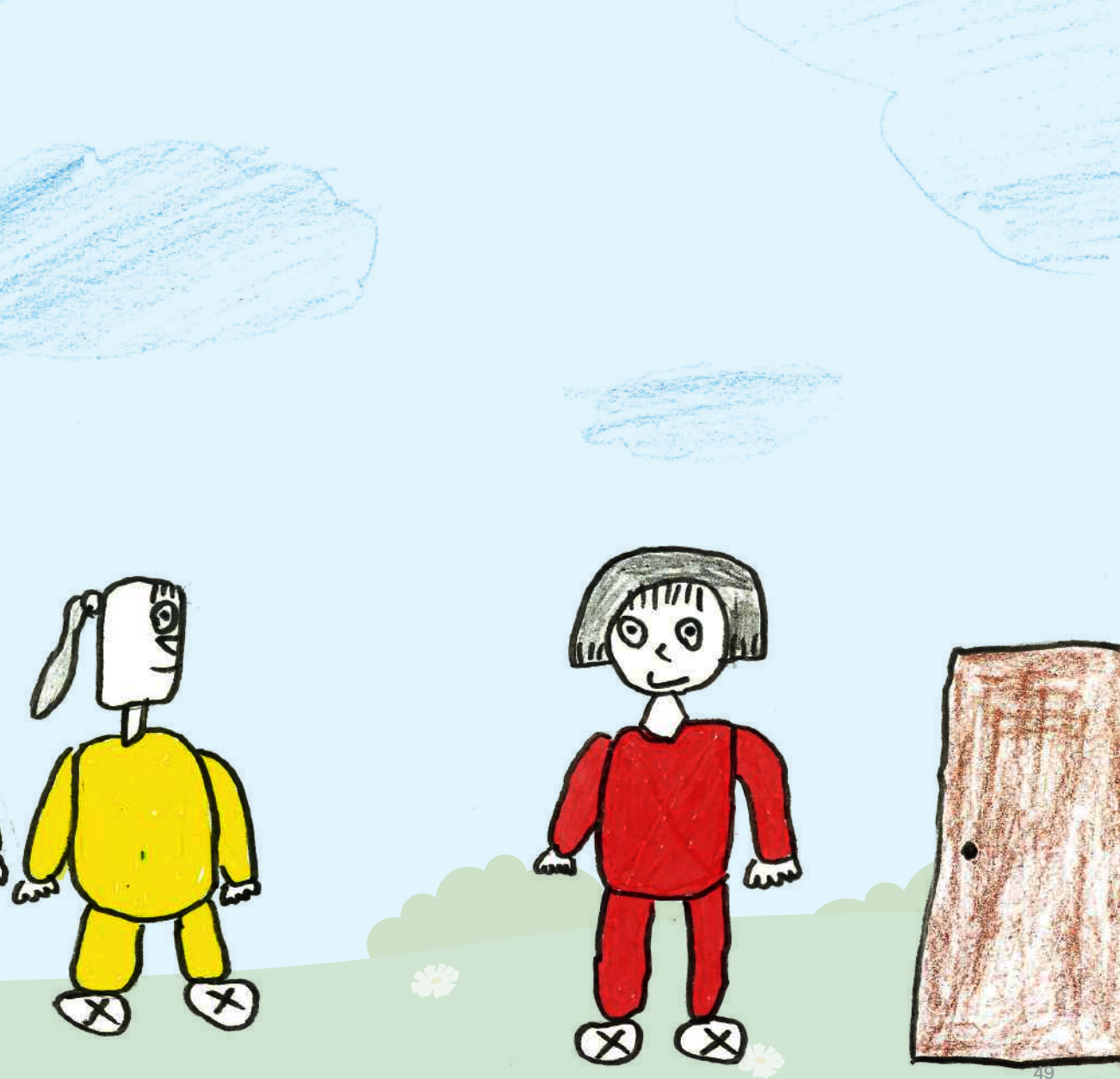
할머니가 외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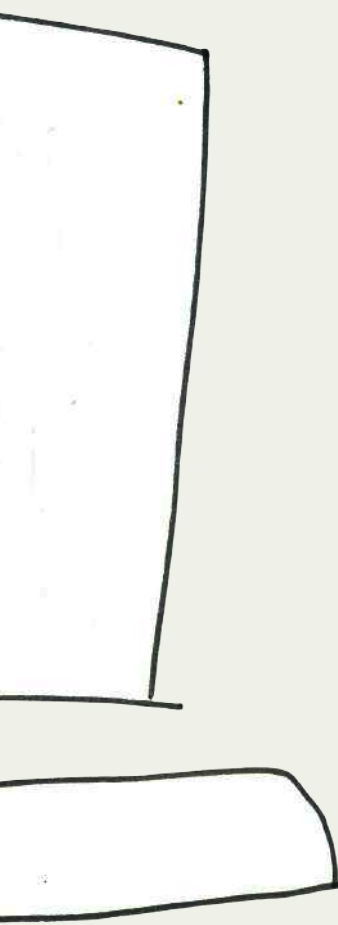
알아듣지 못하는 말을 들으며 영희는 무서워졌습니다.
그래서 밖으로 뛰어나갔습니다.

밖으로 나가니 지수, 수지, 정선이가 웃으며 서 있었습니다.
영희는 기분이 너무 좋아서 아까 있었던 일을 모두 잊었습니다.









알고 보니 그 주문은 마음이 막막한 사람을 대신해서
곰 인형 눈앞을 열어줘서
열린 마음을 갖게 하는 의식이었던 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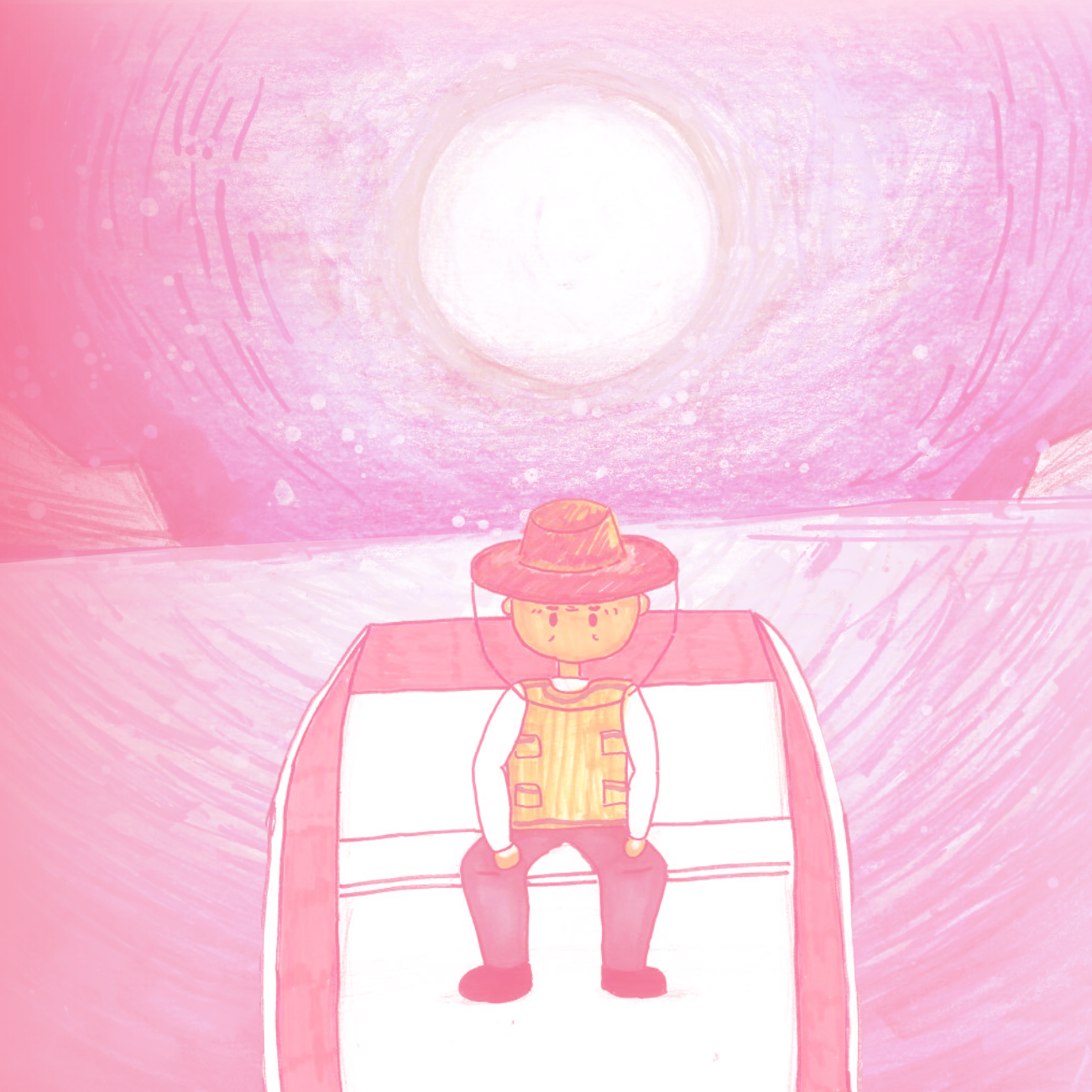
이런 소문이 퍼져서,
그 문방구는 이제 아이들이 많이 오는 문방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송현초등학교 학생들은 마음이 힘들 때
문방구를 찾아가곤 했습니다.

문방구는 뉴스에 나와 전국적으로 유명해졌습니다.

03 “ 늙은 어부의 꿈 ”

남택윤 왕금비 윤건후 이나윤 천근아





만석부두

늙은 어부는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만석 부두로 나갑니다.



어부는 바다에서 평생 살 수 있을 만큼
바다를 사랑했습니다.

예전에는 고기가 잘 잡혔는데,
요즘은 통 고기가 잡히지 않습니다.
젊었을 때만큼은 아니어도 여전히 실력이
좋은 어부입니다.

운이 다한 걸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늙은 어부는 오랜만에 배를 빌려 바다로 나갔습니다.
바닷바람이 몸에 감기니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오늘은 고기가 잘 잡혔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며 배에 탔습니다.

어부는 기대에 부풀었지만,
몇 시간이 지나도 물고기는 입질도 오지 않습니다.
배를 빌린 돈은 벌어야 할 텐데 말입니다.



어부는 어쩔 수 없이
바다에서 하룻밤을 보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부는 밤이 되어도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늘을 보았습니다.

하늘에는 밝고 예쁜 보름달이 떠 있었습니다.
보름달이 바다에 비춰 정말 멋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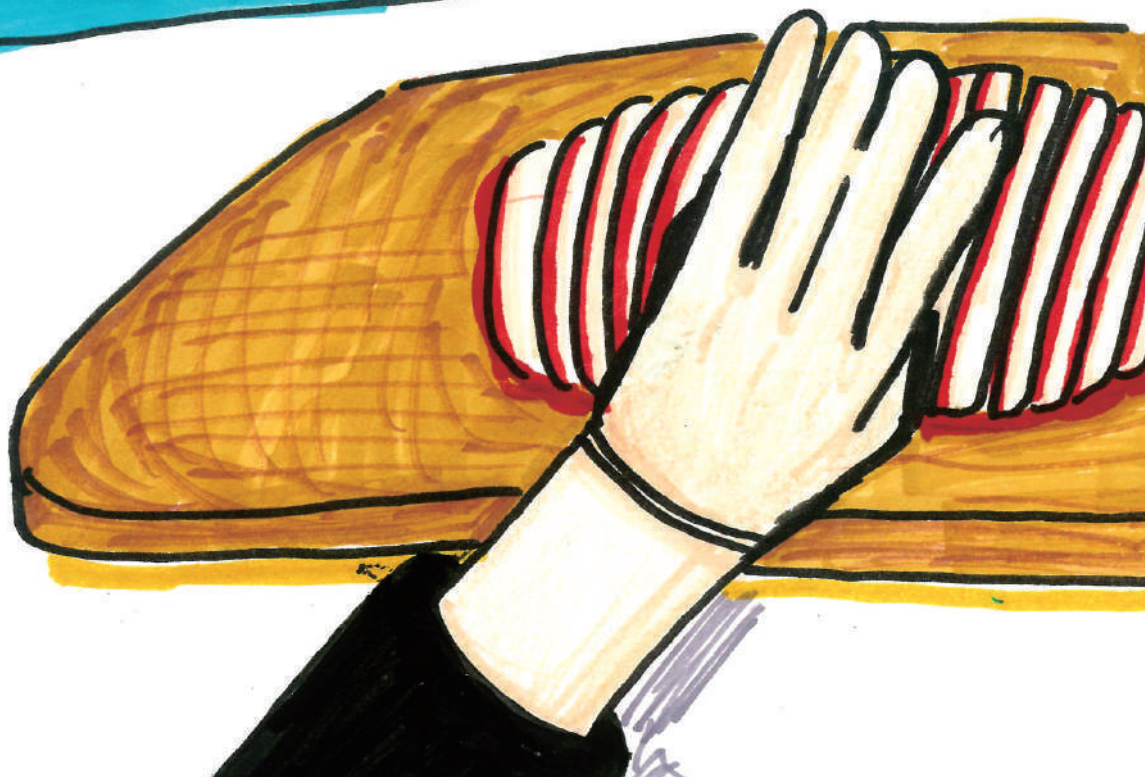


하지만 어부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도 못 잡았으니,
걱정 때문에 이런 풍경이 눈에 들어오지 않았고
행복하지도 않았습니다.

어부는 자신이 곧 길거리에
나앉을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걱정 때문에 잠을 설쳤습니다.

새벽이 되니 추웠습니다.
가져온 옷이 없어 추웠지만, 아침을 기다렸습니다.
어느새 아침이 되었습니다.

몇 시간이 지나자 흔들흔들 낚싯대가 움직이며
입질이 왔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입질이 오니 기분이 좋았습니다.
낚싯대의 떨림을 느끼니 어부는 행복했습니다.
기대하고 들어 올렸는데 너무 작은 고기였습니다.



어부는 실망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었습니다.
아침도 먹지 않았기 때문에 너무 배가 고팠습니다.
늙은 어부는 고민하다가 아까 잡은 물고기를 먹었습니다.
회를 떠먹으니 맛이 괜찮았습니다



점심을 먹은 어부는 과거 엄마의 요리를 떠올렸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맛있는 음식을 해 주었습니다.

특히, 엄마의 김치찌개 맛을 잊을 수 없었습니다.
매콤하고 뜨끈한 김치찌개가 입으로 들어가면
정말 기분이 좋았습니다.

엄마는 그가 배고프지 않도록
언제나 식사를 중요하게 여기며 챙겨주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어부는 작은 물고기 한 마리로
점심을 해결한 자신을 보니 무언가 슬펐습니다.



그는 또 자신의 아들을 떠올렸습니다.
그의 아들은 누가 보아도 귀여웠습니다.

그런 아들은 커서 꼭 효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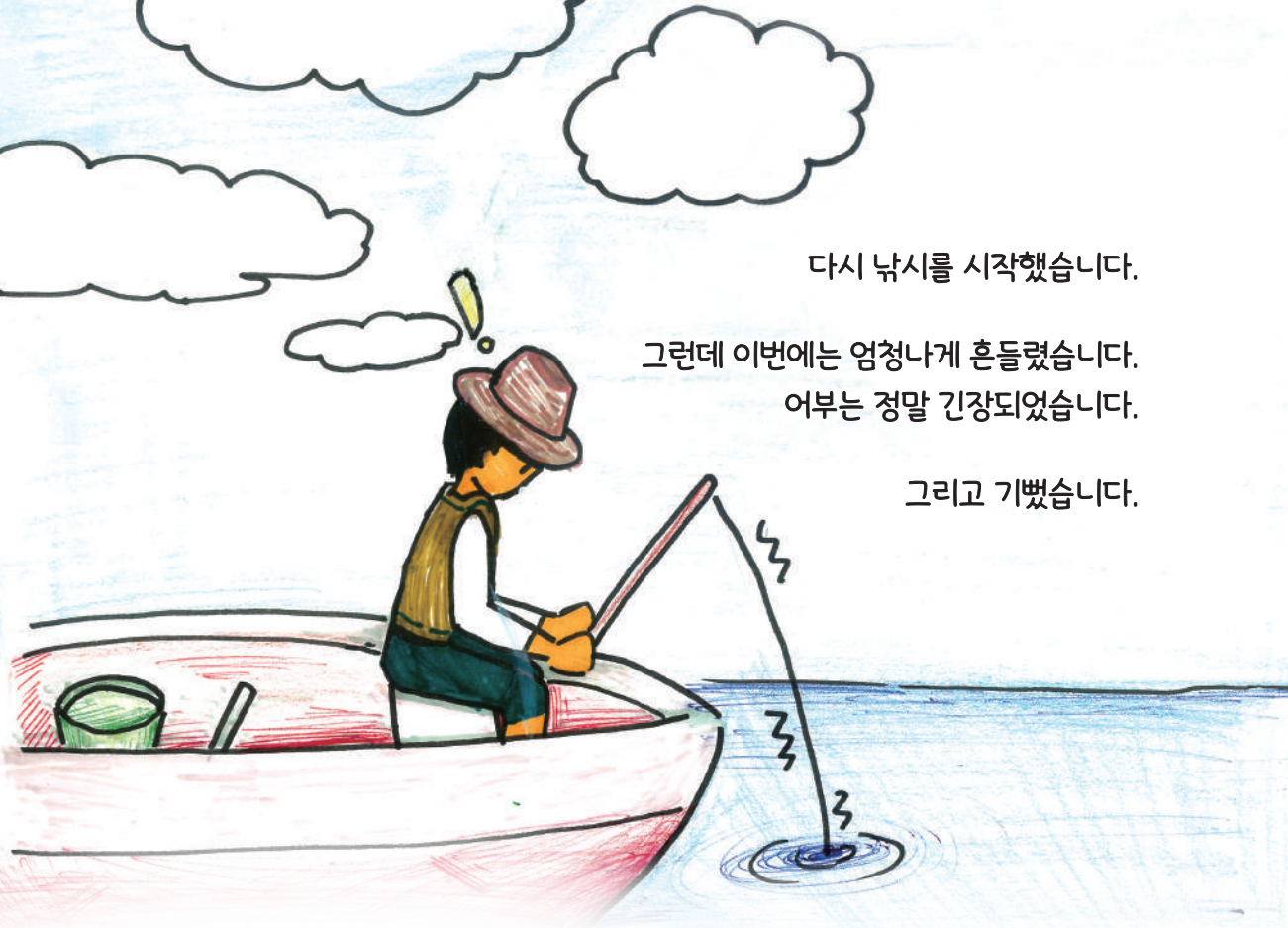


몇달째 연락이
없네...

그런 아들은 사업을 한다며
도시로 떠나더니 연락이 끊겼습니다.

그러나 노인은 아들을 원망하지 않습니다.
오늘은 유난히 그런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다시 낚시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엄청나게 흔들렸습니다.

어부는 정말 긴장되었습니다.

그리고 기뻐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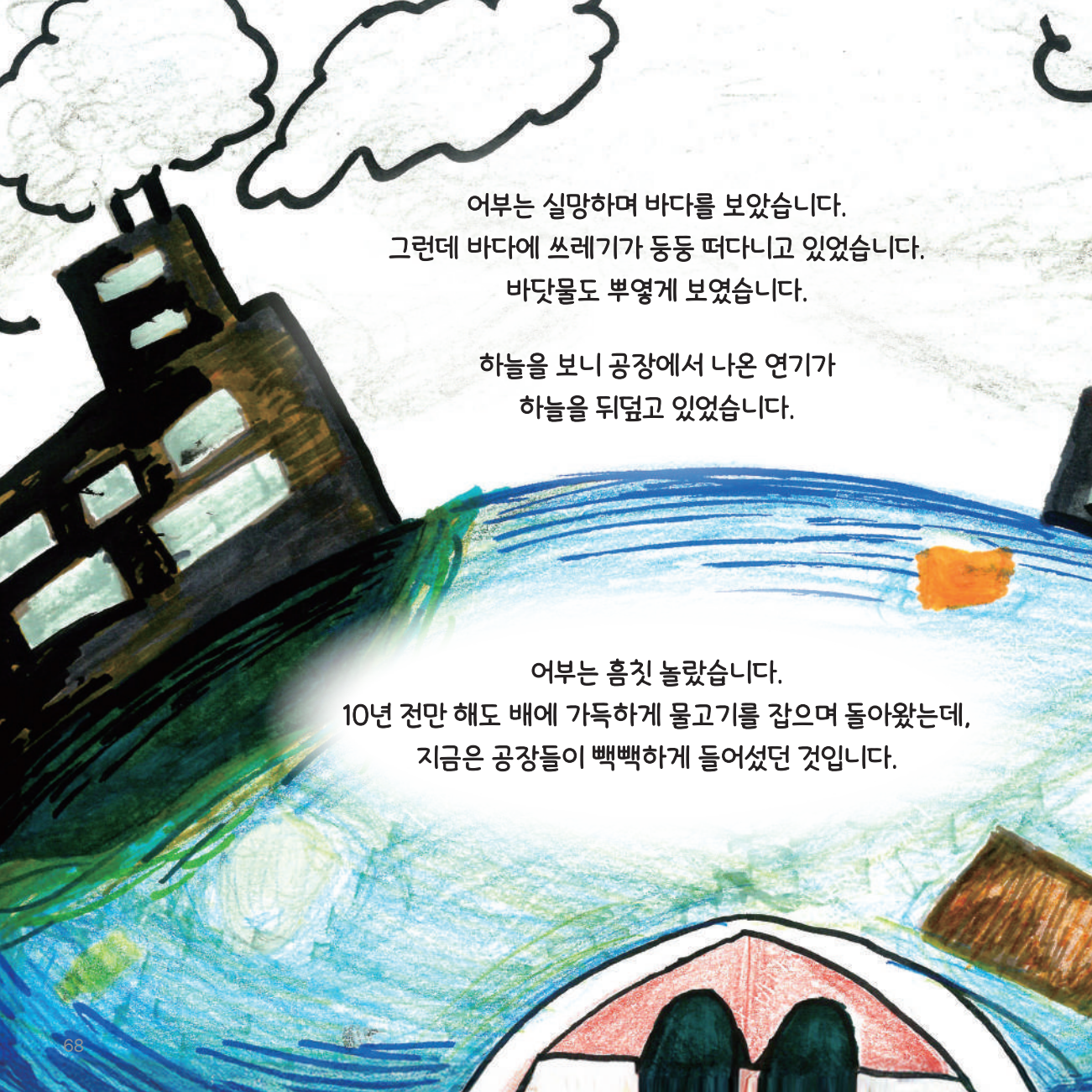
수십 년간 어부 생활을 한 어부는,
이번엔 정말 큰 고기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물고기가 큰 만큼 값이 많이 나갈 것을 생각하니
힘이 절로 났습니다.



그러나 올려보니 쥐똥만 한 작은 고기가 올라왔습니다.

어부는 하도 물고기를 잡지 못해
물고기 잡는 감각을 잊어버린 것이었습니다.



어부는 실망하며 바다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다에 쓰레기가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바닷물도 뿌옇게 보였습니다.

하늘을 보니 공장에서 나온 연기가
하늘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어부는 흠칫 놀랐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배에 가득하게 물고기를 잡으며 돌아왔는데,
지금은 공장들이 뿜뿜하게 들어섰던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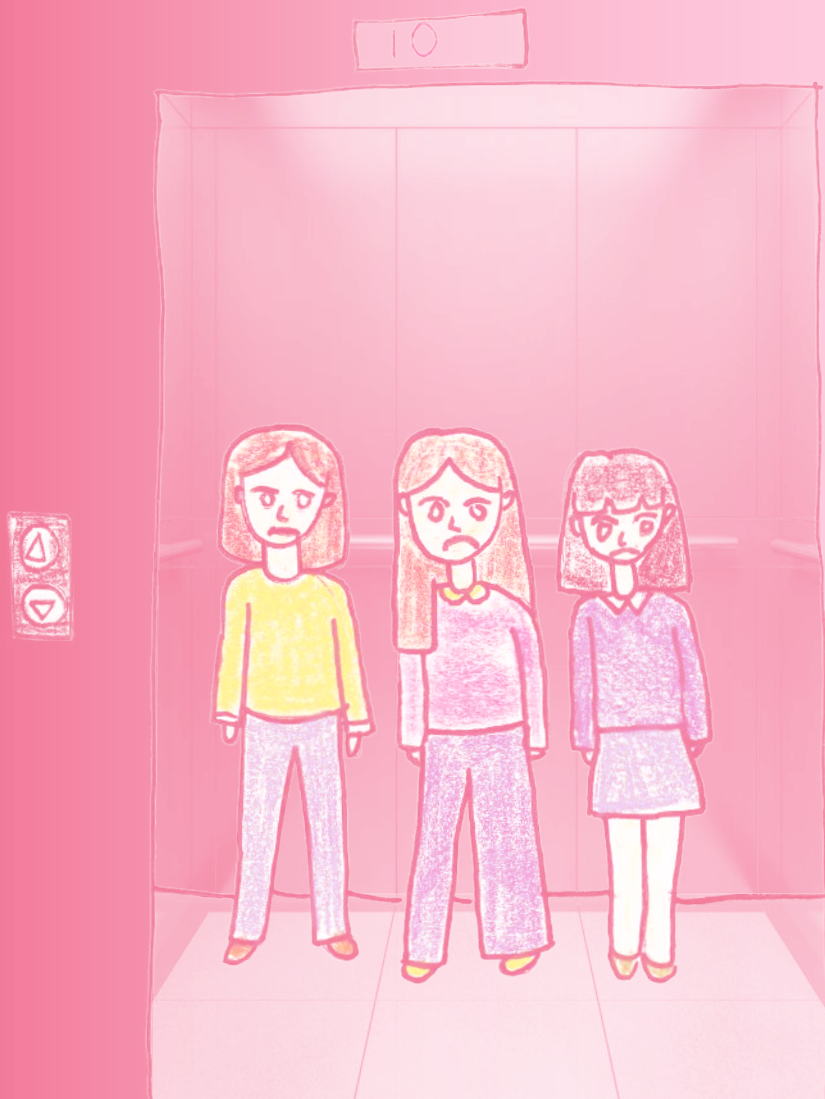


그렇게 어부는 빈손으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어부는 매일 옛날 생각을 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04 “다른세계”

강수성 설가은 이민정 허지호





다른 날과 어김없이 이수는 학원을 끝내고 오자마자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을 본다.

매일 같은 뻔한 내용의 영상들,
오늘따라 무엇을 해도 다 재미가 없다.

그러다가 이수의 눈길이 가는 영상을 발견한다.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 가는 방법”

방법은 간단했다.

10층 이상의 건물에 있는 엘리베이터에 타서
순서대로 4층, 2층, 6층, 2층, 10층, 5층을 누른다.

이때 5층에서 키가 큰 여자가 탄다.
그 여자와 대화를 하지 않아야 하고
눈도 마주치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1층을 누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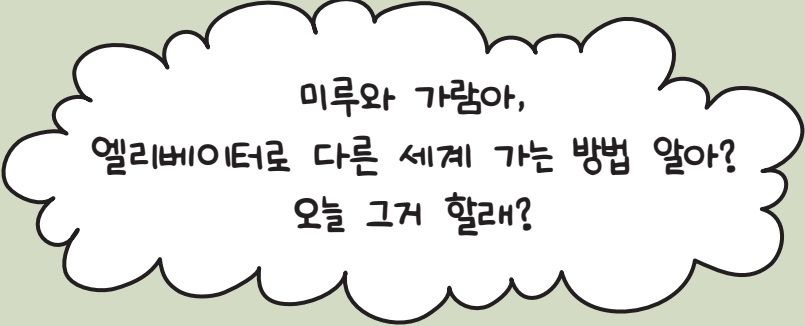
이때 10층으로 올라가면 성공이다.





엘레베이터로
다른 세계 가는
법 알아?

이수는 그것을 믿진 않았지만, 호기심을 느낀다.
다음 날, 이수는 친구들을 만나서 그것을 제안한다.



미루와 가람아,
엘리베이터로 다른 세계 가는 방법 알아?
오늘 그거 할래?

이수가 제안했다.
그러자 모두가 수락한다.



좋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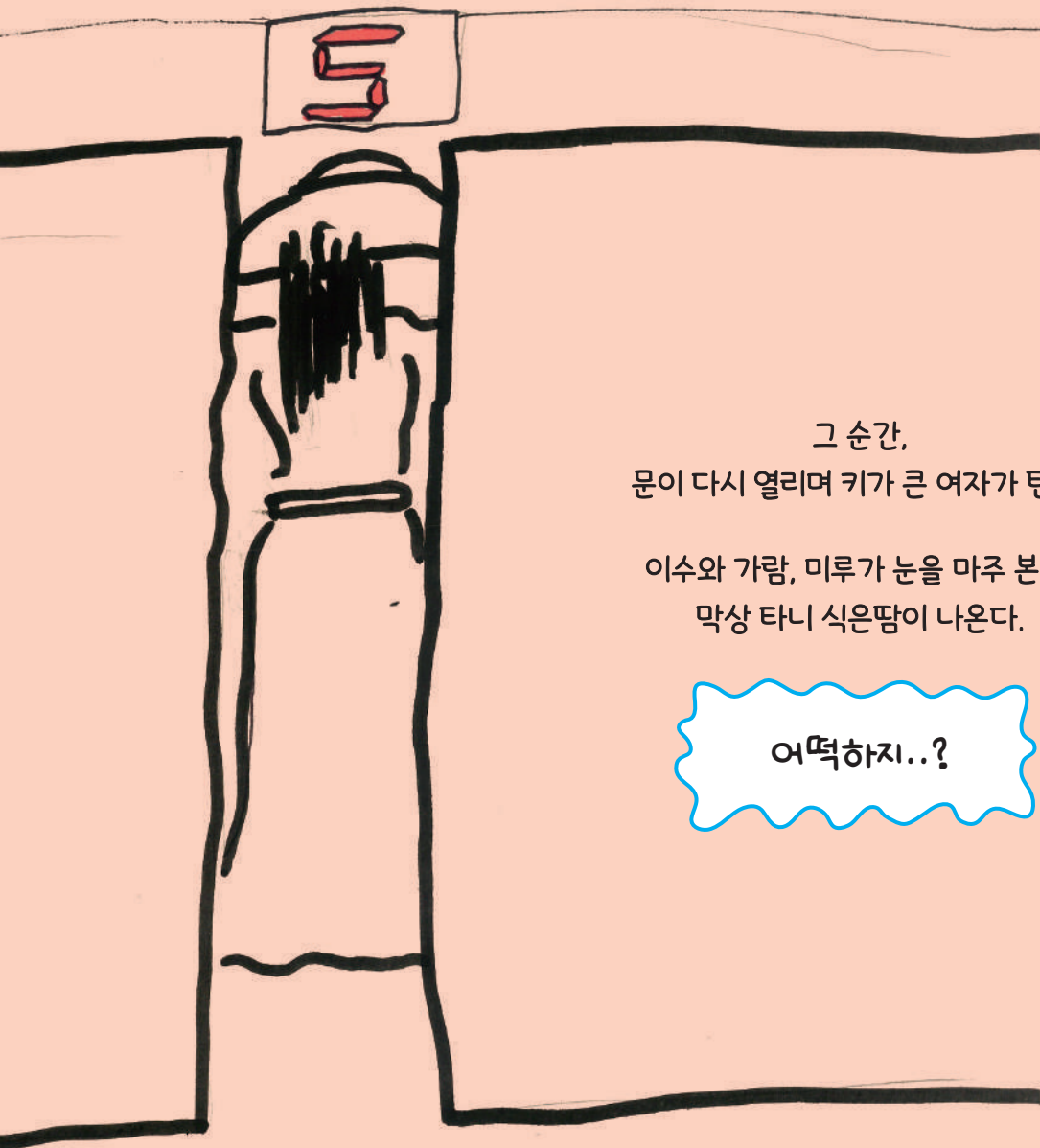
학교가 끝나고 이수는 미루와 가람을 만나서
이수네 아파트로 간다.

막상 도착하니 떨리고 긴장이 됐다.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돌아갈 순 없으니 일단 시작한다.

규칙을 보며 그들은 층수를 누른다.
4층, 2층, 6층, 2층, 10층, 5층을 탄다.

5층에 여자가 탈까?
모두가 숨죽여 기다린다.

7층, 6층 그리고 5층, 5층에 도착하고 문이 열린다.
그런데 아무도 없다.
내심 다행이라고 생각하며 숨을 돌린다.



그 순간,
문이 다시 열리며 키가 큰 여자가 탄다.

이수와 가람, 미루가 눈을 마주 본다.
막상 타니 식은땀이 나온다.

어떡하지..?



그리고 1층을 누른다.
이수와 가람, 미루는 우연이라고,
제발 1층으로 다시 내려가는 것을 바란다.

하지만 엘리베이터는 10층으로 올라간다.
그들의 표정은 사늘하게 굳는다.

10층에 도착하고 그들은 엘리베이터에서 내린다.

내리고 이수와 아이들은
정말 다른 세계로 온 거냐며 무서워한다.
일단 계단으로밖에 내려가 보기로 한다.

밖으로 나오자 다행히 다른 세계인 것 같진 않았다.

휴, 다행이다.

일단 길을 걸으며 방금 일어난 일에 관해 얘기를 한다.

아까 정말 다른 세계로 가는 줄 알고 놀랐잖아.
너무 무서웠어.



가람이 말했다.

나도, 정말 무서웠어.

미루가 맞장구를 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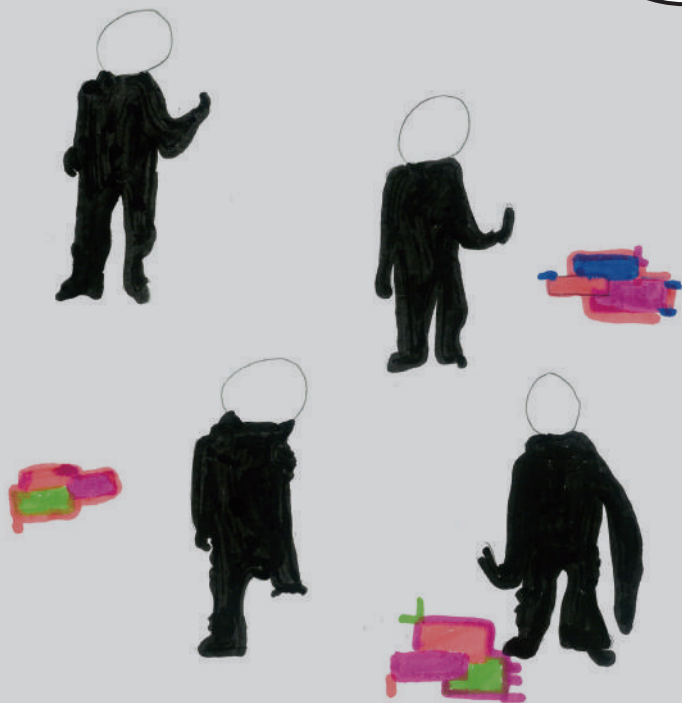
흥분하며 말하는 아이 중에 이수는 이상한 느낌을 느낀다.
너무 조용한 동네, 그래픽처럼 일정하게 움직이는 사람들.
뭔가 이상한 느낌을 든다.



얘들아 뭔가 이상하지 않아?
뭔가 이질감 들지 않아?

이수가 말한 동시에
모든 사람이 이수를 쳐다본다.

근데 그들의 얼굴이 이상하다.
아니, 기괴하다. 눈코입이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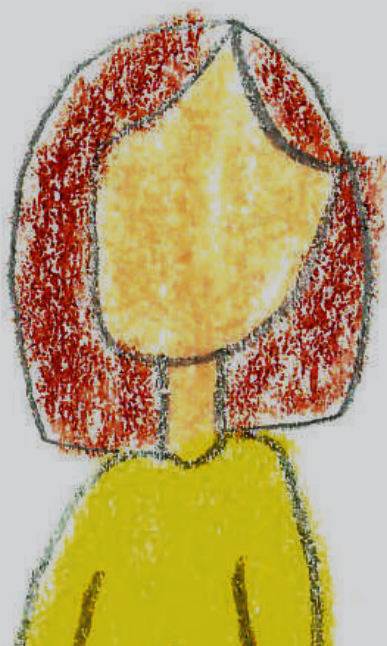


얘들아 도망쳐!

이수가 소리치며 가람의 손목에 잡고 도망치려는데
가람이 움직이지 않는다.

얼른 도망가야 해!

소리치며 가람과 미루를 쳐다본다.
그 순간, 이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았다.



가람과 미루에 얼굴도 눈코입이 없다.
가람과 미루가 웃으며

들켰네.



이수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그들이 점점 다가온다.

그들이 다가오는 순간, 눈을 뜬다.

“허억.”

거칠게 숨을 쉬며 일어난다.

일어나 보니 침대 위다.

이수는 땀범벅이 되어있었다.

“하아, 꿈이구나 다행이다.” 라고 생각한다.

그때 어머니께서 이수의 방에 들어온다.

잘 잤니?

어머니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 어머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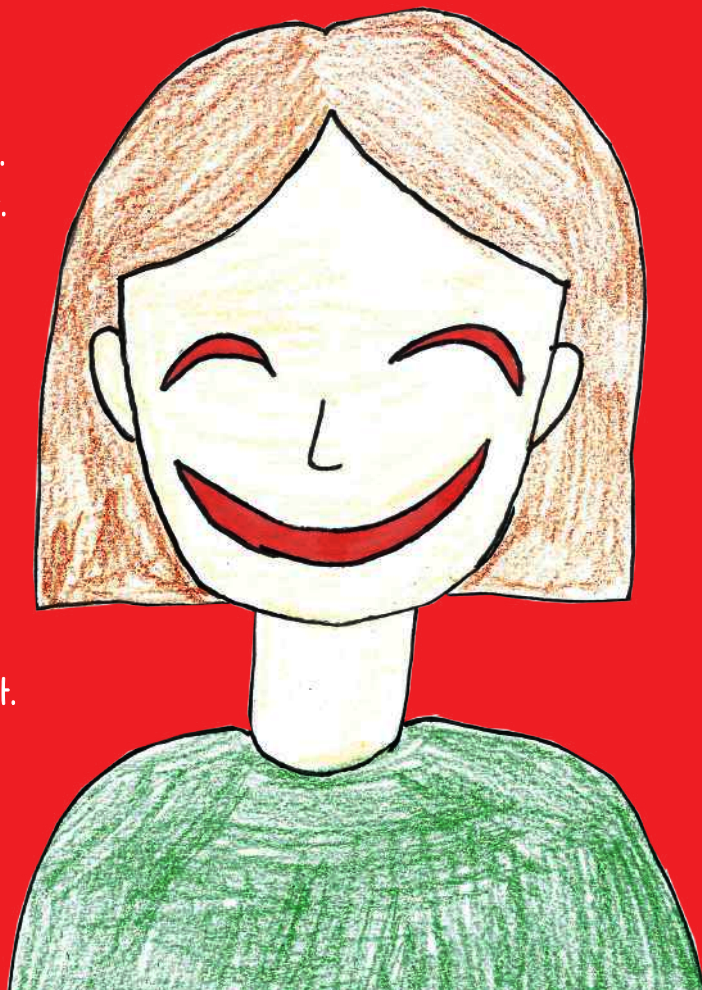
그리고 이수는 꿈의 내용을 어머니에게 말하며
무서움을 씻어내려 한다.

그런데 어머니가 기괴하게 웃는다.
그 모습이 기괴해 이수는 소리친다.



그 순간 어머니의 얼굴에
눈코입이 없어지며
신나게 웃는다.

그때 이수는 주의 사항을 깨달았다.



***주의 사항 : 다른 세계로 간다면 절대 다시 돌아올 수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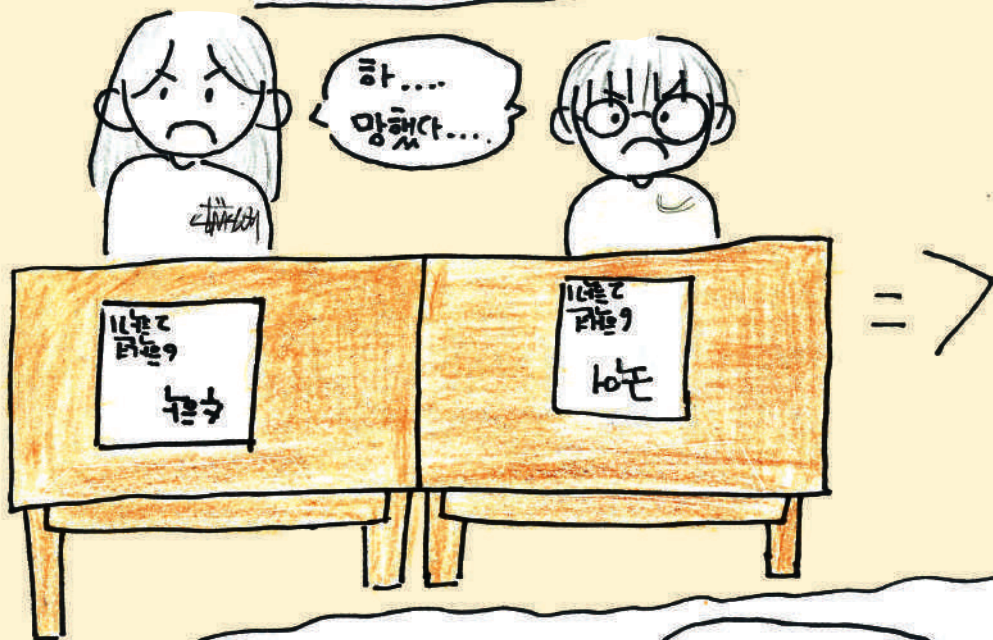
05 “행방불명이된 도아를 찾아서”

김도하 이연우 이유라 이준우



이연이와 도아는 서로를 싫어한다.

짜궁 바뀌는 시간 ㄱ ㄱ~



이연이가
바지에 똥쌌어
ㅋㅋ

대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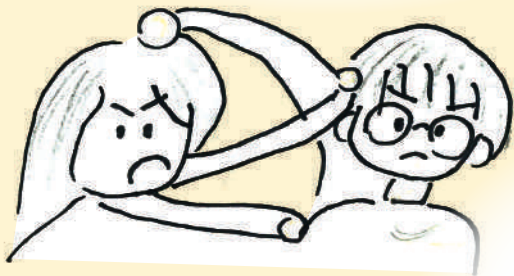


그런데 짹공이 바뀌는 날 둘은 짹이 되었다.

짹공이 되고 부터 매일 싸울 일이 생겼다.

도아가 이연이에 대해 이상한 소문을 내고

심한 장난을 쳤기 때문이다.



그 사건은 해결되었지만,
이연이는 도아랑 친해지지 않기로 다짐했다.

오늘도 도아랑 싸우고 난 뒤 하루를 마쳤다.



다음날, 도아가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이연이는 내심 기분이 좋았다.

그런데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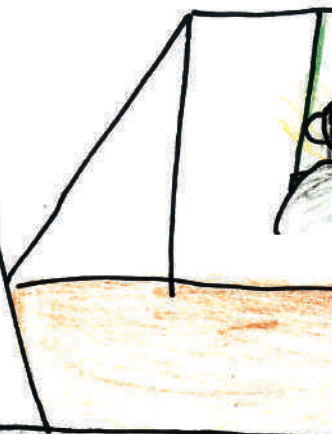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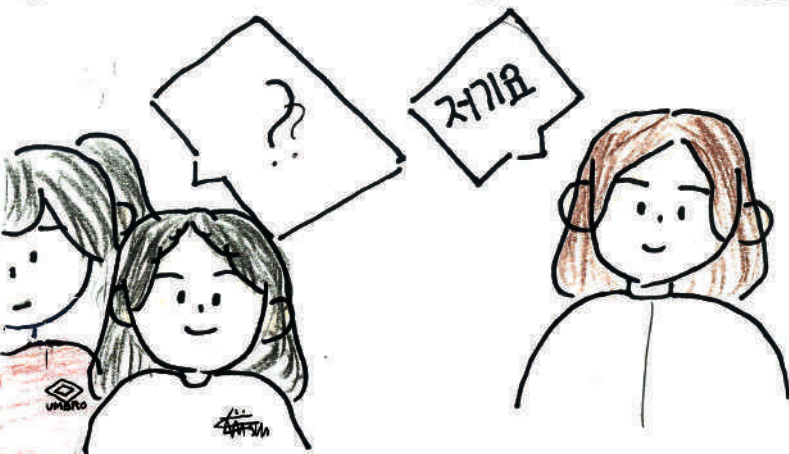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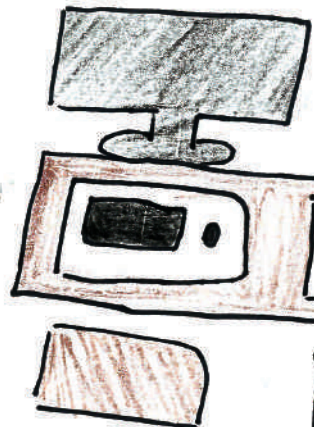
이연이는 좀 신경이 쓰이기 시작했다.



이연이는 도아를 찾아가 보기로 했다.
도아가 잘 가는 곳부터 찾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연이는 도아가 많이 가는 곳을 몰라
친구들에게 물어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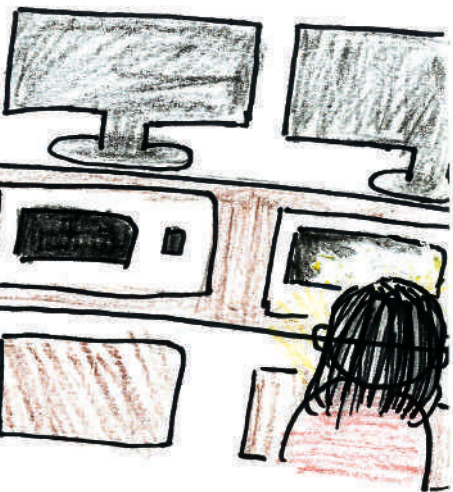
놀이터, 도서관, P.C 방에 자주 간다고 말했다.



-유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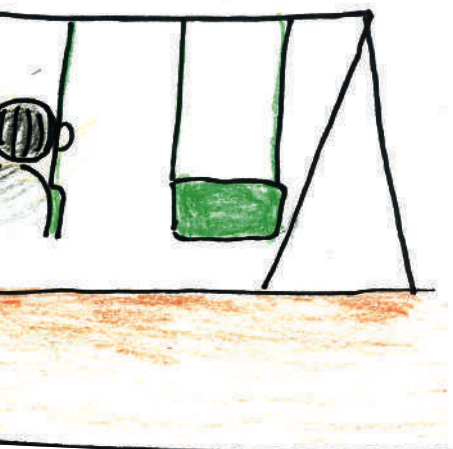
-영성



제일 먼저 학교에서 가까운 P.C 방으로 갔다.

주인아주머니에게 6학년 학생이 있냐고 물었더니
저 맨 끝자리에 있다고 하셨다.

가서 보니 친구 유미였다.



다음으로 유미와 같이 놀이터를 갔다.

산책하던 어른에게 6학년으로 보이는 아이를 물었더니
그네를 타는 것 같다고 했다.

◦ 오늘은 도아를 찾지 못함
◦ 유미, 여성도 같이 찾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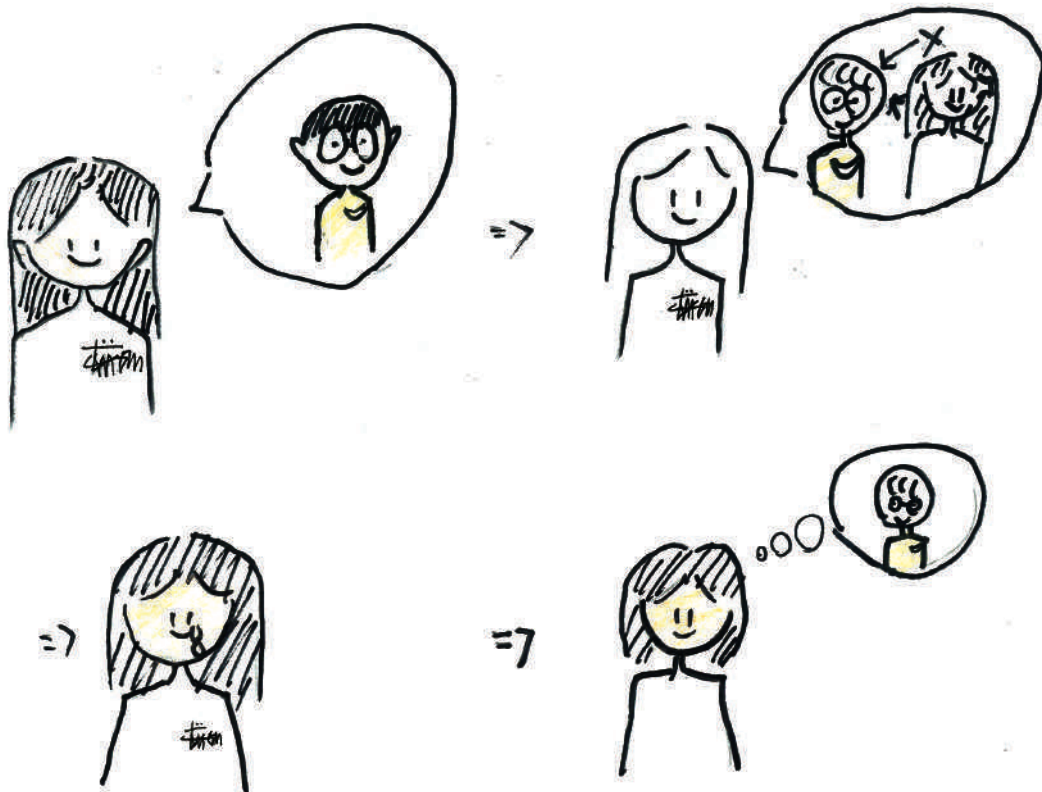
이연이는 도아를 찾으면서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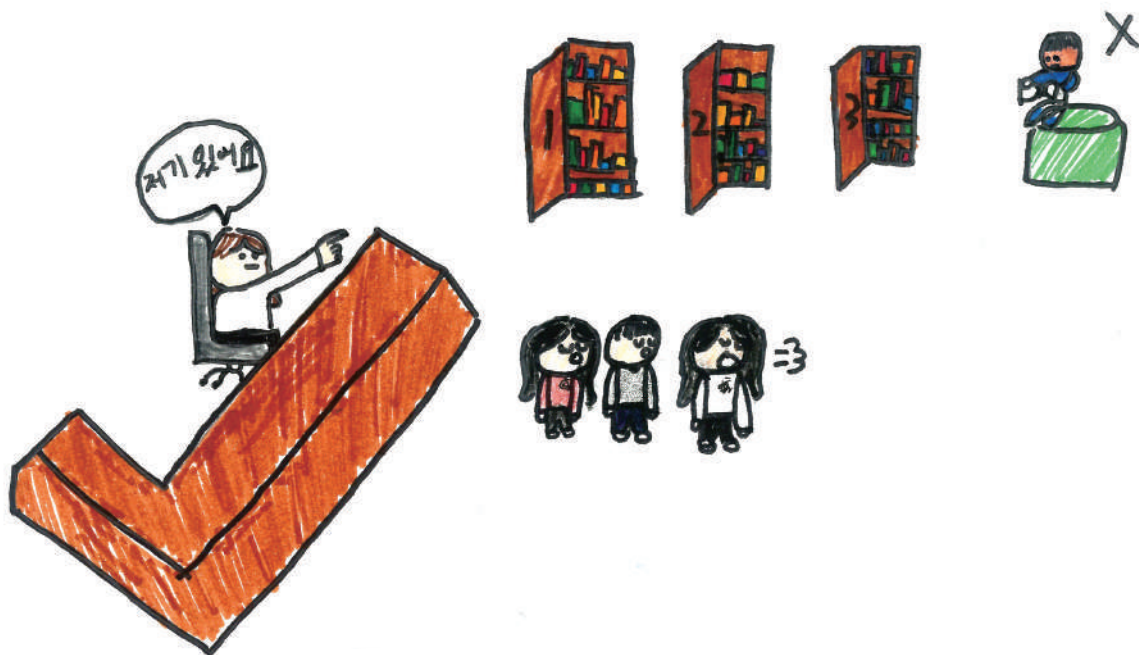
나는 왜 도아를 싫어하고 짜증만 냈을까.

너무 미안하네.

앞으로 친하게 지내고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할게.

이연이는 울음을 참고 계속 도아를 찾았다.





이번에는 도서관으로 갔다.
 사서 선생님에게 도아처럼 생긴 애를 봤냐고 물었다.
 사서 선생님이 저쪽에 비슷한 친구가 있다고 말했다.
 희망을 품고 가보았지만 도아가 아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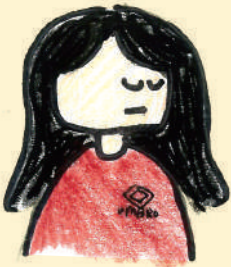
그때 이연이가 말했다.



난 맨날 도아에게 짜증만 냈어.

준호도

나도, 그래.
도아에게 매일 화만 냈는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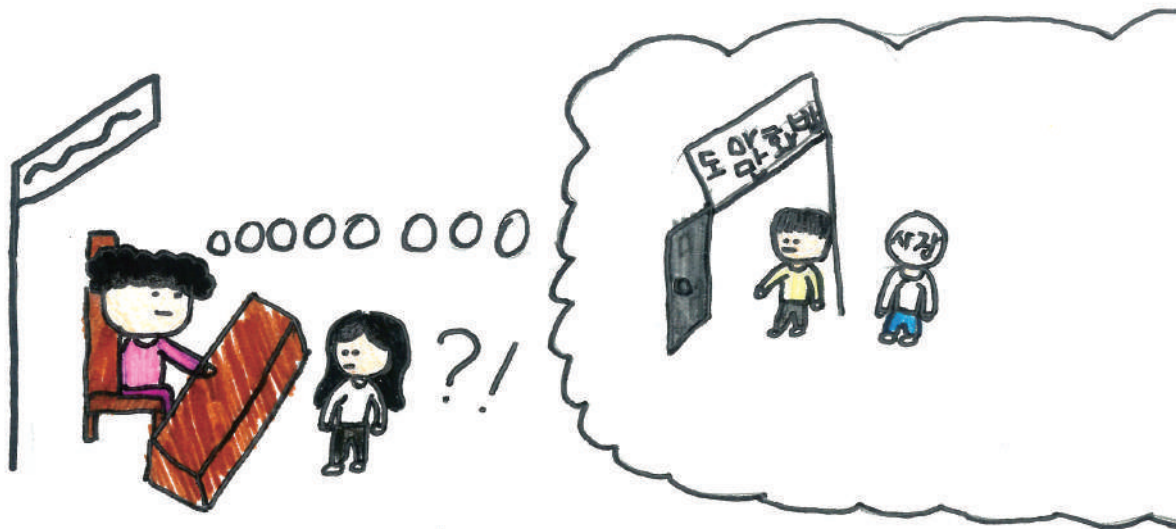


나는 심지어 도아 욕도 하고
개 말도 무시하고 그랬는데,
미안해지네. 만나면 사과해야겠어.

유미도 울먹이며 말했다.

마지막으로 동인천 지하상가를 가보기로 했다.

상가 아주머니에게 물으니,
도아처럼 생긴 애가 어제 만화방 주인아저씨랑 같이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고 말하셨다.





서둘러 들어가 보니 도아가 있었다.

그곳은 도아 아버지가 운영하는 만화 가게였다.
가게가 바빠서 아버지를 도와주고 있느라
학교를 못 온 것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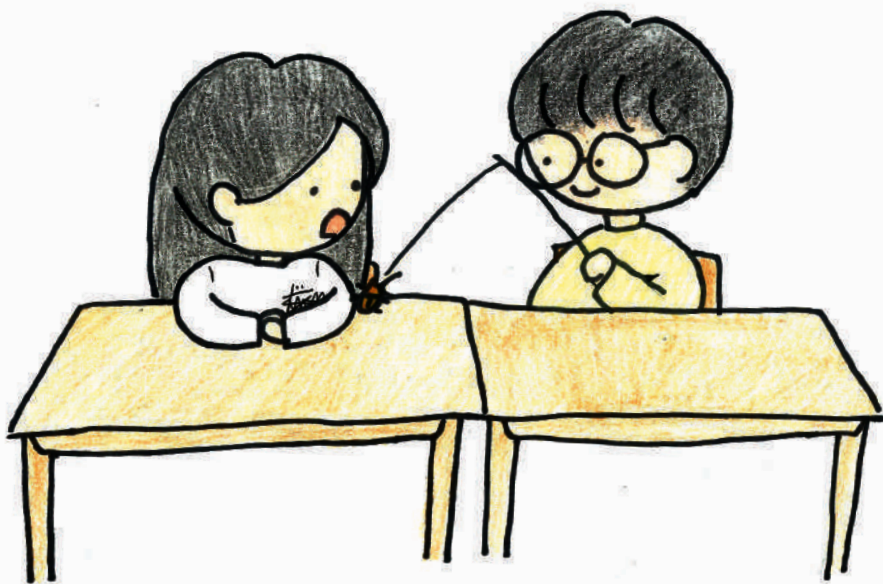
띠리리링. 갑자기 학교 종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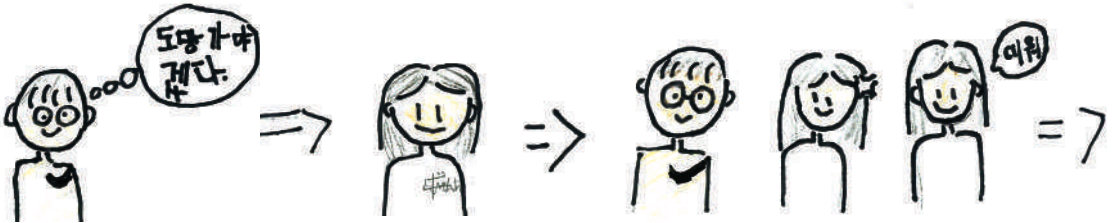
어 무슨 소리지. 내가 왜 학교에.

알고 보니 지금까지 자고 있었던 것이었다.
꿈이라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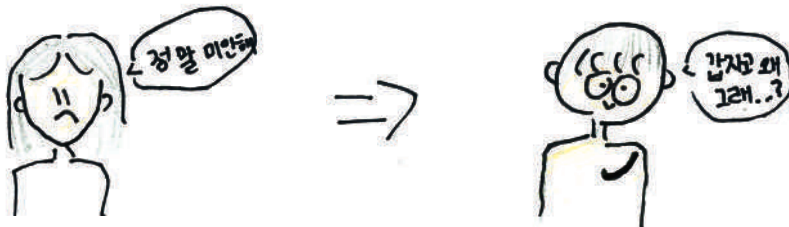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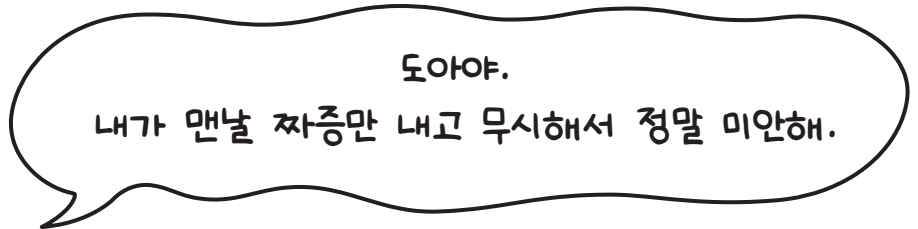
갑자기 바퀴벌레가 날아왔다.
바퀴벌레가 날아왔던 곳에는 도아가 있었다.



도아는 도망가려고 했다.



갑자기 이연이가 말했다.



도아는 웃으면서 갑자기 왜 그러냐고 했다.

도아도 말했다.

나도 오히려 미안해
이젠 사이좋게 지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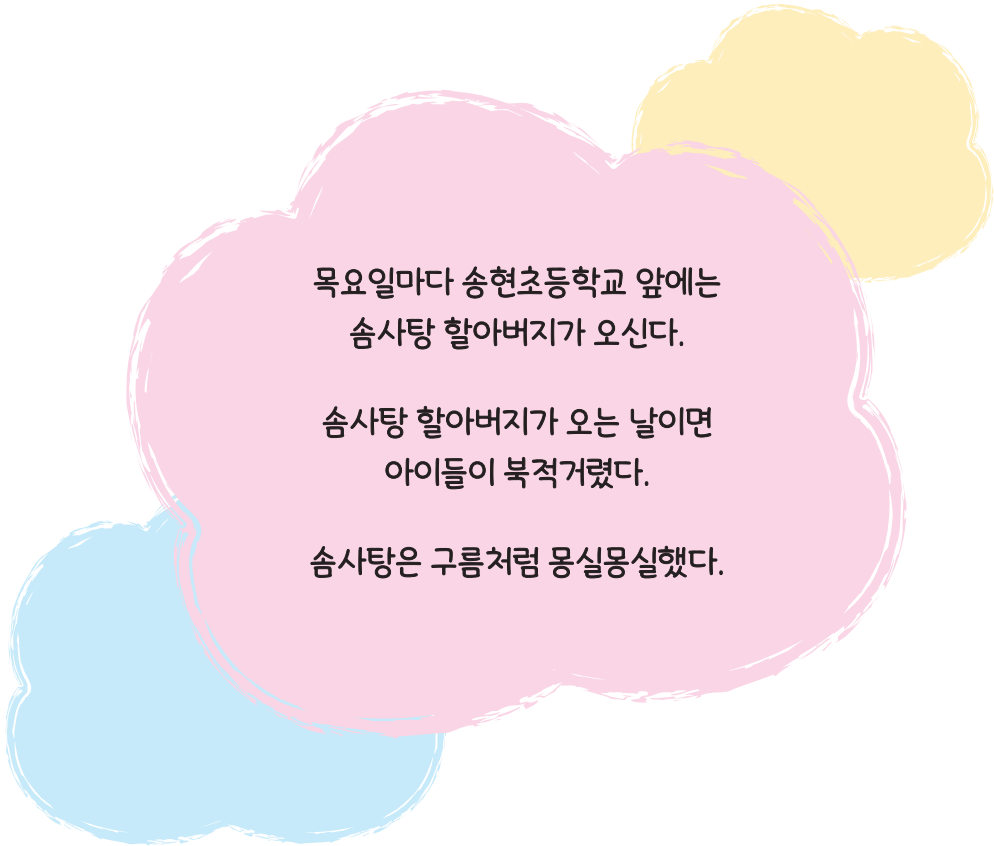


06 “솜사탕 할아버지”

김유리 신정우 이루리 이승우







목요일마다 송현초등학교 앞에는
솜사탕 할아버지가 오신다.

솜사탕 할아버지가 오는 날이면
아이들이 북적거렸다.

솜사탕은 구름처럼 몽실몽실했다.



그러던 어느 날 승우가 솜사탕을 사는데
아저씨가 가루를 뿌리셨다.

승우가 말했다.

할아버지, 뭐 뿌린 건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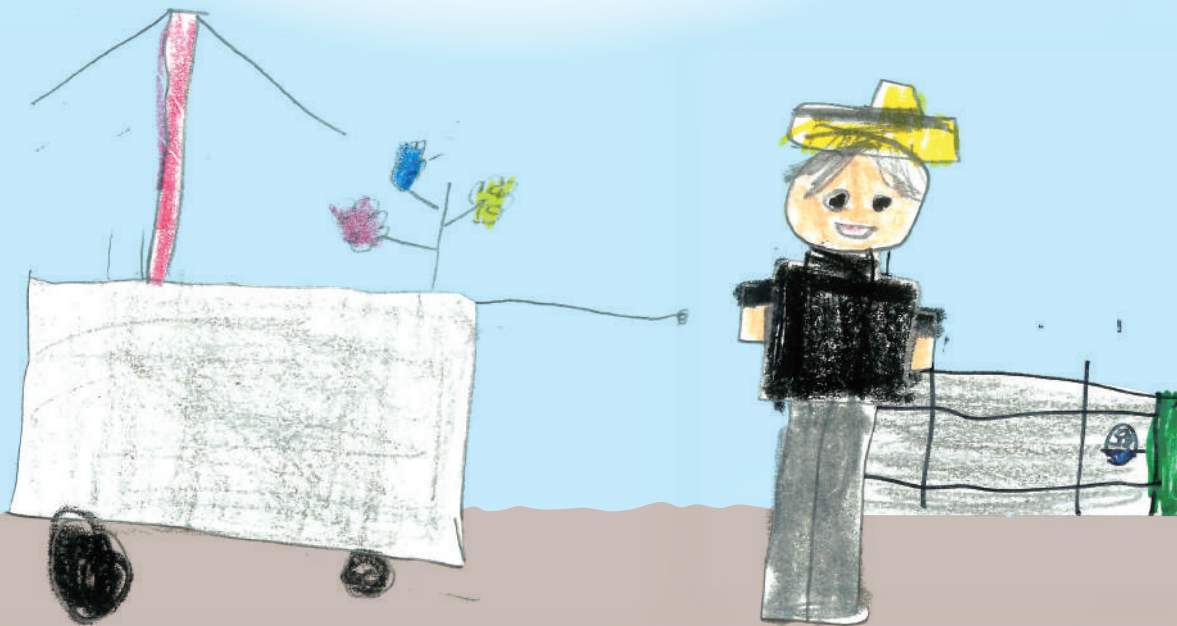
먹어보면 알게 될 거야.

할아버지는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승우는 알겠다고 말하며 솜사탕을 먹으며 집으로 왔다.
특별하게 다른 맛은 느껴지지 않았다.

승우는 다음 날 학교 가기가 싫었지만,
밥을 먹고 가방을 댔다.

그러자 엄마가 오늘은 토요일이라고 하셨다.



승우는 신나하며 친구랑 놀고 오겠다며
루리에게 전화를 했다.

루리야, 나랑 놀자.

승우와 루리는 학교 앞에서 만나기로 했다.



승우는 루리와 만났다.
그런데 루리가 기분이 안 좋아 보였다.
승우는 걱정 섞인 말투로 물었다.

루리야 무슨 일 있어?

내 고민 좀 들어 줘라.

루리가 말했다.

친구와 싸운 루리의 고민을 들어 주었다.
친구들은 루리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다.
루리의 마음이 조금씩 풀리는 것 같았다.

그때 승우가 말했다.

루리야. 학교 앞에 있는 솜사탕을 먹어봐.
소원이 이루어질 거야.

믿기지는 않았지만, 승우의 말을 믿고 매일 솜사탕을 먹었다.

하지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다음 날 루리는 승우를 찾아가 이야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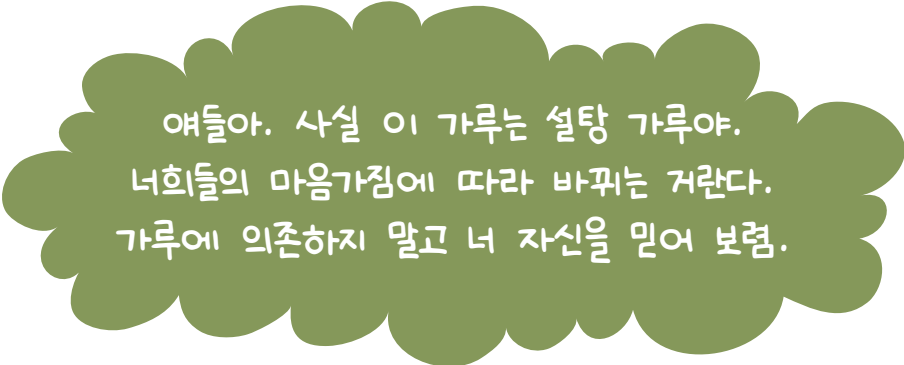
야, 이승우.
네가 말 한대로 솜사탕을 매일 먹었는데.
소원이 안 이루어졌어.

승우는 하루만 더 먹어보라고 말했고,
루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아니
그럼
이렇게



루리는 마지막으로 솜사탕을 사 먹었다.
그러자 할아버지가 말했다.



얘들아. 사실 이 가루는 설탕 가루야.
너희들의 마음가짐에 따라 바뀌는 거란다.
가루에 의존하지 말고 너 자신을 믿어 보렴.

그날따라 하늘이 맑아 보였다.
그리고 루리는 내심 친구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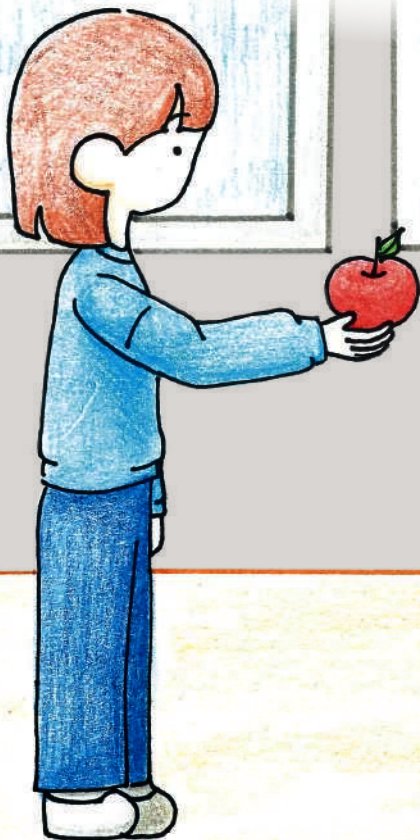


루리는 용기를 내서 친구에게 사과했다.

내가 미안해.

친구도 말했다.

나도 미안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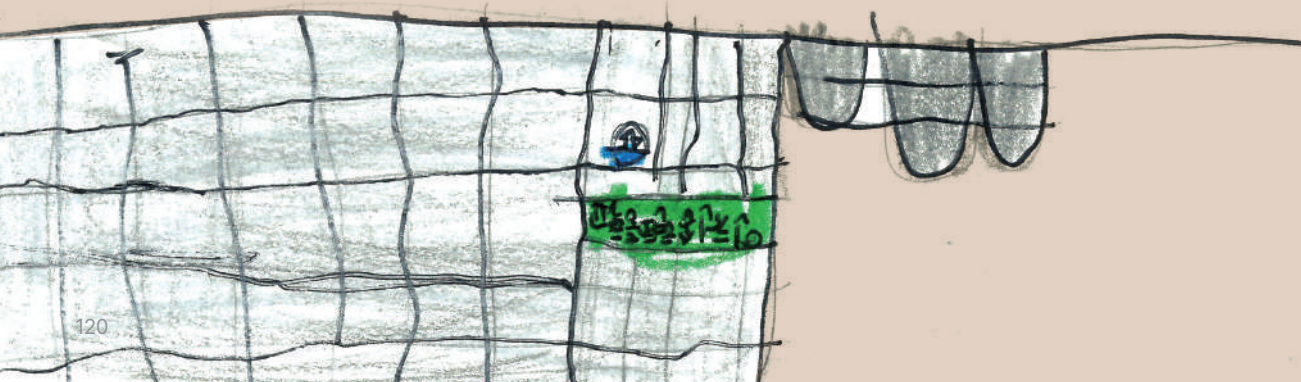


루리는 솜사탕 할아버지께 이 소식을 알리려고
목요일을 기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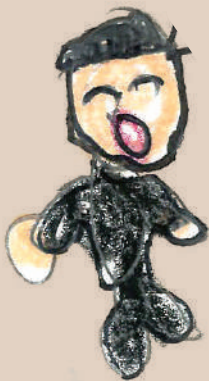
이상하게 기다리고 있으니,
시간이 더 느리게 가는 것 같았다.

그리고 다음 주 목요일이 되었다.

그런데 할아버지가 허리를 잘 펴지 못하셨다.
눈도 잘 뜨지 못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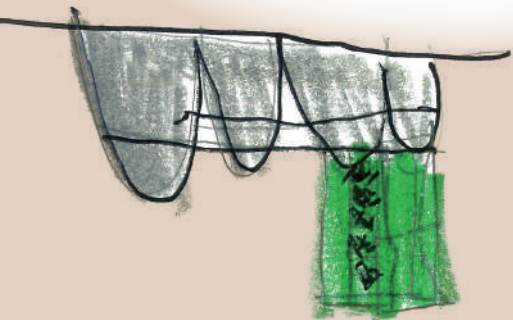
루리가 말했다.



할아버지 왜 그러세요.

나도 이제 나이가 들어 힘들어.

할아버지는 더는 솜사탕을 팔러 안 나오셨다.



11월 어느 날,
학교 앞에 다시 솜사탕 리어카가 나타났다.





이번에는 할아버지가 아닌 젊은 청년이었다.
솜사탕 기계는 다시 신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6학년 2반



01. 문이 사라졌다



02. 작은 용기로 깊어진 우정



03. 마지막 일기장

04. 전지적 하루 시점



05. 나 혼자만 편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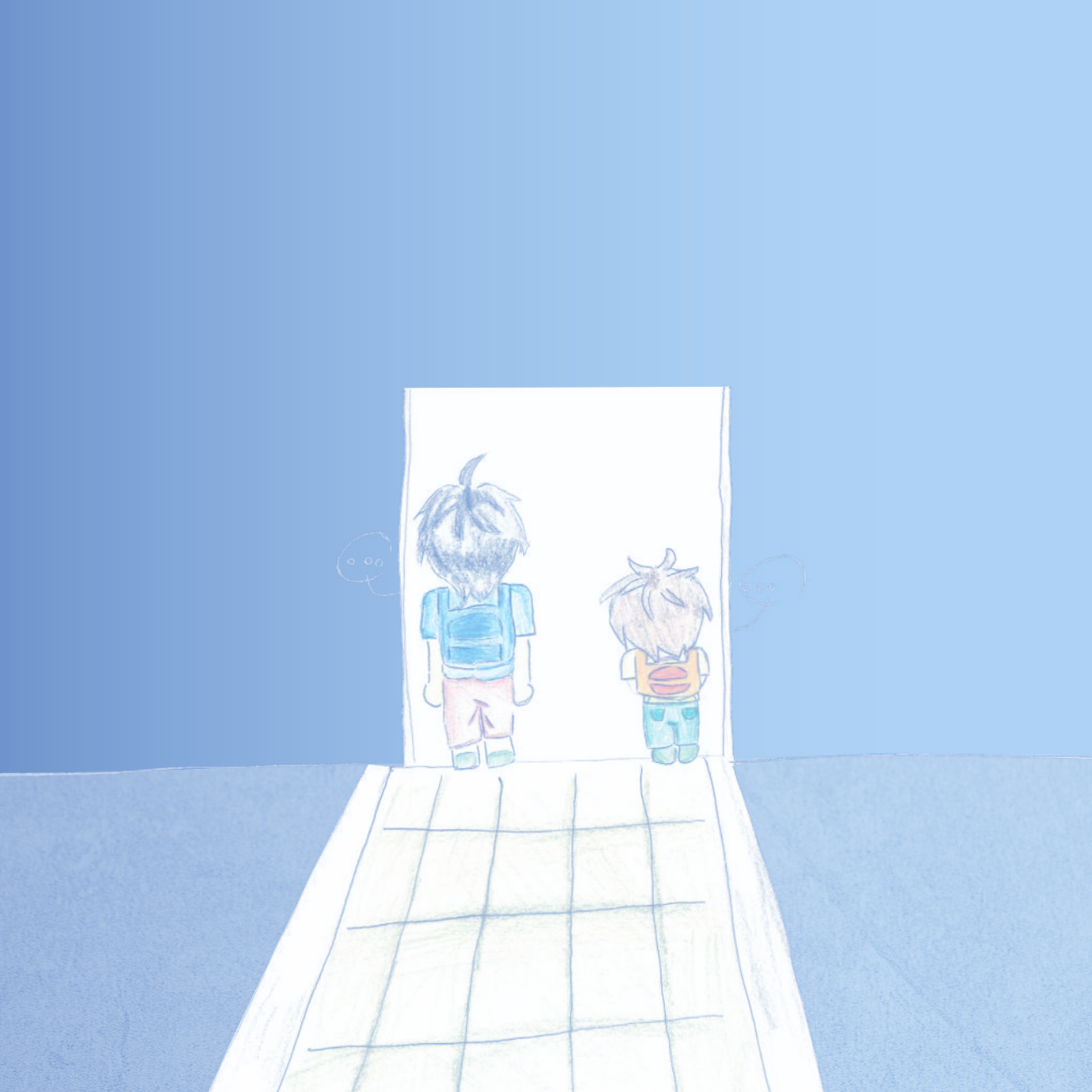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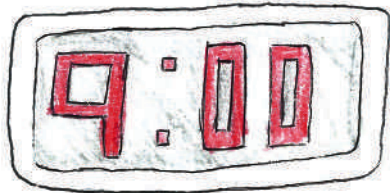
06. 최고의 파트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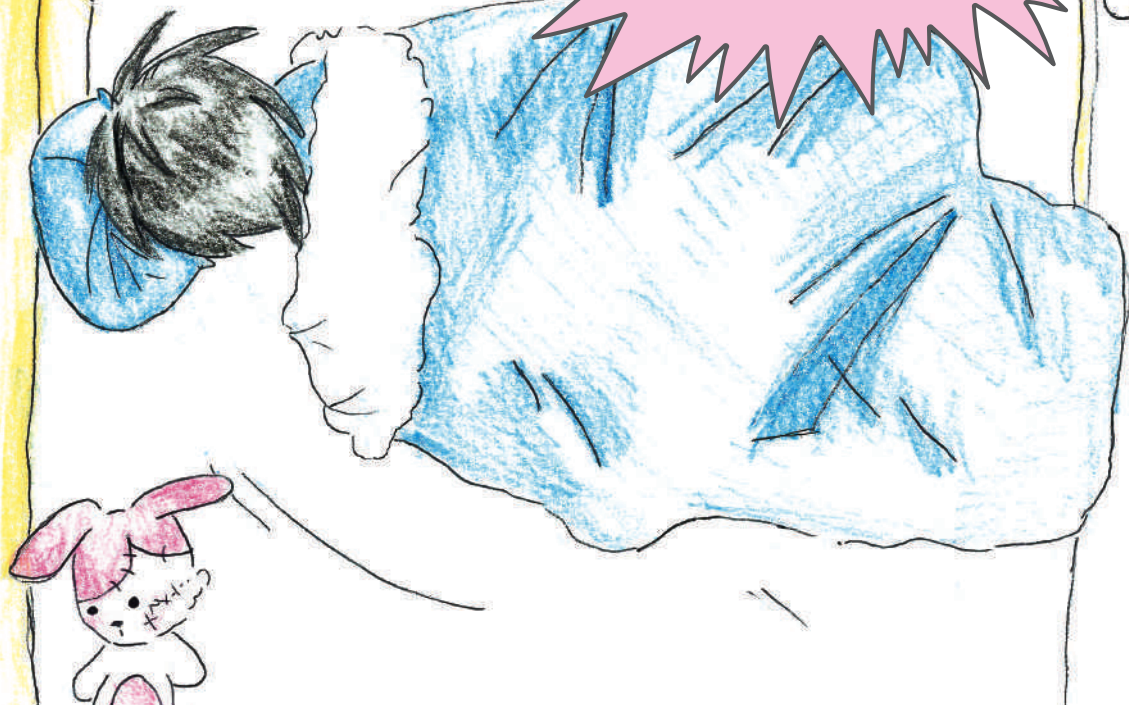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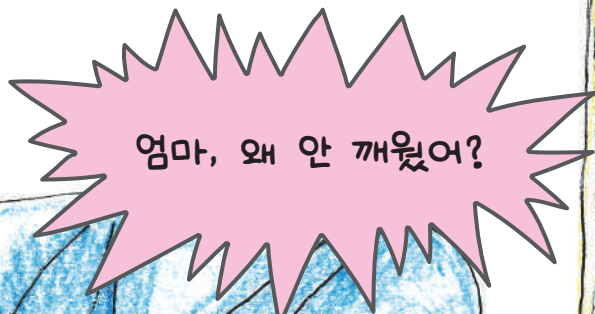
01 “문이 사라졌다”

박태진 서채원 유승호 허주나





평범한 아침이었다.
일어나 시간을 보니 9시였다.
지각이다.



급하게 안방 문을 열고 들어가니
엄마는 없고 동생만 있다.

엄마, 어디 가셨어?

동생에게 물으니,

방금 일어났는지 아무것도 모르는 눈치였다.

누나, 지금 몇 시야?



나와 동생은 허겁지겁 준비하고
가방을 메고 나왔다.

어라? 현관문이 사라졌다.
뒤를 돌아보니 창문도 사라졌다.



엄마는 어디 간 거지?
나와 지호는 어떻게 되는 거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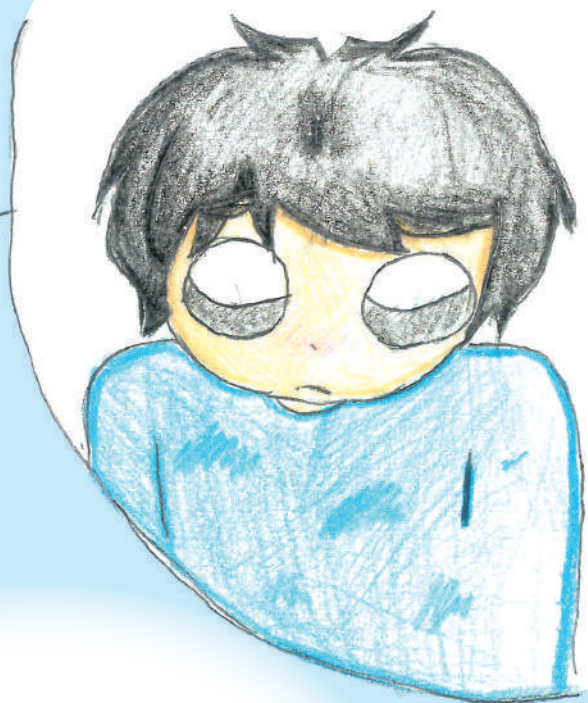


갑자기 벌어진 상황에 어안이 빙빙했다.
나와 동생을 어찌할 줄 몰라 발발 동동거렸다.

지호와 나는 일단 소파에 앉아 상황을 판단했다.
지금 상황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

핸드폰을 켜보니 먹통이었다.
막막했다.





계속 방법을 찾아보며
막혀있는 집 안만 돌아다녔다.

발만 아프고 기운만 더 빠질 뿐이었다.



누나, 나 배고파.

지호가 배고프다고 해서
냉장고에서 반찬을 꺼냈다.

밥통을 보니 밥이 반 정도 남아 있었다.





지호와 나는 허겁지겁 밥을 먹었다.
급하게 먹으면서도 걱정은 쌓여갔다.



아침에 일어나니 아이들이 사라졌다.
온 집안을 뒤지는데도 보이지 않았다.

내가 일어나기 전에
학교에 간 것일까?



하고 생각했지만,
가방과 신발이 그대로 있었다.

동네에서 놀고 있을지도 몰라,
아이들의 이름을 부르며 돌아다녔다.



지민아! 지호야!

해가 점점 지고 있었다.



혹시, 납치된 건 아닌지 두려웠다.
이제 실종신고를 해야 할 것 같았다.
실종 신고를 하는 내내 손이 덜덜 떨렸다.

며칠 뒤,
평소와 똑같이 밥을 먹고 있는데,
방에서 강아지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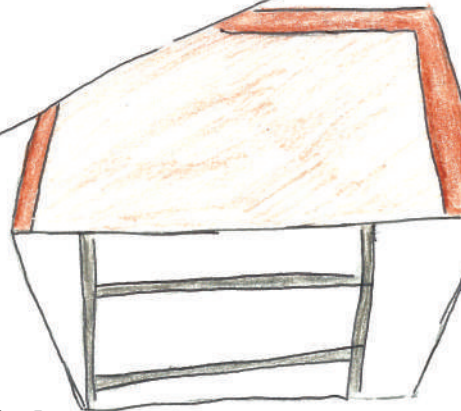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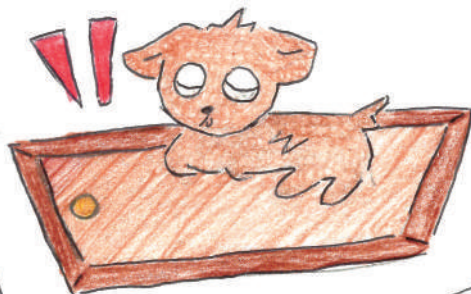


방에 들어가 방을 뒤지니
이불 안에 새끼 강아지 한 마리가 있었다.

이 강아지는 어디서 온 걸까?

지호가 물었다.

새끼 강아지가 계속 짖길래,
나와 지호가 좋아서 그런 줄 알았는데
침대 밑을 보고 계속 짖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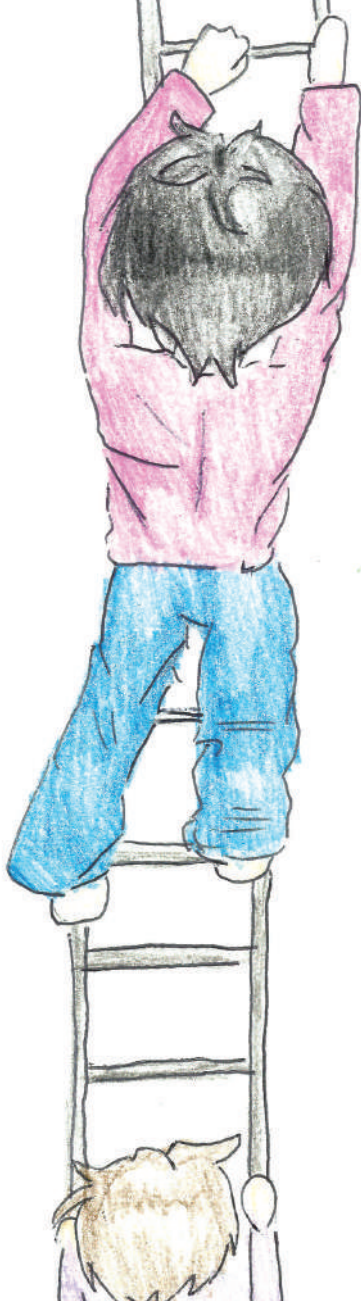


왜 거기 뭐가 있어? 하며

침대 밑을 들여다보니 작은 문이 있었다.

우리는 문을 열었다.

문을 여니 사다리가 있었다.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 보니 안방이었다.



엄마!

지호가 울먹거렸다.

지민아, 지호야!



엄마와 우리는 껴안고 눈물을 흘렸다.
다행이다.

우리는 엄마가 해주는 맛있는 밥을 먹고
친구들과 놀고 평소처럼 보냈다.



새끼 강아지가 어디서 왔는지 어떻게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전보다 더 행복하고 화목한 가족이 되었다.

02 “작은 용기로 깊어진 우정”

김태건 김태은 남택연 이연서



초등학교 때 이연서와 김태은은 친구였다.
하지만 연서는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게 되었다.

1년 후 송현 중학교에 입학한 연서는
태은이를 만나게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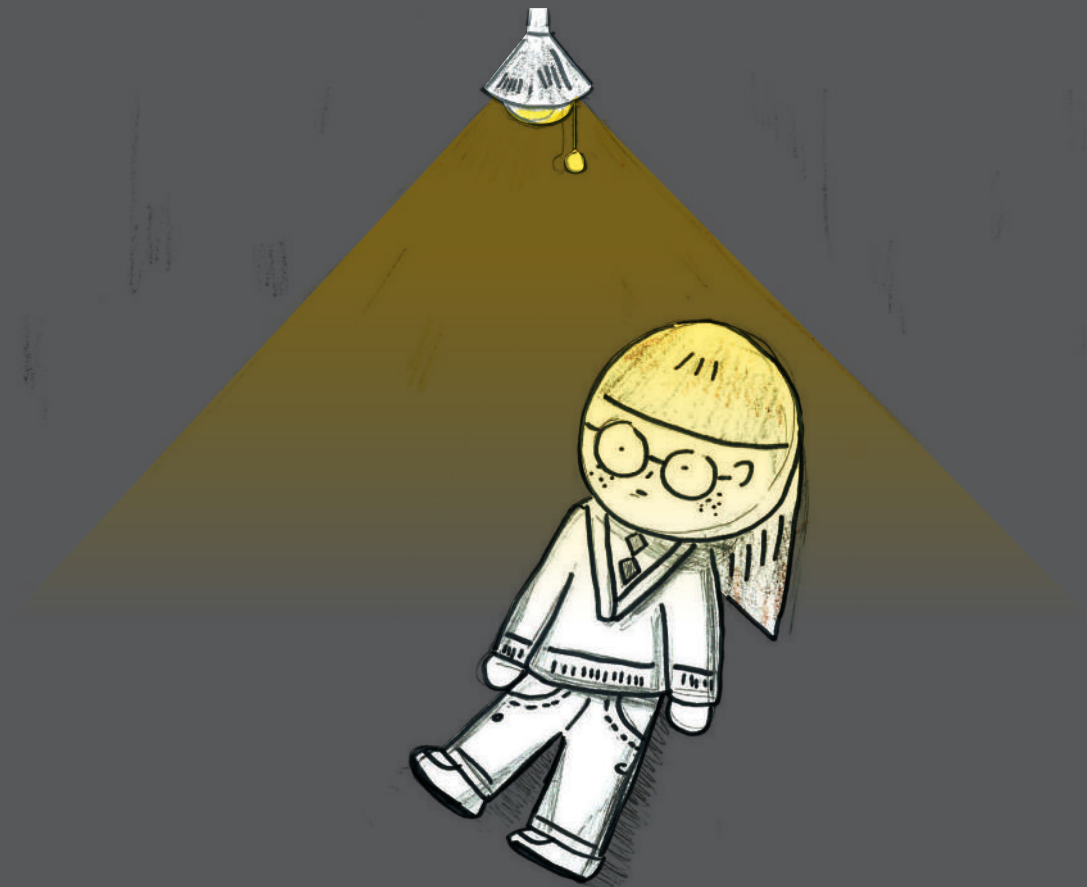
전교 1등 태은이는 공부를 잘했다.
연서는 질투가 났다.

질투가 난 연서는 태은이를 괴롭히기 시작했다.
연서는 공부를 못했기 때문이다.

태은이는 학교폭력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태건이는 태은이가 학교폭력을 당하는 것을 알았지만 무시했다.


얼마나 심했는지 우울증이 최고 단계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무도 태은이의 상황을 알아주지 않았다.

오히려 연서에게 잘 보이려고 억지로 태은이를 더 괴롭혔다.
태은이는 가끔 극단적인 생각이 들 정도로 힘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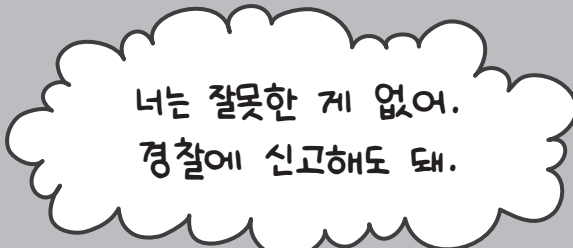
그리고 학교에 오는 게 두려웠다.
학교에 다니기 싫었다.





반 친구들은 폭력을 알고 있었지만
연서에게 보복당할까 두려워 말도 못하고 안절부절했다.

그때 택연이라는 친구가 몰래 태은이를 도와주었다.
아이들은 택연이의 용기에 감동하였다.



너는 잘못된 게 없어.
경찰에 신고해도 돼.



그리고 진심으로 태은이 마음을 알아주었다.

하지만 택연이도 실질적으로 태은이를 도울 수 없었다.
왜냐면 연서가 자신도 괴롭힐 거 같아서다.

그런데 연서가 태은이에게 사과하는 계기가 생겼다.

태은이가 집으로 가다가
연서가 어떤 아저씨에게 돈을 뺏기는 것을 보았다.

그 아저씨는 덩치가 크고 팔에 문신도 있었다.
태은이는 그 아저씨를 보고 겁이 났다.





그래서 태은이는 그동안 자신을 괴롭힌 연서를
모른 척해야겠다고 생각했지만, 연서가 불쌍했다.
연서가 눈물을 흘리며 울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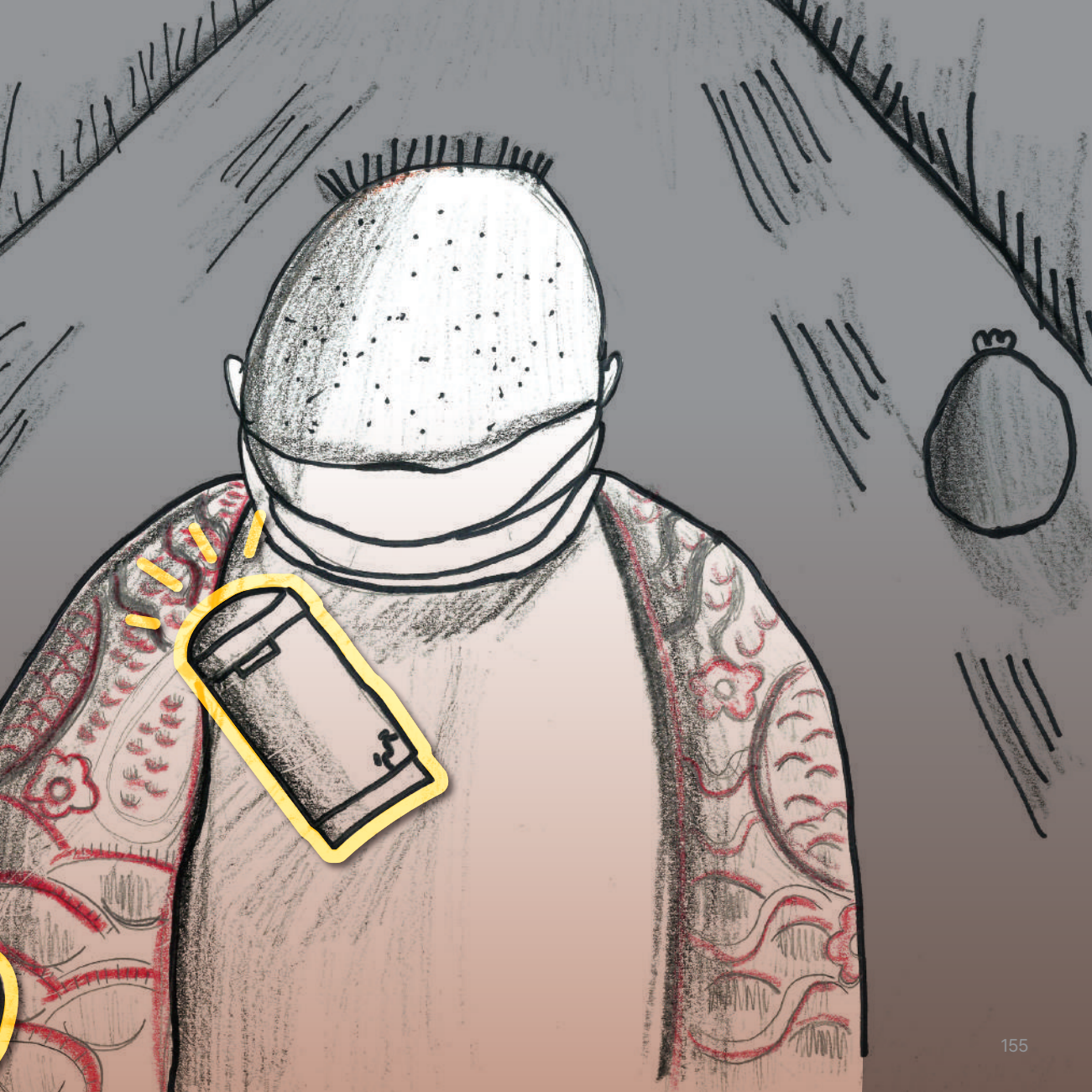
그래서 태은이는 연서를 도와주기로 했다.

태은이는 아저씨에게 돌을 던지려 했으나
피가 날 수 있으니 보온병을 던지기로 했다.

이 보온병은 연서가 태은이를 괴롭힐 때
던져서 찢그러졌던 그 보온병이다.
그때가 떠 오르는 순간 속상했다.

태은이는 아저씨가 무서웠지만, 보온병을 꺼냈다.
그 보온병에는 물이 꽉 차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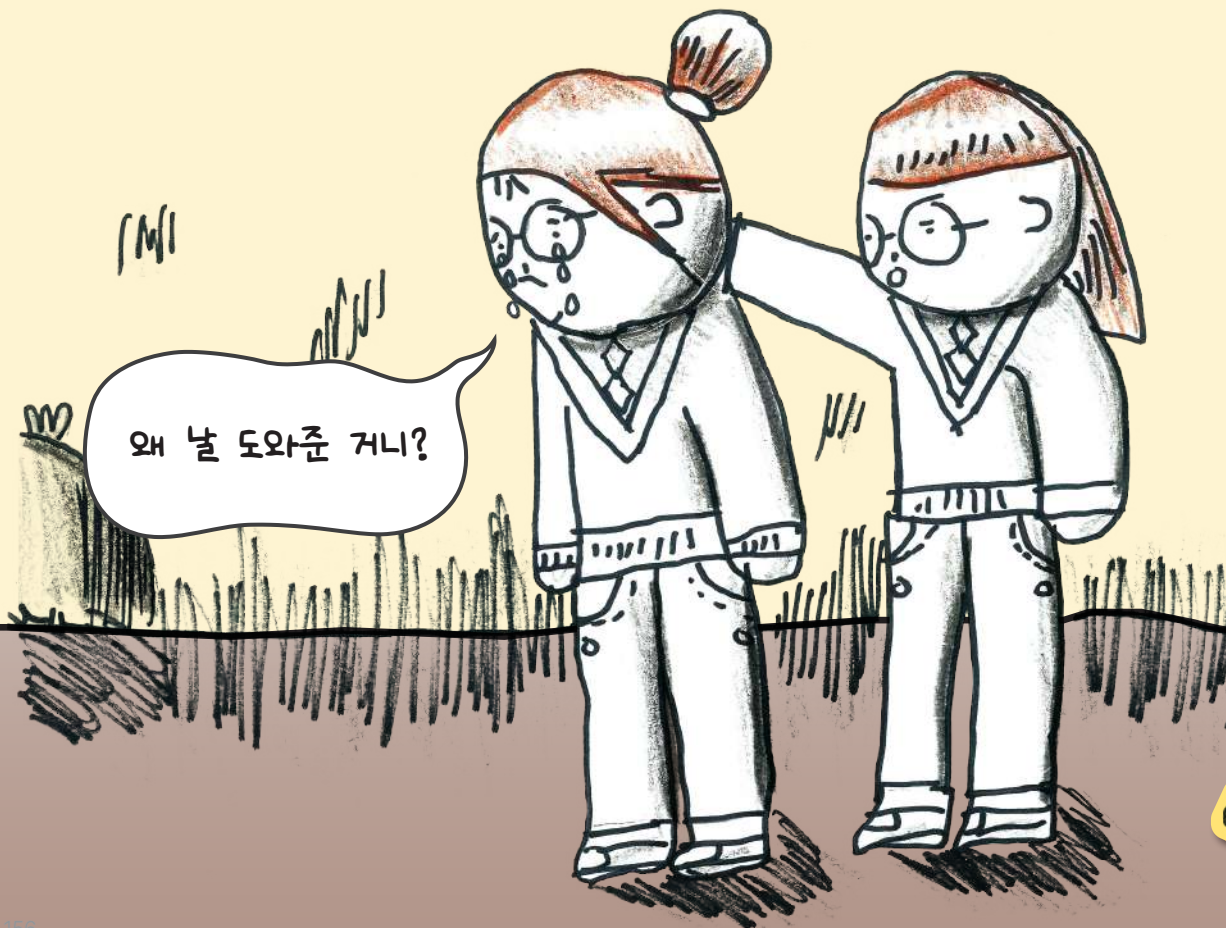




태은이는 보온병을 들고 아저씨의 뒤통수에 던졌다.

그러자 보온병을 맞고 놀란 아저씨는 몹시 아파하며 반대쪽으로 도망갔다.

연서는 태은이를 보며 놀라며 물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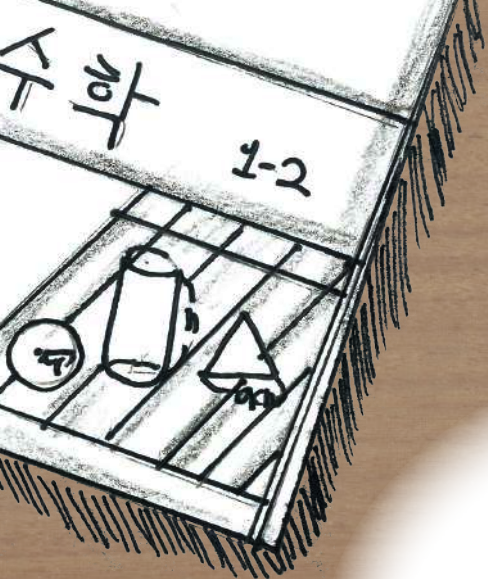


난 위험에 처한 친구는
도와주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태은이가 가방을 챙기며 말했다.

연서는 찢그러진 보온병을 보며
그때가 떠올라 미안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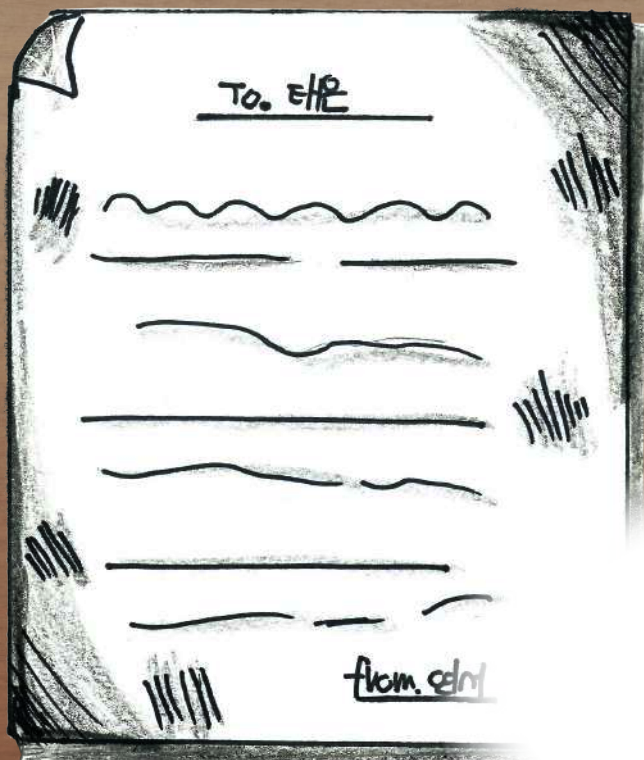




연서는 자신을 도와준 태은이에게
고맙고 미안했다.

연서와 태은이는 말없이 걸었다.
등 뒤로 노을이 지고 있었다.

연서는 태은이를 보며 할 말이 있는 것 같았으나
그냥 집으로 돌아갔다.



연서는 집에 돌아와 태은이에게
어떻게 고맙다는 말을 할까 고민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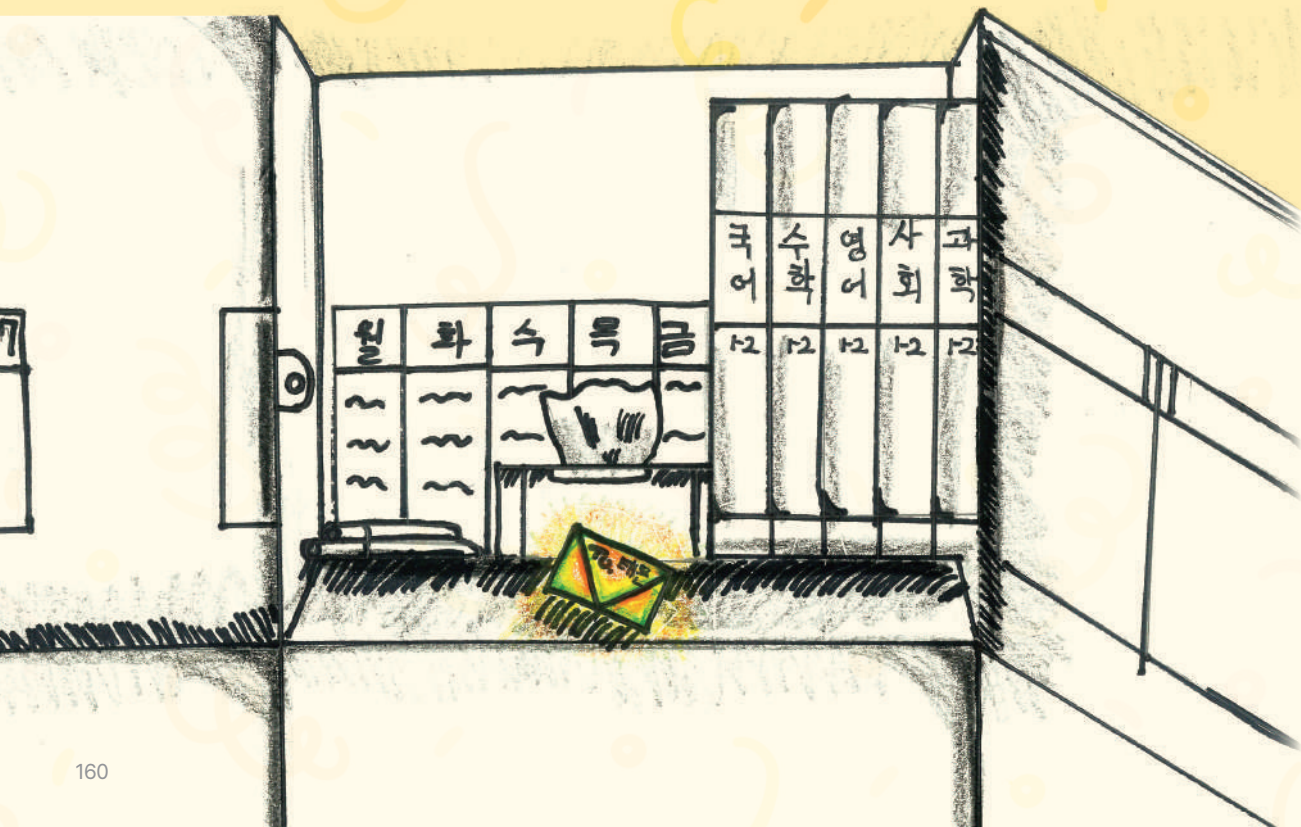
고민하던 연서는 숙제를 뒤로하고
태은이에게 장문의 편지를 썼다.
그리고 잠이 들었다.



다음날, 연서는 교실에 들어와서 태은이 사물함에
초콜릿과 편지를 넣었다.

그 초콜릿은 연서가 직접 만든 것이다.

태은이는 교과서를 꺼내려고 사물함을 열었는데
연서가 쓴 편지와 초콜릿이 눈에 띄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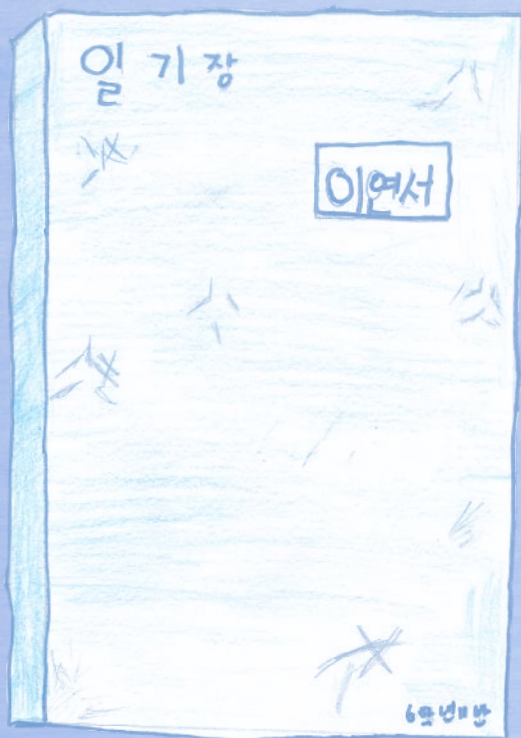
편지에는 그동안 괴롭혀서 미안하고
앞으로 잘 지내자고 쓰여 있었다.

편지는 여러 번 쓰고 지운 듯 얼룩이 있었다.

태은이는 연서에게 다가가 앞으로 잘 지내자고 말했다.
그렇게 연서와 태은이는 다시 둘도 없는 친구가 되었고,
반 친구들 모두 잘 지내게 되었다.

03 “마지막 일기장”

김다빈 오민준 전서준 조윤솔 한수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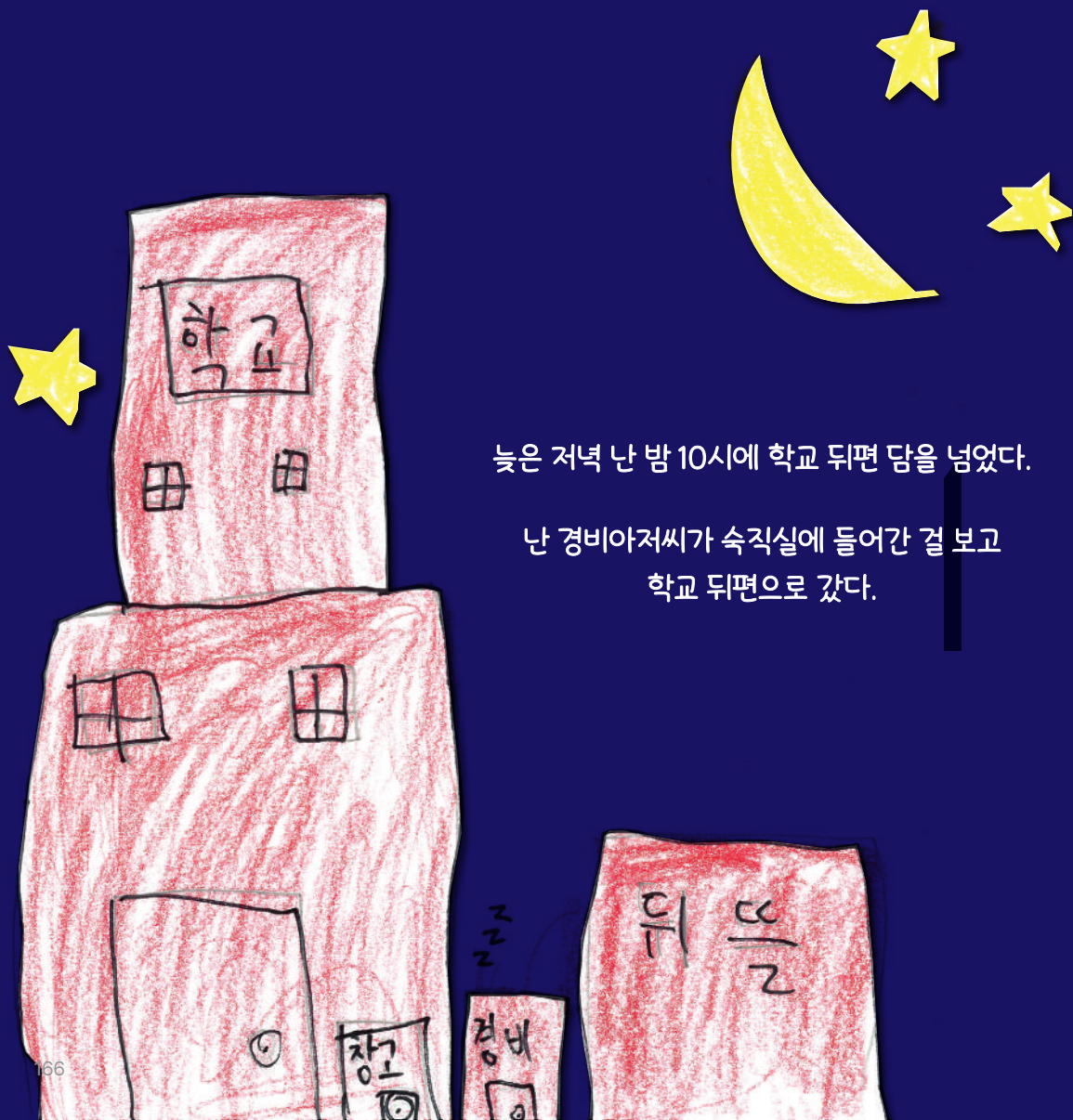
내가 얼마 전 있었던 일을 풀어 보려고 한다.

얼마 전, 운동장을 돌다가
학교 뒤편 화단 쪽으로 발걸음을 돌린 순간,

식물을 돌보던 경비아저씨가 나를 보고
돌아가라고 호통을 치셨다.

아마 화단을 망칠까 봐 그러셨던 것 같다.





늦은 저녁 난 밤 10시에 학교 뒤편 담을 넘었다.

난 경비아저씨가 숙직실에 들어간 걸 보고
학교 뒤편으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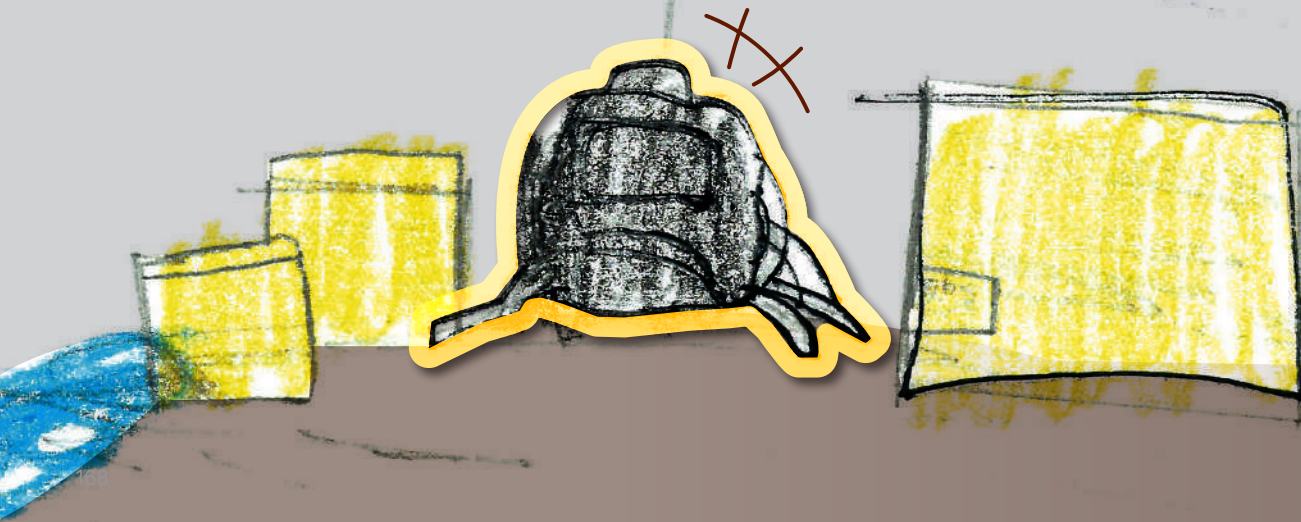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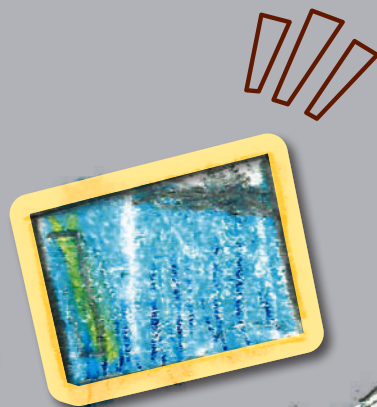
뒤편으로 가보니 창고가 있었다.
나는 너무 궁금해 창고를 열었다.

창고 안에는 낡은 가방 하나가 덩그러니 있었다.

나는 웬지 그 가방을 들고나와야 할 것 같아서 들고 나왔다.

가방을 들고나오는데
가방 안에서 무언가 구르는 소리가 났다.





집엔 온 뒤 가져온 가방을 열어봤다.
그 가방 안에는 낡은 책 한 권이 들어 있었다.

나는 그 가방과 책의 주인을 찾아가야겠다고 생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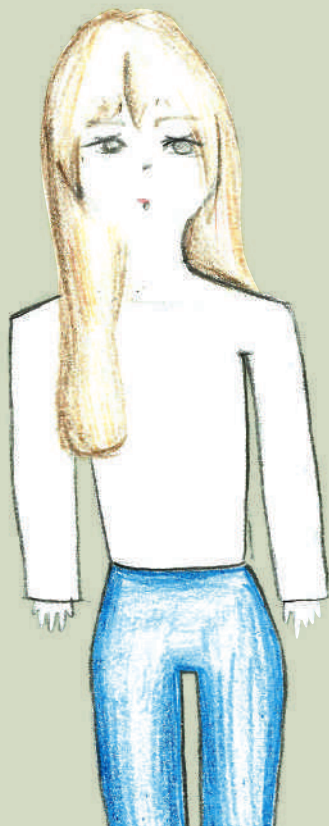
그 뒤 난 애들 몰래 수소문하고 다녔다.
선생님에게 물어봤지만, 모른다고 하셨다.

포기하고 싶던 그때 경비아저씨가 보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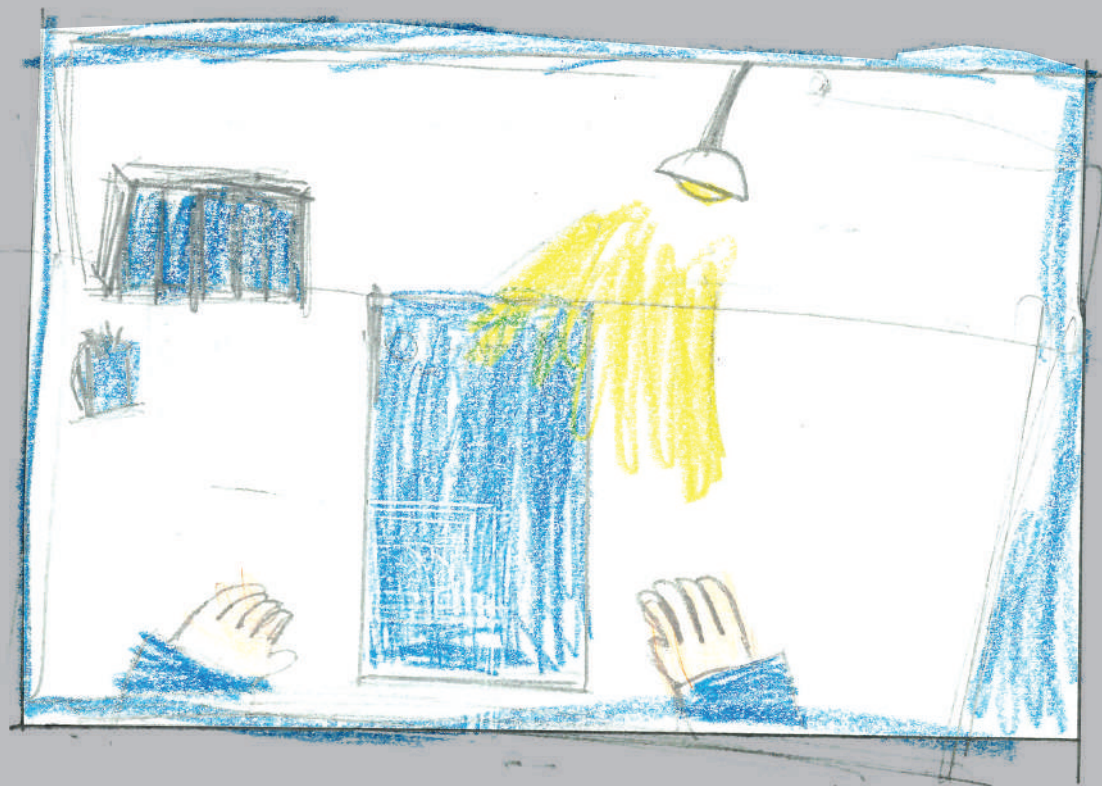
아저씨 혹시 이 가방과 책을 본 적이 있나요?

글쎄. 잘 보봐
어디 이름이나 힌트가 있진 않을까.

나는 혼란스러웠다.




나는 집에 와서 그 책을 열어봤다.
그것은 일기장이었다.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2008 년 12 월 24 일 날씨 

내 이름은 이연서.

2008년 12월 24일.

오늘 일기를 써 볼까 한다.

나의 처음 일기장이니 잘 써보아야겠다.

나는 인천송현초등학교 6학년 11반이다.

오늘도 애들에게 괴롭힘을 당했다.

나는 사는 게 싫다. 6학년 얼른 끝나면 좋겠다.

이제 그 애들에게 벗어나고 싶다.

그 애들은 내가 무너지고

슬퍼지는 모습을 보고 즐기는 것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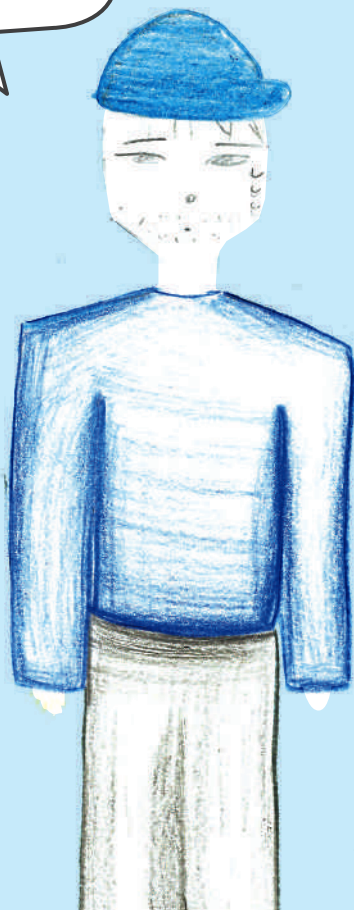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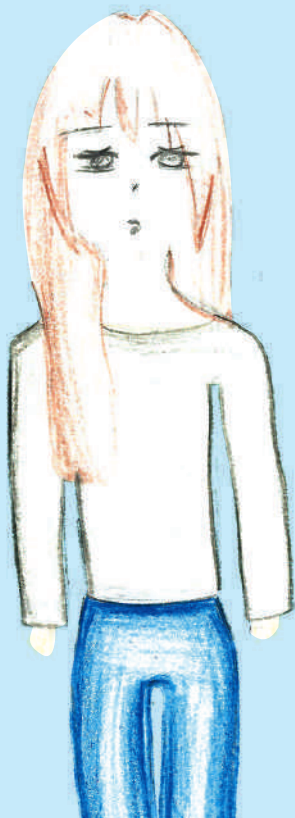
그 뒤로 비가 왔는지 지워져 있었다.

경비아저씨에게 물어보고 싶었다.
아저씨는 30년 이상 일하셨다고 했다.

다음날 경비아저씨를 찾아갔다.

아저씨 혹시 2008년도에 6학년 이연서 아세요?

어 알긴 하는데....
그 학생 학교폭력을 당하던 학생이야.
졸업하기 몇 주 전에 전학을 갔지.



난 바로 찾아야겠다고 생각했다.

운 좋게 오늘 총동문회다.

난 교장 선생님께 허락을 받고

무대에 오를 수 있었다.

여기 혹시 이연서씨 계세요?



그러자 손을 든 한 여성이 있었다.
나는 무대 위로 올라오라고 말했다.

제가 창고에서 낡은 가방과 일기장을 찾았어요.
이걸 보고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정말 안타깝다. 너무 힘들었을 것 같다고 생각했어요.

이연서씨가 말했다.

고마워요. 절 걱정해주어서.
하지만 지금은 괜찮아요.
다 잊고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요.

이렇게 끝이 났다.

이걸 일기로 쓰지 않을 것이다.
정말 아쉽겠지만,
이 이야기는 추억으로 남기기로 했다.

이렇게 나의 모험은 끝이 났다.



04 “전지적 하루 시점”

김도윤 김지유 김효린 이예은 이유림



나는 오늘 전학을 왔다.

안녕 나는 성하루라고 해.
잘 지내보자

선생님께서 채민이라는 여자아이
옆에 앉으라고 하셨다.

그렇게 채민이라는 아이와 이야기하다 보니
우린 금방 친해졌다.



그래.

오늘 우리 동네 소개시켜 줄게!



우리는 학교가 끝나고 수문통 거리로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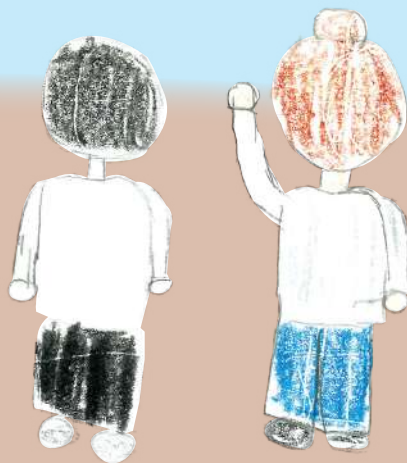


수문통은 옛날에 바다였대.
수문통과 동인천이 모두 바다였다는 거야.

채민이는 나에게 수문통의 예전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여기는 유명한 수문통 찜뽕집이야.
다음에 같이 먹으러 가자!



저기는 뭐 하는 곳이지?
채민아 저기 가보자.



어? 나도 처음 보는데…?


문을 열자 주변이 흑백으로 변하고 있었다.
문이 푸른색으로 빛나고 있었다.

채민아 우리 들어가 볼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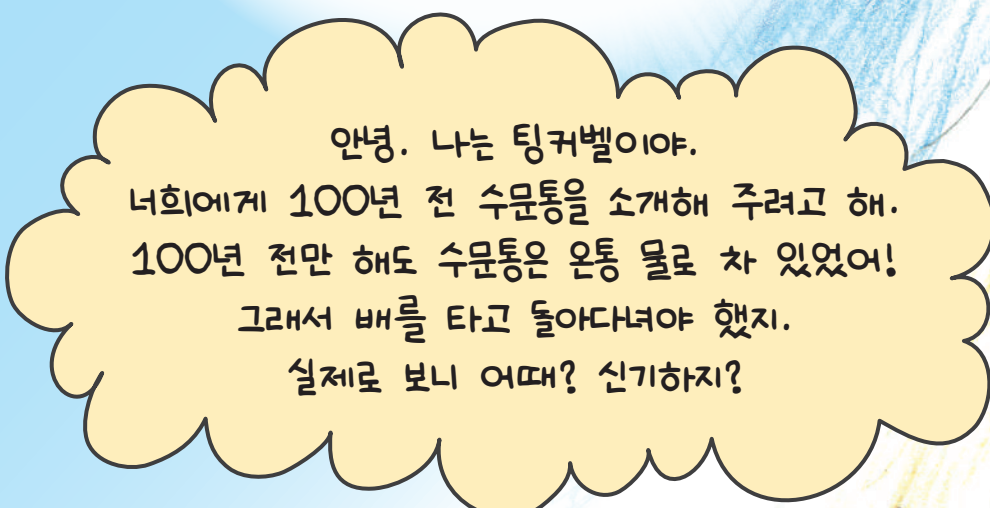


나는 조금 무서운데....







나와 채민이는 문으로 들어갔다.
들어가 보니 녹색의 작은 요정이
우리에게 손을 흔들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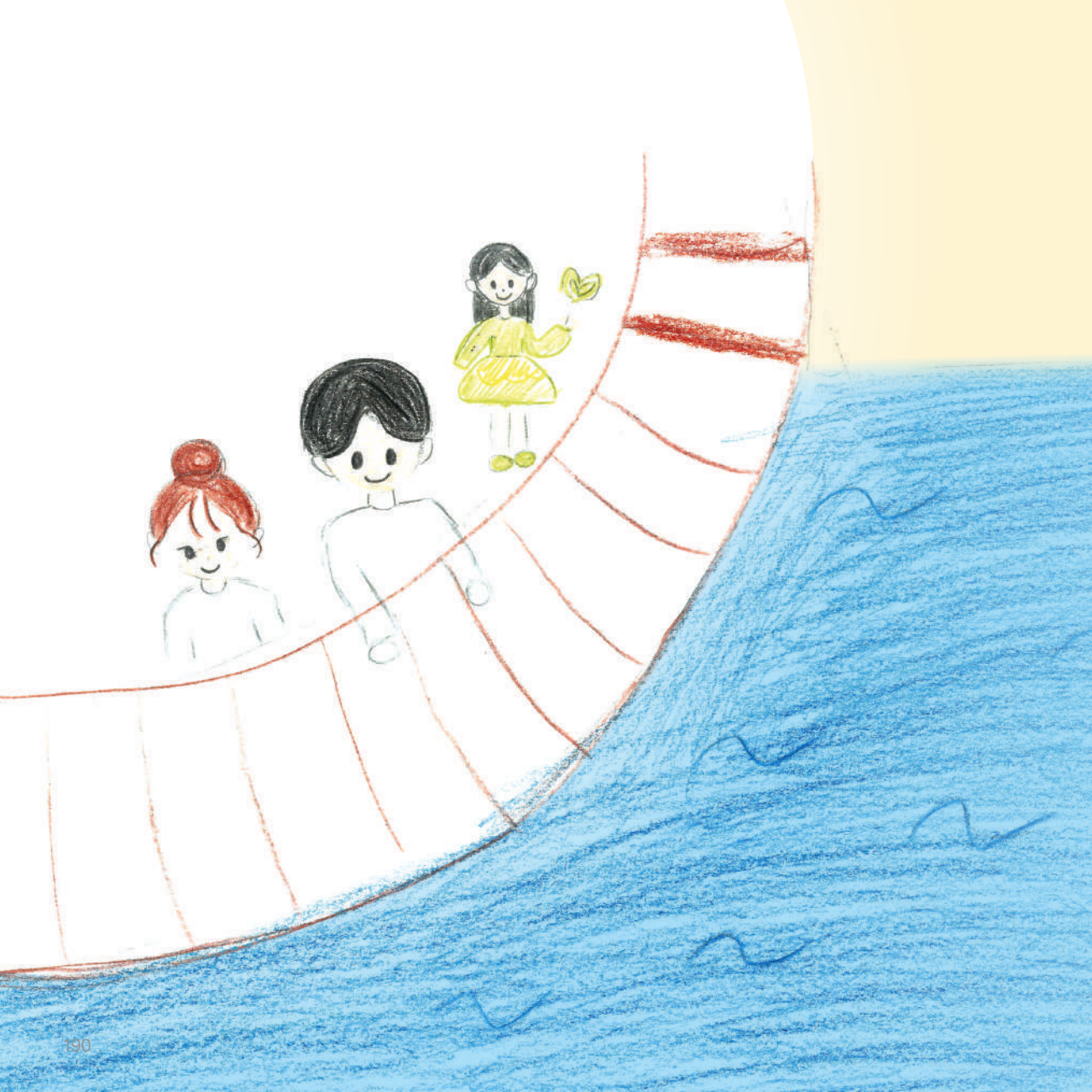
안녕. 나는 텅커벨이야.
너희에게 100년 전 수문통을 소개해 주려고 해.
100년 전만 해도 수문통은 온통 물로 차 있었어!
그래서 배를 타고 돌아다녀야 했지.
실제로 보니 어때? 신기하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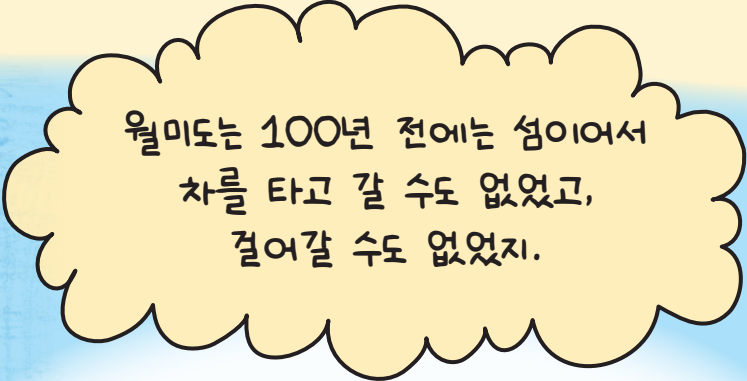




나는 월미도도 가보고 싶어.

요정은 손가락을 튕겼다.
그러자 우리는 월미도로 와 있었다.





월미도는 100년 전에는 섬이어서
차를 타고 갈 수도 없었고,
걸어갈 수도 없었지.

바다는 갈매기가 날아다니며 끼룩거리는 소리,
파도치는 소리, 배가 들어오는 소리로 가득 찼다.
날씨가 좋아서 그런지 바다의 운슬이 예쁘게 보였다.

우리는 배가 너무 고팠다.

그래서 근처에 있는 식당으로 들어갔다.

그곳은 한식집이었다.

맛있는 냄새가 가득했다.

우리는 비빔밥과 된장찌개를 시켰다.



내가 한 입을 먹으려는 순간,
누군가가 나를 뒤에서 두드렸다.

채민이었다.

하루야 수업 시작했어.





분명 나는 너랑 수문통에 있었는데...

무슨 소리야.
너 꿈꾼 거 아니야?



아이들이 교실에서 뛰어다니고 시끄러웠다.
진짜 꿈이었나보다.

오늘은 수문통에 축제가 있는 날이다.
우리는 저번에 같이 먹으러 가기로 했던
잠뽕집에 가기로 했다.

저녁이 되자 수문통 거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포토존도 많이 있었고, 신나는 노래들도 흘러나왔다.

저녁이라 그런지 조명도 더 이쁘게 보였다.





우리 동네는 화도진 축제, 수문통 축제 등
여러 가지 축제가 열린다.

우리는 맛있는 것들도 많이 먹고,
사진도 많이 찍고 재미있는 하루를 보냈다.

채민이와 나는 다음에도 같이 오기로 했다.

05 “나 혼자만 편식,,

김윤아 백승현 신하은 이유겸





인천송현초등학교에는 소문이 있다.

한 달 동안 급식실에서는 반찬을 남기지 않고
모두 먹으면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6학년 4반 정열이는
친구에게 그 이야기를 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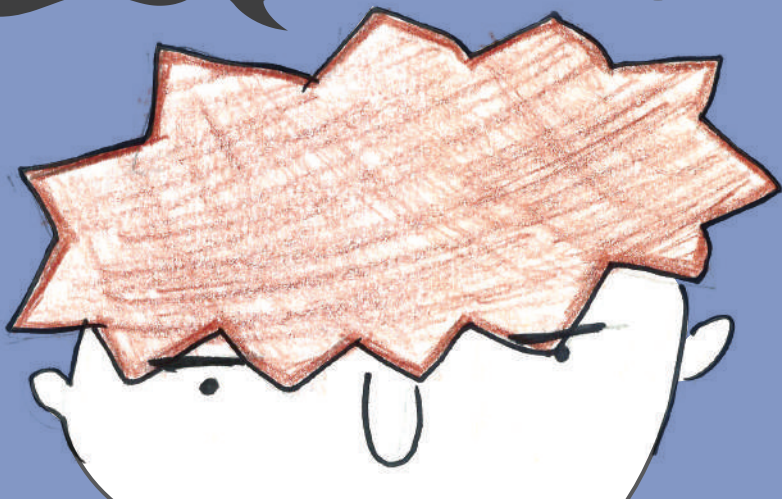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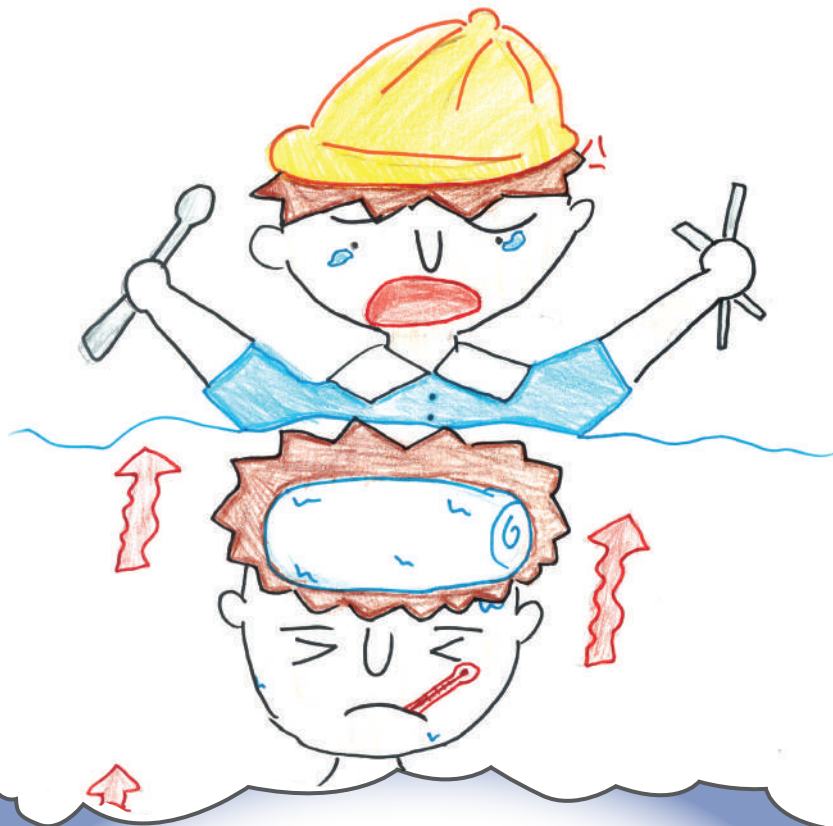
정열이는 요즘 편식 때문에 많이 혼나서
편식하지 않게 해달라고 소원을 빌고 싶었다.

이 소문을 알게 된 정열이는
믿음 반 의심 반 내일부터 반찬을 다 먹기로 했다.
지금부터 긴 여정이 시작된다.

하지만 정열이는 한편으로 걱정이 되었다.

편식 때문에 실패하면 어떡하지?





정열이는 유치원 때부터 편식이 심했다.
김치, 미역국 등 평범한 음식들도 잘 먹지 않았다.

그래서 그런지 정열이는 감기에도 잘 걸렸다.
면역력이 낮은 탓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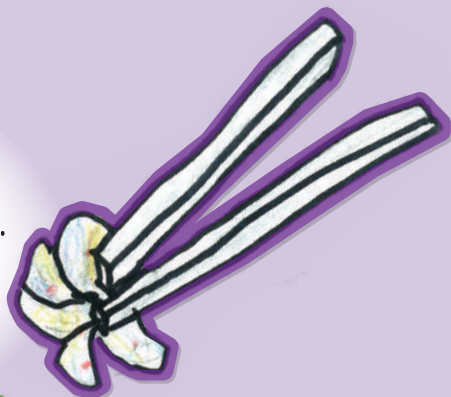


다음 날 정열이는 첫 번째 난관에 부딪혔다.
그것은 바로 가지무침이었다.

다른 아이들은 가지무침을 보고 토를 하는 시늉을 하였다.
정열이는 자리에 앉아서 가지무침을 유심히 관찰했다.

젓가락으로 가지 한 조각을 들어 올렸다.
흐물한 식감, 미끌거리는 양념, 그야말로 끔찍했다.

정열이는 심호흡하고 가지무침을 입에 넣었다.



음~ 괜찮네?

뭐야, 쉽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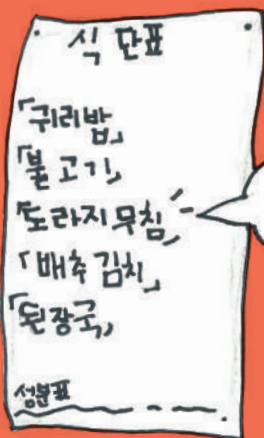
입에 넣어보니, 야들야들한 식감,
짹짹한 맛 생각보다 맛있었다.

그렇게 첫 난관을 무사히 지나갔다.

시간이 지나고 오징어무침이 나왔다.
신이 난 정열이는 오징어를 입에 넣었다.

어...?

정열이는 당황한 채 맛을 느꼈다.
쫄쫄한 향, 오징어에선 나올 수 없는 식감이다.
정열이는 메뉴판을 유심히 보았다.



「도라지 무침」

☆ <도라지무침>



정열이는 배고 싶었지만 참았다.

아삭거리는 식감, 감칠맛 도는 매콤한 양념,
맛있는 건 아니지만 못 먹을 정도는 아니다.

정열이는 오늘도 성공했다.



며칠 뒤, 탕수육이 나와 기분이 좋아진 정열이는
탕수육을 그릇 가득 받았다.

들뜬 마음으로 탕수육을 한입 베어 물었는데,
정열이의 눈이 흔들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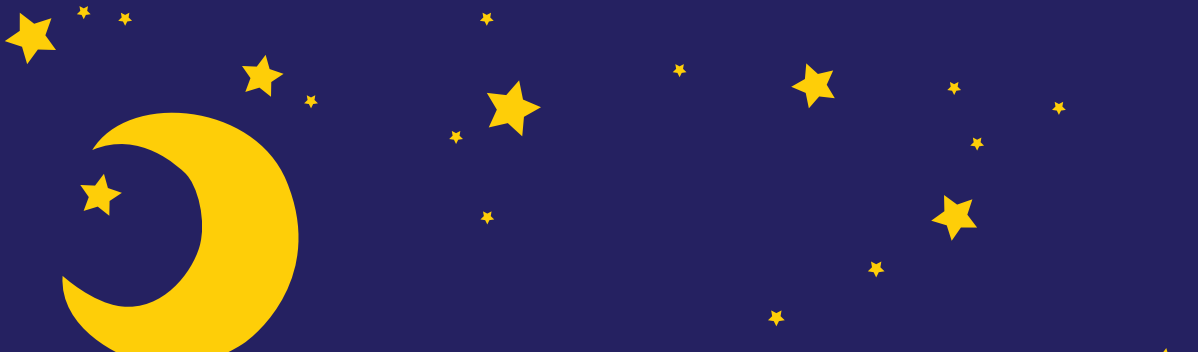
바삭한 식감 사이로
흘러나오는 흐물흐물한 식감,

고기가 아니었다, 버섯이었다.
정열이의 눈이 흔들렸다.

그때, 옆 칸에 탕수육 소스가 보였다.

정열이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탕수육을 소스에 폭 담근 뒤 입에 밀어 넣었다.

그런데 바삭한 튀김과 달달한 소스,
흐물한 듯 쫄깃한 식감이 먹을만 했다.



그날 밤, 정열이는 침대에 누워 생각해 봤다.
소원으로 무엇을 빌지 고민했다.

역시 편식을 하지 않게 해달라고 비는 게 좋겠다.

정열이는 김치국을 잔뜩 마셨다.

내가 가지무침, 도라지무침, 버섯탕수육도 먹었는데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야!



드디어 시간이 지나 오늘이 30일째 되는 날이다.
정열이는 복잡한 마음으로 급식실에 들어가 메뉴판을 살핀다.

흰쌀밥, 배추김치, 두릅...
두릅? 두릅무침?

정열이는 떨리는 손으로 급식을 받았다.

많이 먹어라~

정열이는 자리에 앉았다.



식판 위에 놓인 두름 세 줄을 바라보며
하나를 집어서 입에 넣었다.

질기고, 쓰고 한약 맛이 난다.



그날 밤 정열이는 속상한 마음에 잠을 뒤척였다.

다음 날 엄마와 아침을 먹다가,
엄마가 정열이를 보고 놀라며 물으셨다.

어머, 정열아 편식을 안 하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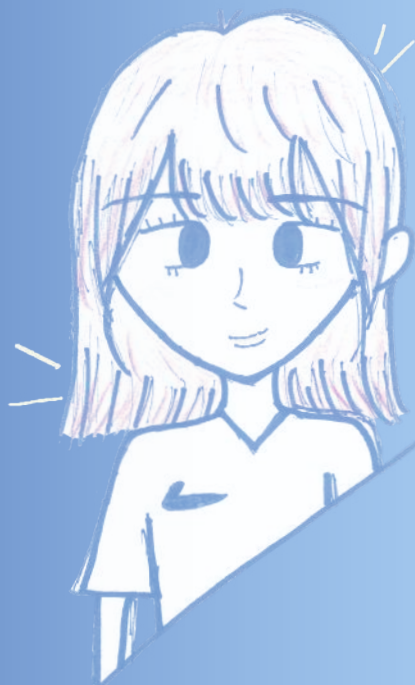
어, 정말이네.
내 소원이 이루어졌나 봐!



정열이는 자기도 모르게 나물, 김치 등
반찬을 골고루 먹고 있었다.

06 “최고의 파트너”

김지호 박선미 이하람 장연재 최라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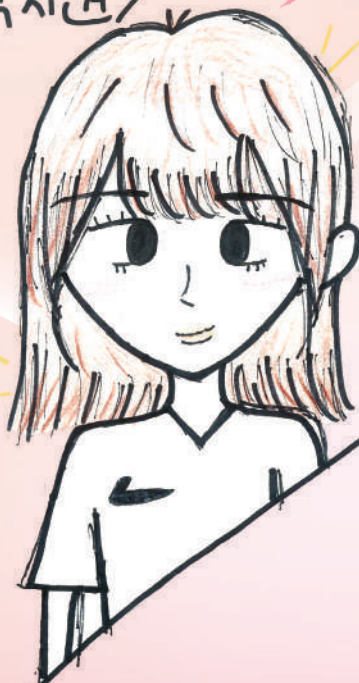
지원이는 단원초 6학년 1반이다.

지원이는 2반에 이민우를
4년째 짝사랑 중이다.

민우는 인기가 많았다.

강아지상에 웃는 게 매력적이고
공부도 잘하고 운동도 잘한다.

<박지원>



4년째
짝사랑중



<이민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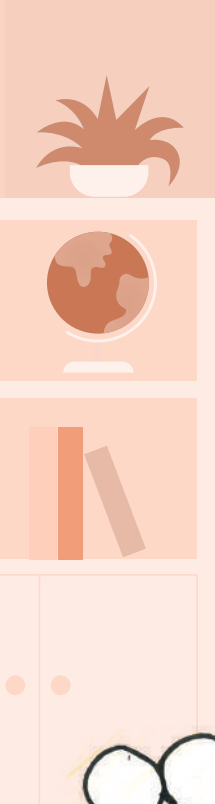


민우는 인싸다.
지원이는 그런 민우를 좋아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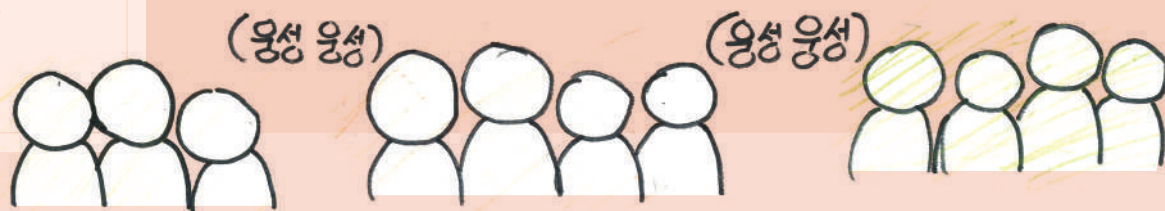
어느 날 한 여자아이가 민우에게 초콜릿을 주며 고백 했다.
그런데 민우가 말했다.

미안한데,
난 운동을 잘하는 사람이 좋아.





그러자 반 아이들이 수군거렸다.
그리고 그 소문은 빠르게 퍼졌다.



지원이도 이 소문을 듣고 당장 태권도 학원에 갔다.

한달 무료 체험 신청서

관장: 이진욱 (선생)

사범: 김수민 (학생)

이름: 박지원 (제명)

가입시: 도복 무료 제공.

띠, 가방 무료 제공

상담 연락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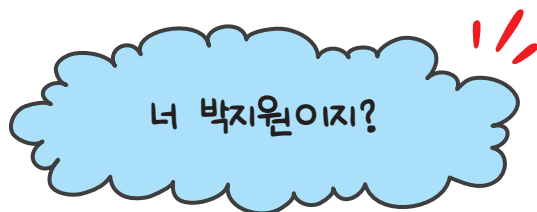
070-489-6392

단원 태권도장

한 달 무료 체험을 시작했다.
생각보다 지원자들이 많아 도장이 꽉 찼다.

지원이는 민우를 보았다.
민우에게 아는 척을 했다.

그랬더니 민우가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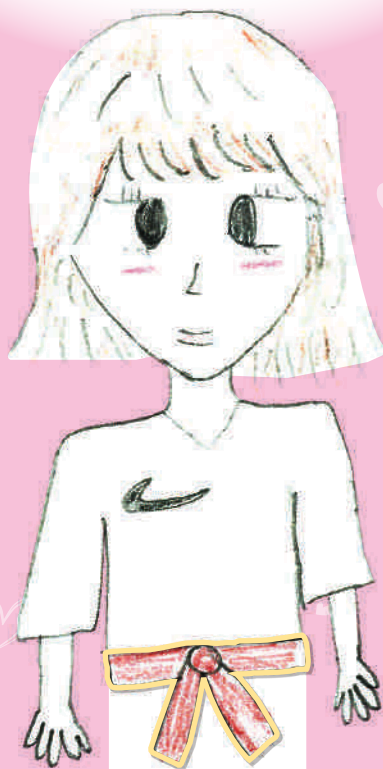


지원이는 이름을 알고 있는 것이 너무 놀라웠다.

지원이는 얼굴이 빨개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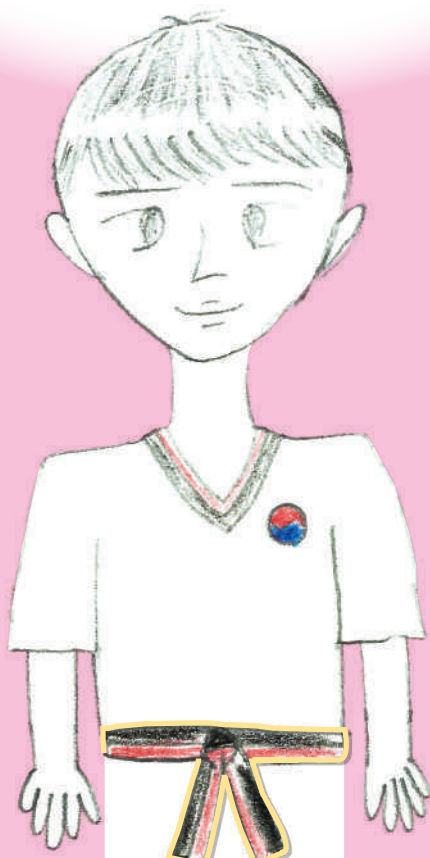
지원이는 꿈만 같았다.

1학기 마지막 날이 되었다.



지원이는 어느새 빨간 띠에서 품 띠로 올라가는
중간 지점에 이르렀다.

민우는 품 띠에서 검은 띠로 올라가는 지점이었다.



민우와 지원이는 심사를 보러
태권도 협회에 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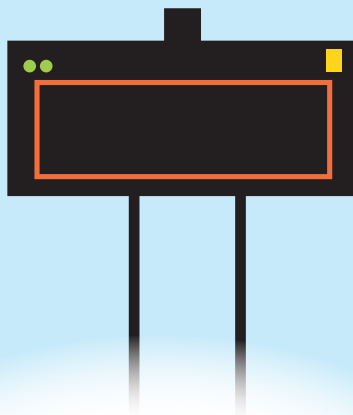
첫 번째 순서는 지원이었다.
민우는 지원을 응원했다.

하지만 지원이는 불합격 통보를 받았다.



10번 박지원
불합격입니다.

지원아!
힘내! (민우)



지원이도 민우를 응원했다.
그때 민우가 지원이를 보며 웃었다.

어느새 민우의 시험이 끝나고
합격을 했다.

지원이는 합격하고 싶어서 연습을 많이 했다,
민우는 그 모습을 보고 지원이를 존경하게 되었다.

민우 말고 다른 친구들도 연습을 많이 하는
지원이를 존경하게 되었다.



단원 태권도

지원은 심사를 받기 위해서
다시 태권도 협회로 향했다.



지원

민우



민우는 지원이를 응원했다.
다른 친구들도 지원이를 응원하기 시작했다.

지원이의 심사가 시작되었다.

<오늘도 역시 1등은 박지원, 이민우입니다!>

민우의 응원을 받은 지원이는 힘이 나서 드디어 합격했다.
지원이는 행복했다.

민우와 친구들은 진심으로 지원이를 응원했다.
관장님도 지원이와 함께 기뻐했다.

그리고 민우랑 지원이는 둘도 없는 파트너가 되었다.
그 이후 지원이와 민우는 태권도 대회에서 상을 많이 탔다.

지원이와 민우는 동네에서 제일 유명한
최고의 파트너가 되었다.



! 축하해!

! 민우
! 이네!
!

- 최우수상

6학년 3반



01. 게 샀거라 프데렐라



02. 수문통 찜뽕의 탄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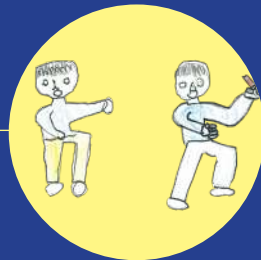


03. 버려진 창고

04. 세계 목욕탕의 역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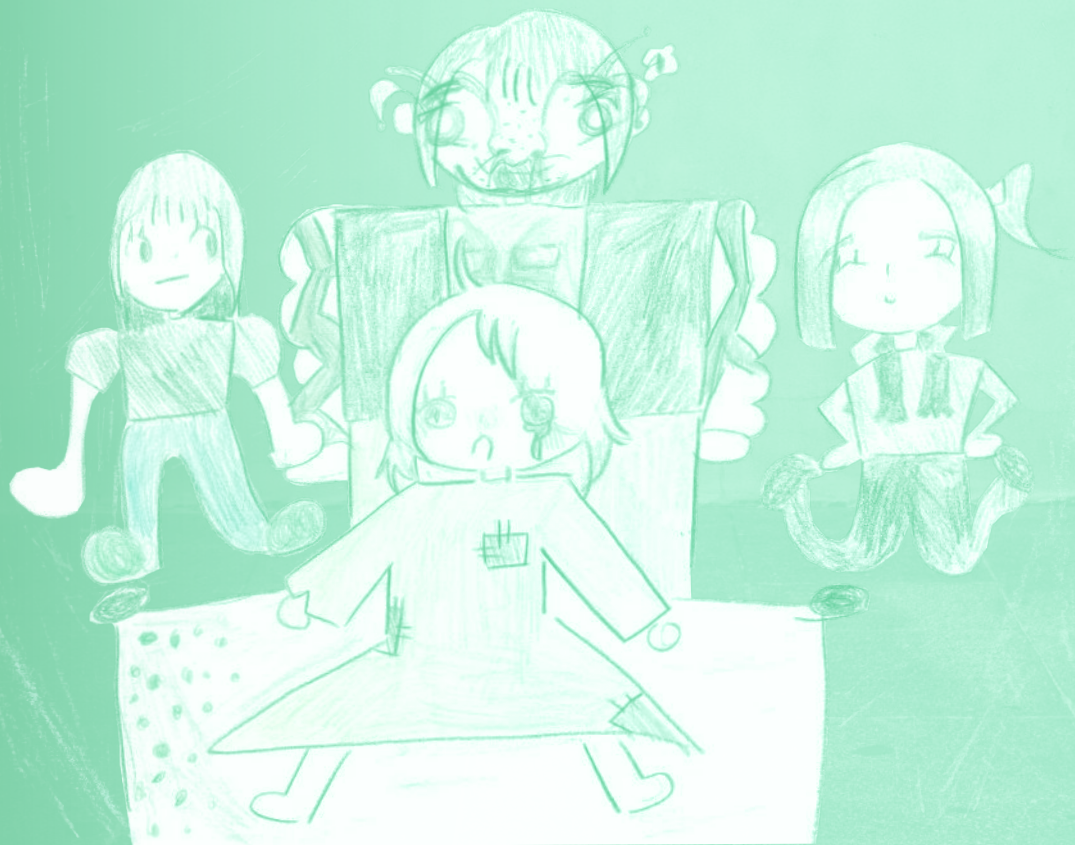


05. 달려라 만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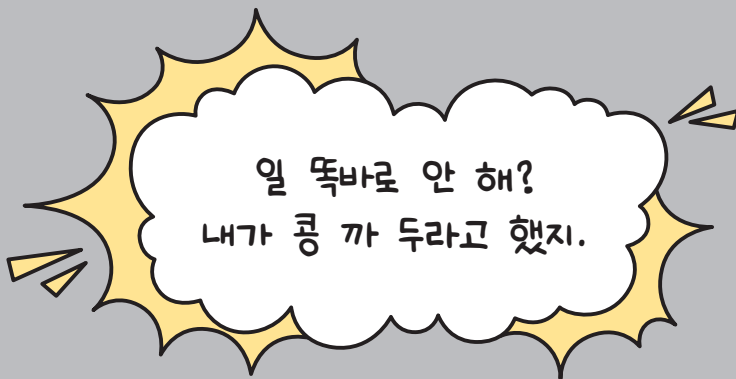
01 “게 섰거라 프데렐라”

김채원 양소이 이지원 최희은



아주 옛날 프리나와 구박하는 언니들이 살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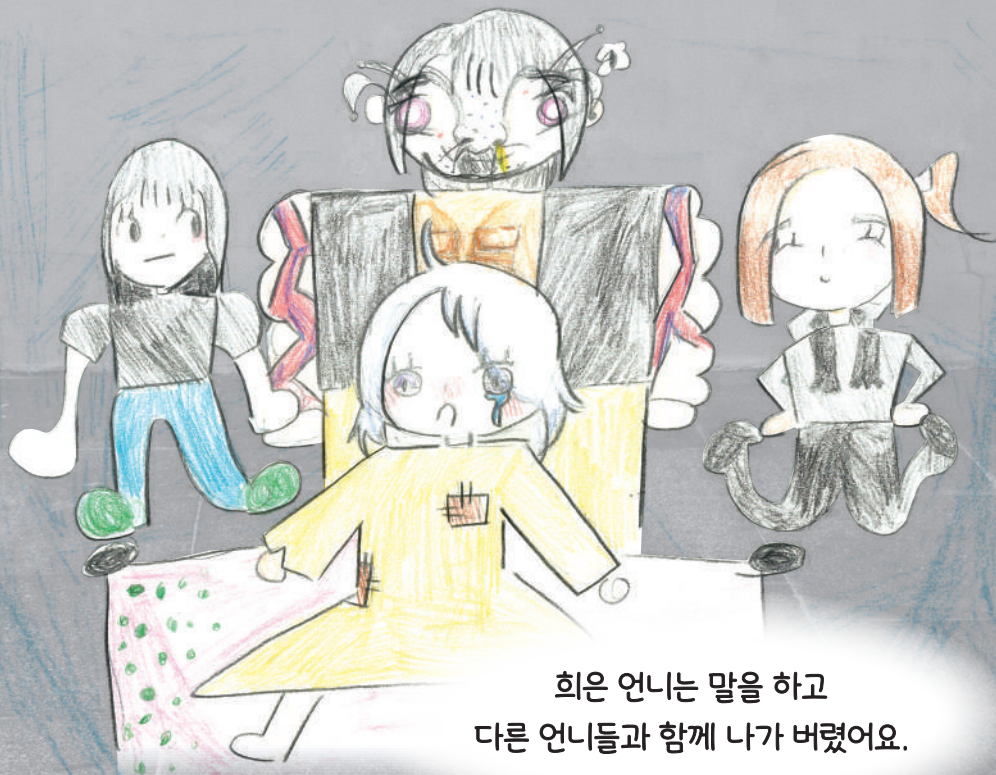
막내 동생 프리나는 언니들에게 항상 구박을 받았어요.
그날도 마찬가지로 야단을 맞고 있었어요.



일 똑바로 안 해?
내가 콩 까 두라고 했지.

첫째 채원 언니가 말했어요.
프리나는 겁에 질려 고개를 빠르게 끄덕였어요.

우리는 밥 먹고 올 테니, 열심히 해.
못하면 호적에서 파 버릴 거야.



희은 언니는 말을 하고
다른 언니들과 함께 나가 버렸어요.

프리나는 포르르 눈물을 흘렸어요,
그 콩은 진짜 콩이 아니어서 깔 수가 없었어요.

언니들이 돌아와서 혼날 생각을 하니
서러움이 밀려 왔어요.



그때 참새 소이가

내가 도와줄게. 짹짹.

하고 말했어요.

울고 있는 프리나를 대신해
가짜 콩을 까주고 날아갔어요.

팔락팔락.







마침 언니들이 돌아왔어요.

언니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채원 언니는 화가 나서 트집을 잡았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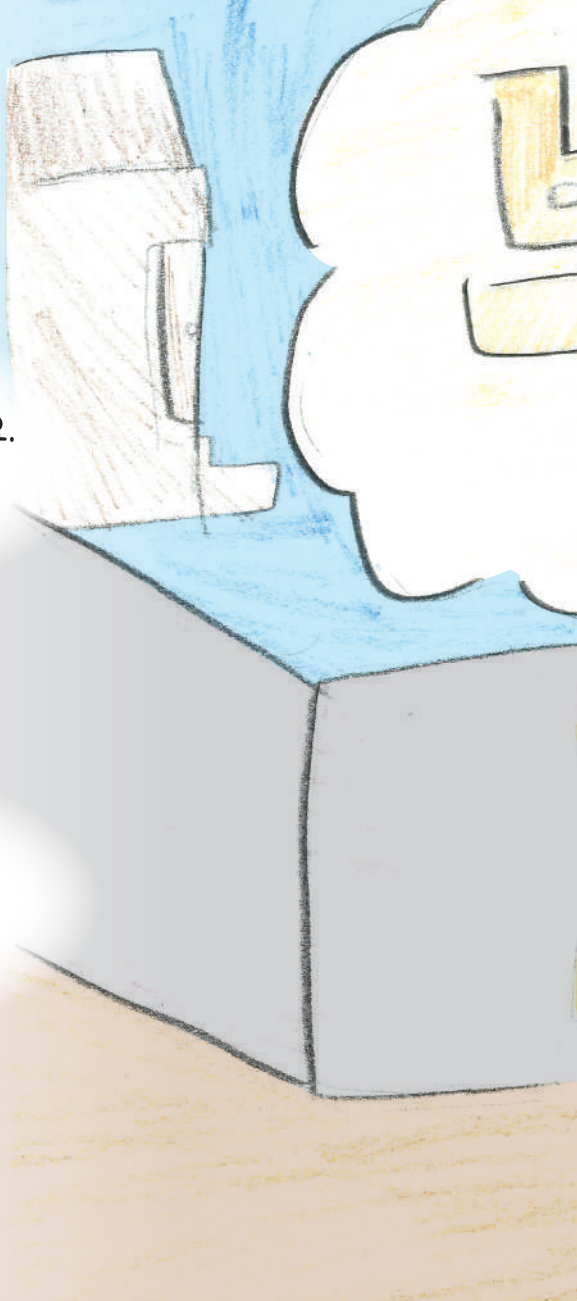
**콩이 제대로
안 까졌잖아!**

첫째 언니는 콩을 던지며 화를 냈어요.
콩은 사방으로 튀어 프리나의 얼굴에 날아갔어요.

그날 밤, 프리나는 서러움에 집을 나가기로 했어요.
마침 채원 언니가 화장실에 있었어요.

뿌아아아왕!

그러나 채원 언니의 방귀 소리에
언니들은 프리나가 나가는 줄 아무도 몰랐어요.





아침이 되어 모두 일어났어요.
언니들은 그제야 프리나가 사라진 걸 알게 되었어요.

아니, 프리나가 없어.

언니들은 모두 깜짝 놀랐어요.





그때 참새 소리가 나타나 그동안 프리나를 도와준 것과
프리나가 새벽에 나간 것을 말했어요.

그리고 프리나가 있는 곳을 알려 주었어요.



지민

프리나

지민

프리나





언니들은 참새를 따라 프리나가 있는 곳으로 갔어요.

그러나 채원이는 집에서 놀고 있겠다고 말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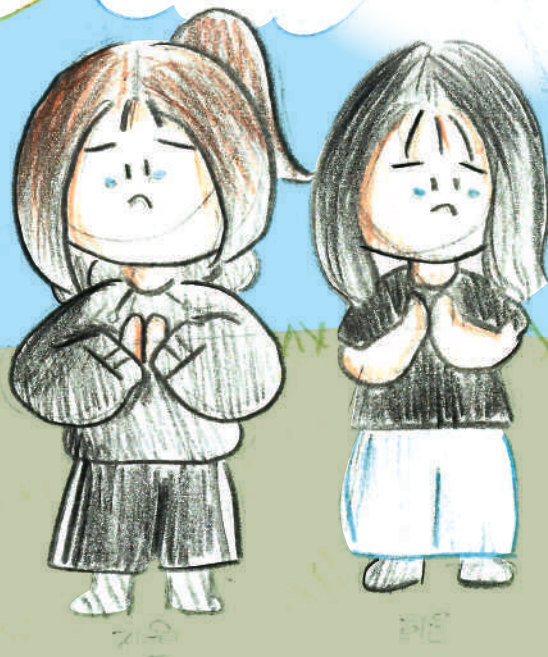
언니들은 하는 수 없이 채원이를 두고
프리나를 찾으러 갔어요.

하지만 아무리 찾아도 보이지 않았어요.



희은이와 지원이는
프리나를 한나절 동안 찾았어요.
참새 소이는 힘들다며 돌아갔죠.

언니들은 프리나의 이름을 불렀어요.



그때 티바트 집에 있던 프리나를 찾았어요.

프리나에게 무릎을 꿇고
손바닥에 불이 나도록 빌었어요.

프리나는 용서해 주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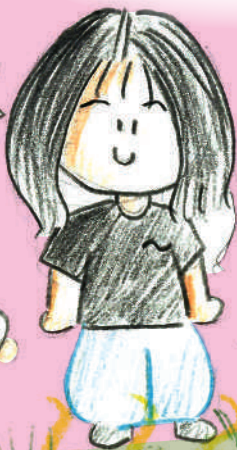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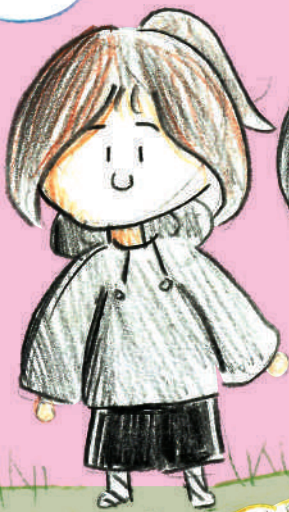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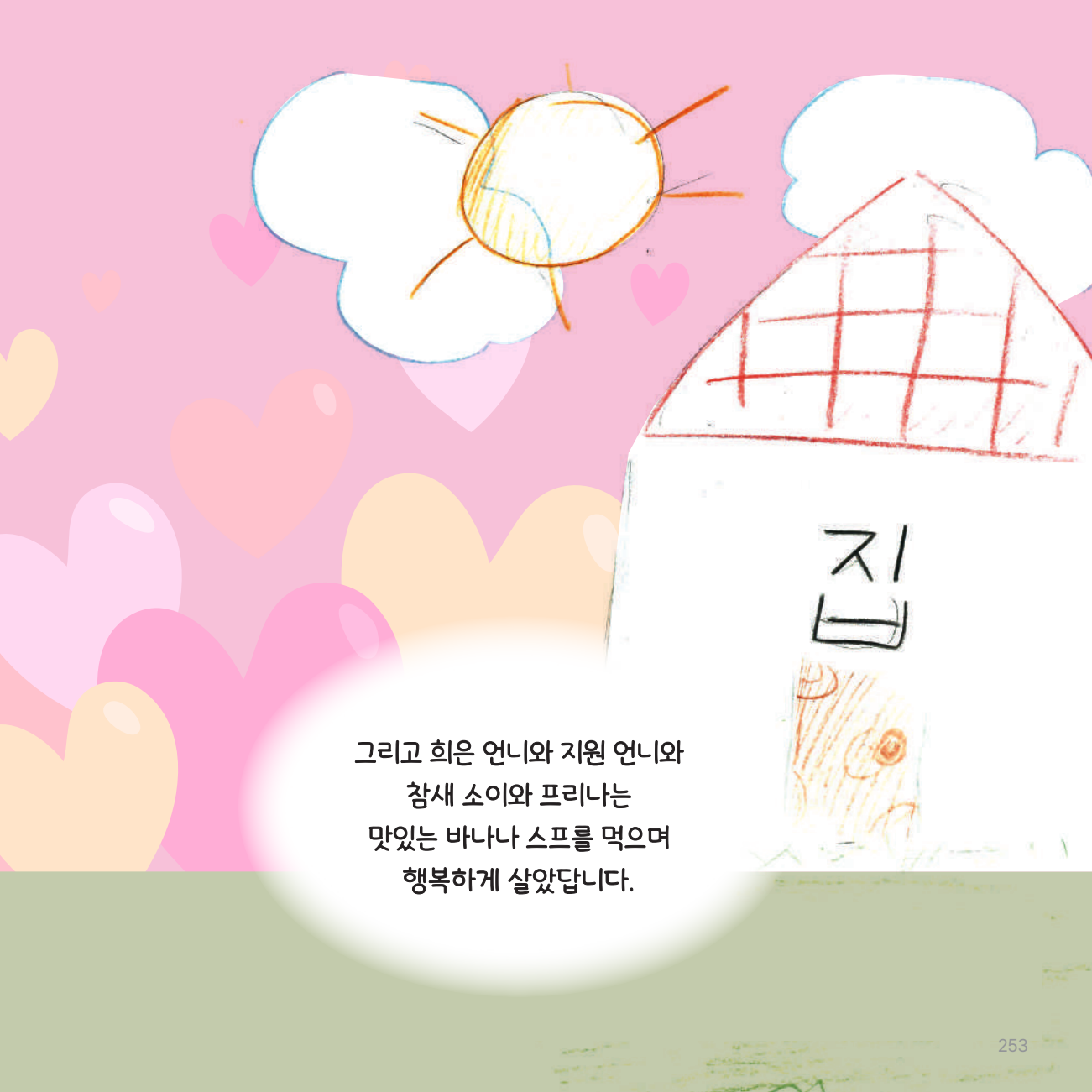


즈계남

프리나와 언니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러나 채원 언니는 잠을 자고 있었어요.

괴심하다고 생각했던 언니들과 프리나는
집에 있던 채원이를 쫓아냈어요.
채원이는 정신을 못 차리고 화를 내며 나가 버렸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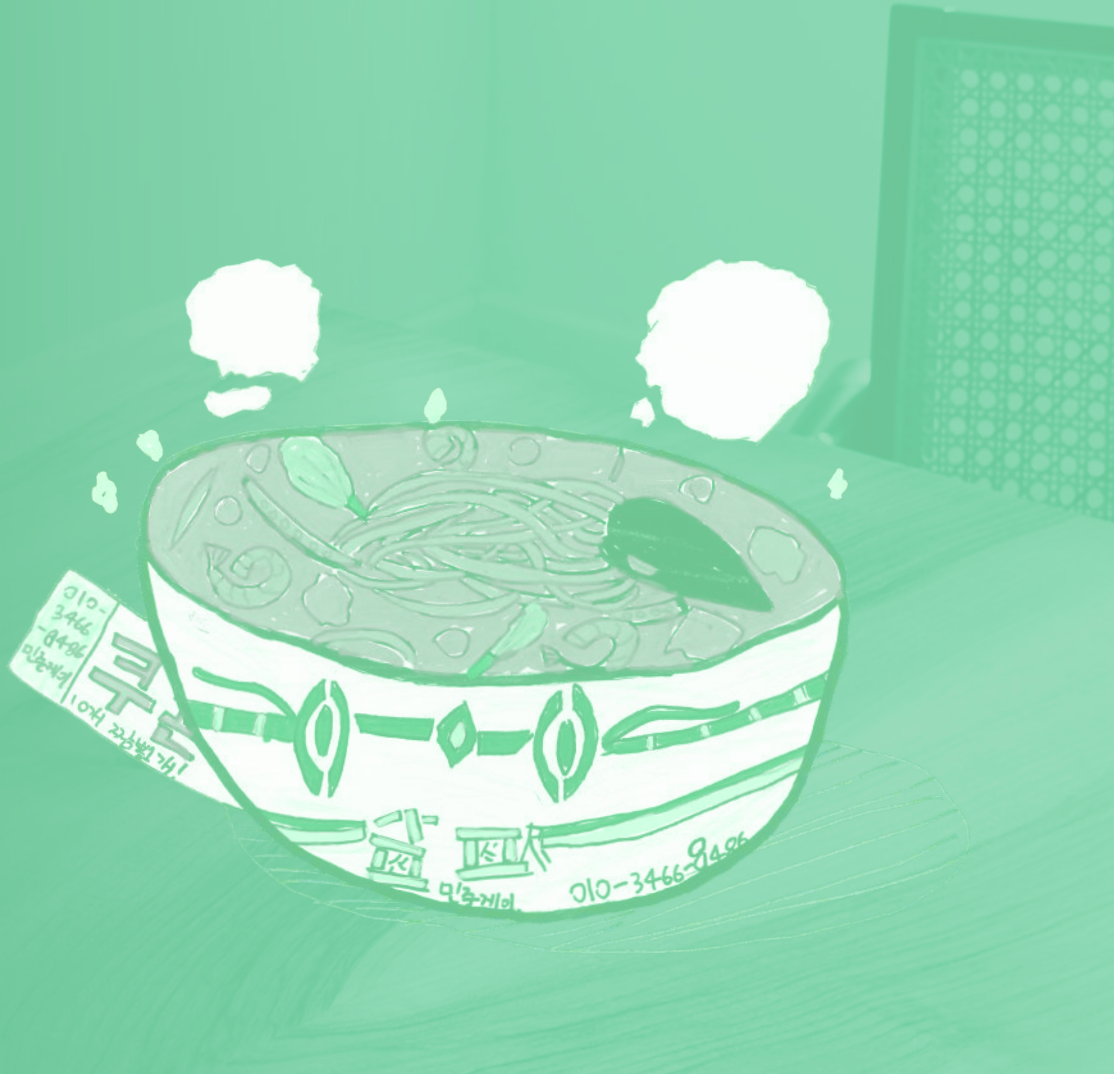




그리고 희은 언니와 지원 언니와
참새 소이와 프리나는
맛있는 바나나 스프를 먹으며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02 “수문통 찜뽕의 탄생”

김민준 김지오 김지환 이수현 지한빛



수문통에 맛없기로 소문 난 찜뽕집이 있었다.
주인이 여러 번 요리법을 바꾸어도 맛은 달라지지 않았다.

돈이 없어 부서진 간판도 고치지 못했다.
아저씨는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

아, 난 왜 이 모양일까.

결혼은커녕 연애도 못 하고, 아저씨는 죽고 싶었다.

그래서 아저씨는 결심했다.
찜뽕을 맛있게 만드는 비법을 찾으러 나가기로 했다.



죽고싶다 222

맛있는 광봉집



주인아저씨는 수문통을 돌아다니며
맛집을 찾아다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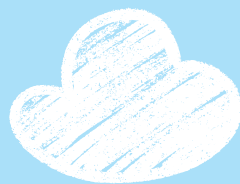
만둣집, 치킨집, 제육 집 등 다양한 맛집을 찾아다녔지만
주인아저씨 마음에 끌리는 곳은 없었다.

그래서 짬뽕 마스터를 찾기로 했다.





23세



그런데 이게 웬걸,
옆집 청년이 자신의 아버지가 짬뽕 마스터라며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그때 평소엔 보이지 않던 문이 아저씨 눈에 들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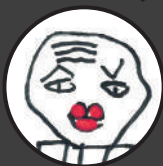
오후 3시 30분에 수문통 뒷골목으로 들어가면
짬뽕 마스터를 만날 수 있다는 소문이 생각났다.

주인아저씨는 기대하며 뒷골목으로 갔다.

하지만 짬뽕 마스터는 보이지 않았다.
아저씨는 무의식적으로 문으로 다가갔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어떤 사람이 있었다.

혹시 찜뽕 마스터인가요?



내가 찜뽕 마스터요.
당신은 누구요. 어떻게 찾아 왔소.

옆집 청년이 당신 아들 맞죠?
그 청년이 알려 주었습니다.
레시피를 알고 싶습니다.

왜 배우려고 하는 건가요?





주인아저씨는 자신도 돈을 벌어 행복하게 살고 싶다고
그래서 짬뽕을 맛있게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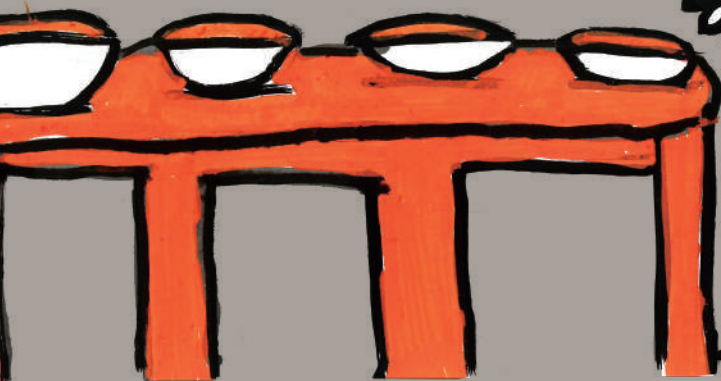
나도 당신 같은 때가 있었지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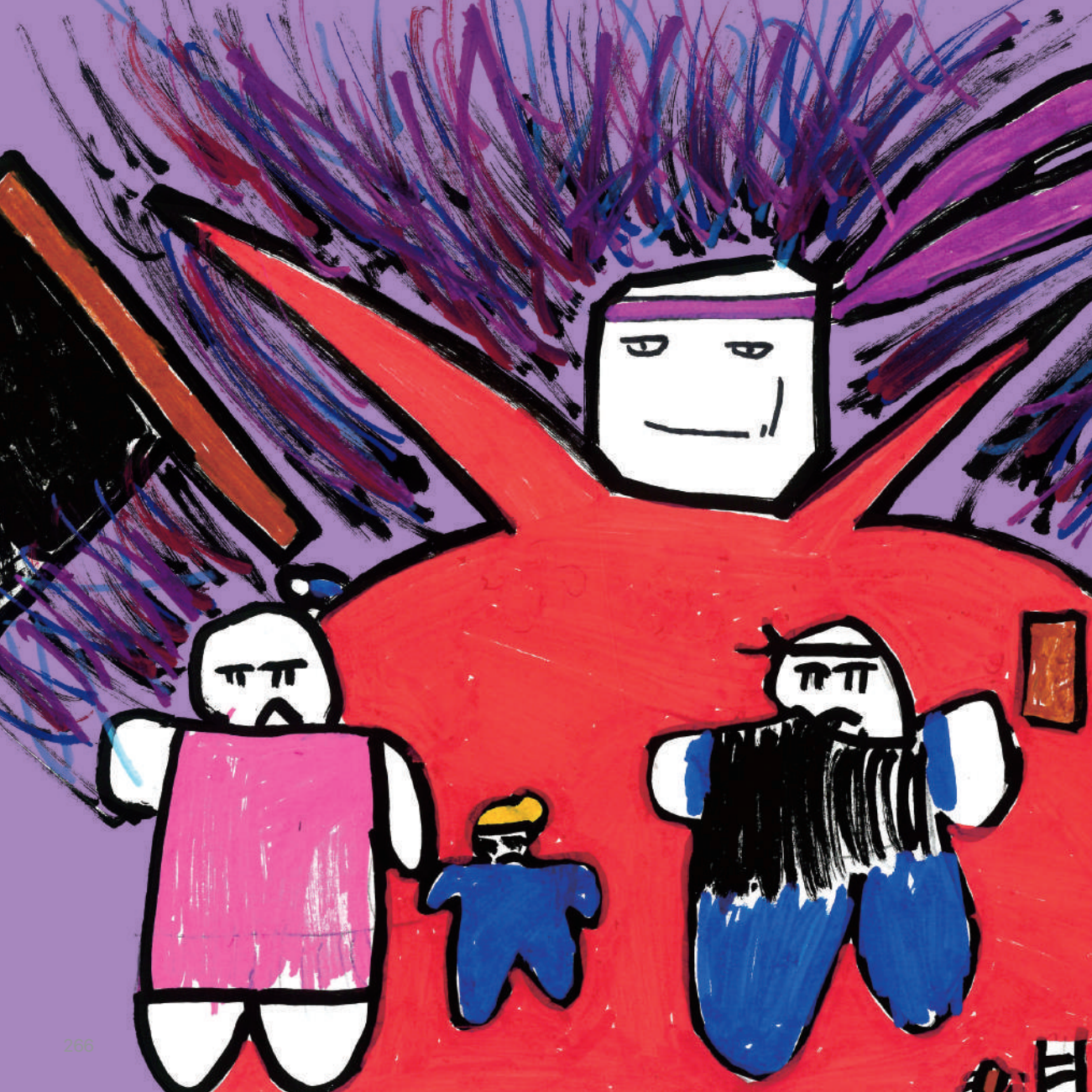
잠봉 마스터는 사실 50년 전 수문통이 아직 바다였을 때,
국수 장사를 하던 사람이었다.

국수를 말아서 돈을 많이 벌었다.

마스터는 돈이 없는 사람들에게
국수를 공짜로 주기도 하며
행복하게 국수를 팔았다고 한다.

돈 없는 신문
이것을 도와주세요







예전에 마스터는
낙숫대밖에 없는 거렁뱅이였다고 한다.
마스터는 잘하는 게 없어 죽고 싶었다고 했다.

하지만, 먹여 살릴 아내와 아들이 있기에
국수를 말기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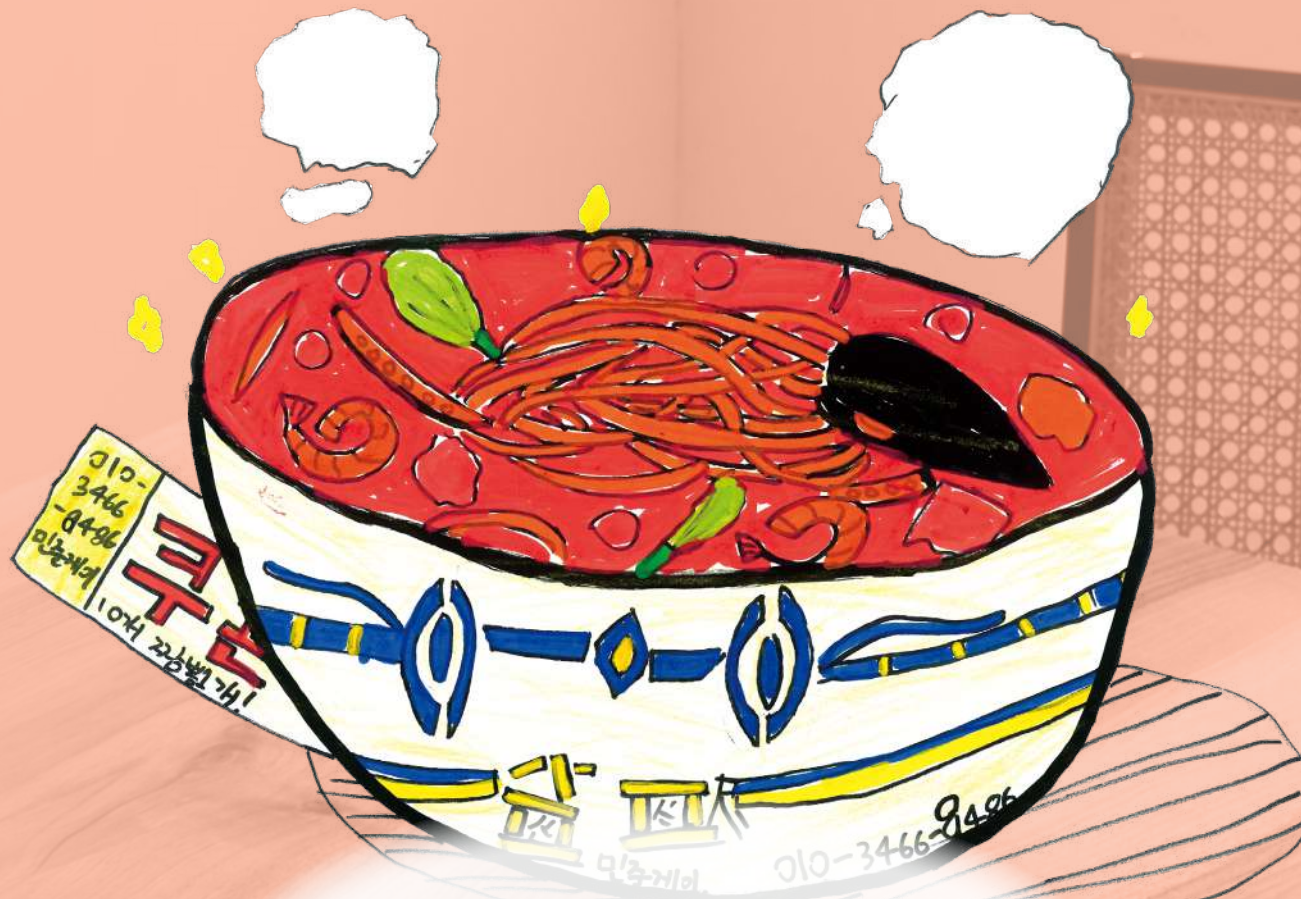
하지만 의외로 잘 팔렸다.

당시 국수를 공짜로 먹던 사람들이
고기를 잡다가 나온 해산물을
마스터에게 갖다 주었다.

원래 어부들은 고기를 잡기 때문에
해산물이 나오면 그냥 바다에 버렸다.

그런데 공짜로 국수를 먹으니 은혜를 갚기 위해
그 해산물을 마스터에게 갖다 주었다.

마스터는 해산물을 처음에 찌개에 넣어 사용했다.



하지만 그 해산물과 고춧가루를 넣어 짬뽕을 끓였는데

바로 그것이 최초의 수문통 짬뽕이 되었다.



수령장



아저씨는 그 이야기를 듣고 감동을 하였다.

그리고 주인아저씨는 곰곰이 생각했다.

짬뽕 마스터의 레시피에
자신의 정성을 담아야겠다고.

마스터는 레시피를 알려 주었고,
아저씨는 정성껏 짬뽕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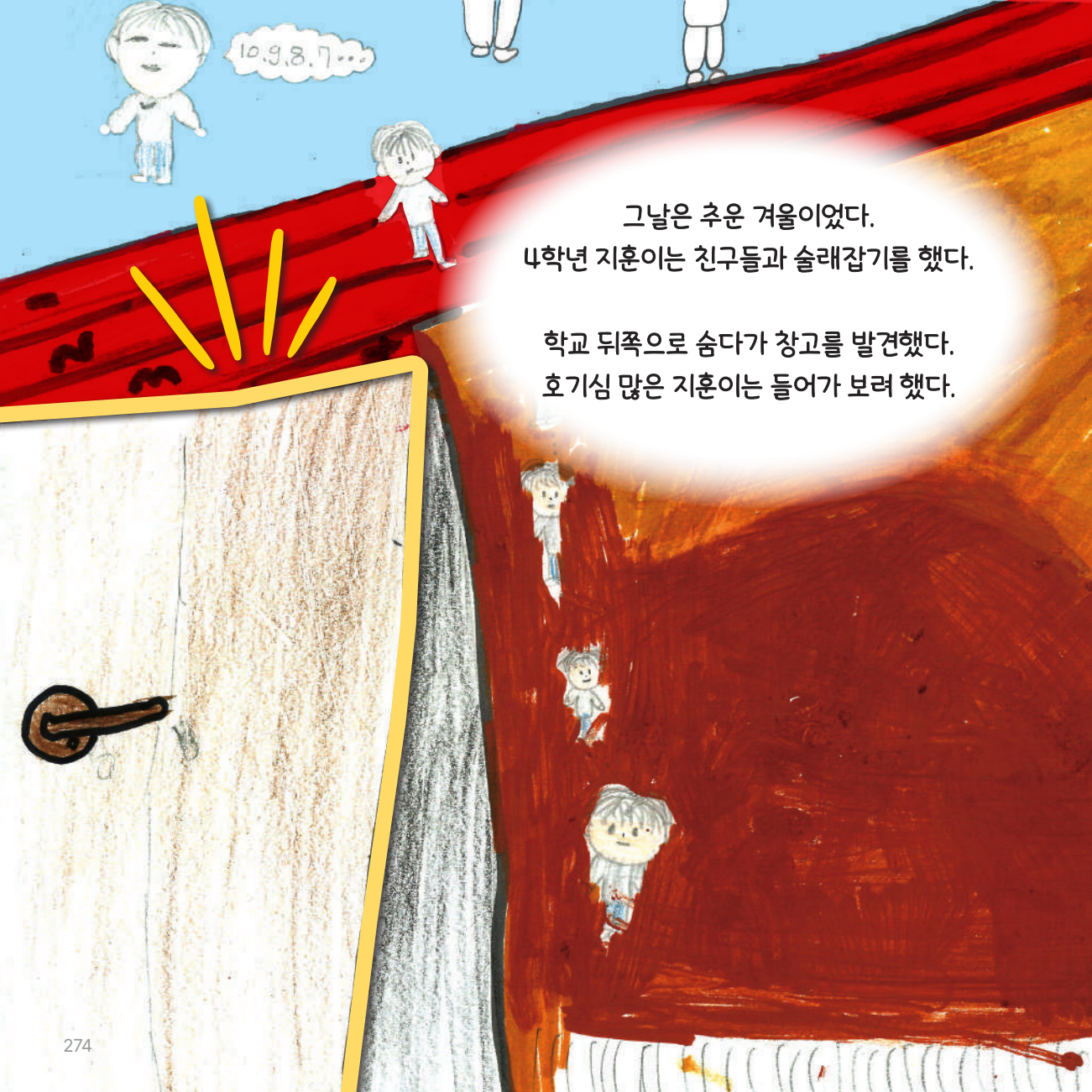
아저씨는 돈을 많이 벌었다.
그러자 마스터를 생각하며 나누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았다.

아저씨는 어려운 곳에 기부하며 베풀며 살았다.

03 “버려진 창고”

안소민 윤해인 이슬 이태경 이하솜 조아윤





그날은 추운 겨울이었다.
4학년 지훈이는 친구들과 슬래잡기를 했다.

학교 뒤쪽으로 숨다가 창고를 발견했다.
호기심 많은 지훈이는 들어가 보려 했다.



(학교 뒤 텃밭)

그때 경비아저씨가
거긴 절대 들어가면 안 된다고 소리쳤다.

하지만 지훈이는 그 말을 들을 리가 없었다.

학교 끝...

학교가 끝나자 지훈이는
경비아저씨 몰래 창고로 들어갔다.

창고 안에는 버려진 책상,
의자 등등 물건들이 많았다.
그 옆에는 인형들도 있었다.

지훈이는 별거 없다고 생각하고
나오려고 등을 돌렸다.



피이익



안녕?

인형들이 말을 걸었다.
지훈이는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우리는 주피터, 머큐리, 갤럭시킴이야.
넌 누구니?



인형들이 말했다.

응. 난,,,

지훈이의 대답이 끝나기도 전에 인형들은
같이 슬래잡기를 하자고 했다.

인형들과 지훈이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놀았다.



돌자!
놀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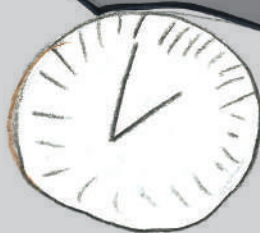


주피터!

슬래잡기
하자!!
☺



머큐리!



슬래잡기



지훈이는 시간이 늦어진 것 같아
돌아가려고 했다.

그랬더니 인형들이
밥을 먹고 가라며 붙잡았다.





그러더니 인형들은 버려진 쓰레기들을 주워서
부서진 컴퓨터와 연필 가루를 이용해 요리를 시작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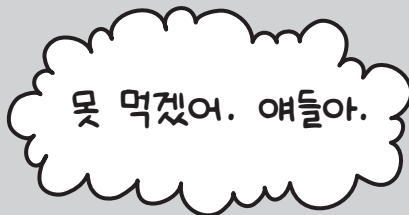
지훈이는 너무 놀라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요리가 완성되자 인형들은
쓰레기가 가득 담긴 접시를 지훈이에게 가져 왔다.

하지만 지훈이는 도저히 먹을 수가 없었다.



그 말을 듣고 인형들이 정색하며 말했다.



왜, 너도 어차피 버려졌잖아.
쓰레기 정도는 먹어야 하는 거 아니야?

지훈이는 그 말을 듣고 두려움에
문 쪽으로 뛰어나가 문을 쿵쿵 두드리며



도와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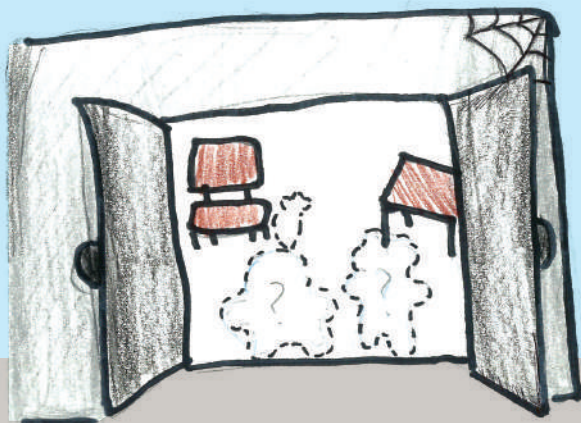
하고 외쳤다.

그러자 인형들이 소름 끼치게 웃으며 말했다.



너는 이제 못 나가.
우리랑 같이 살자.

그때 문밖에서 누군가 쿵쿵 두드렸다.



거기 안에 누구냐.

경비아저씨 목소리였다.

말이 끝나자마자 아저씨가 문을 열었다.
지훈이는 경비 아저씨를 보자마자 뛰쳐나갔다.

창고를 다시 돌아보니 소름 끼치게 웃던 인형들은 없고
버려진 의자와 책상밖에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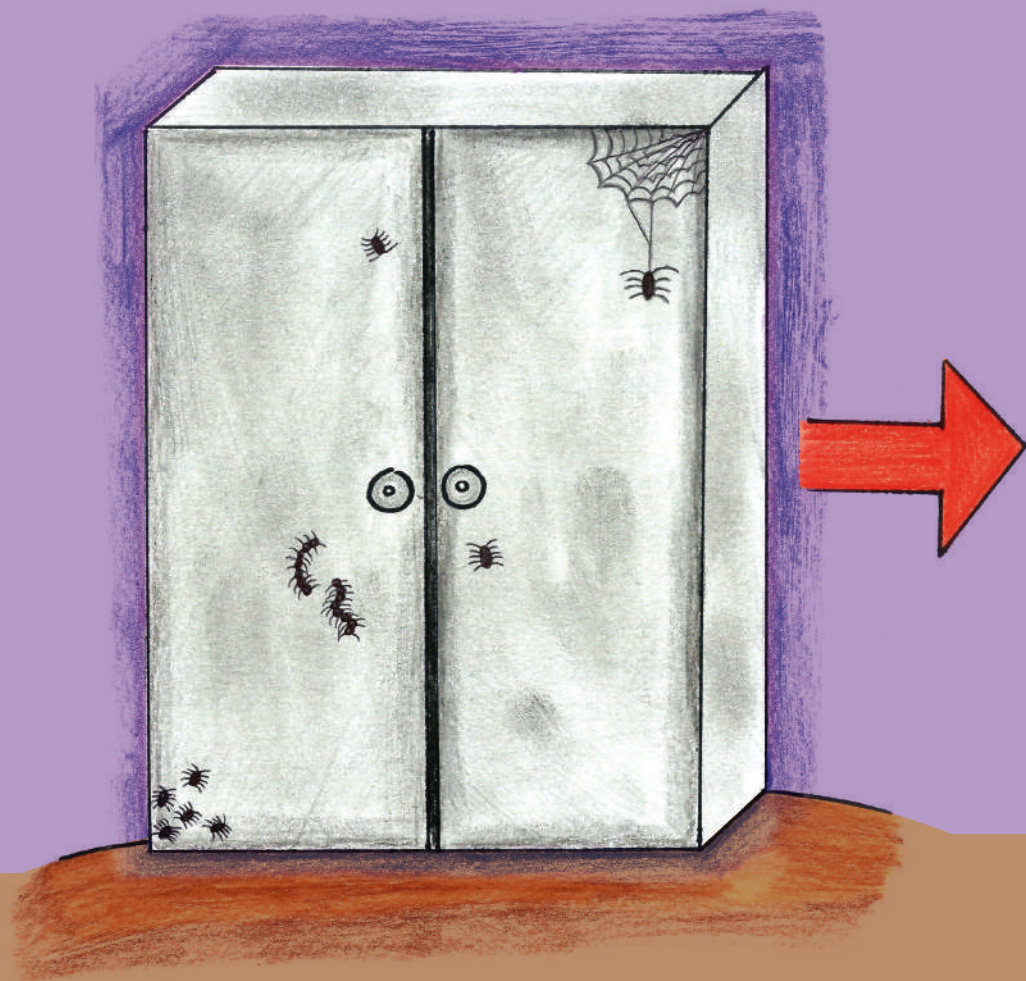
경비아저씨는 지훈이에게

너 봤구나.
다른 아이들에게는 절대 얘기하면 안 된다.

하고 신신당부했다.



학교 지킴이
경비아저씨



다음 날 아침 지훈이는 등교하면서 창고를 슬쩍 쳐다봤다.
그런데 창고가 있었던 자리에 아무것도 없었다.

다른 친구들에게 창고가 사라졌다고 말했더니
우리 학교에는 원래 창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럼 어제 지훈이가 들어간 창고는 무엇일까.

그날 이후로, 지훈이는 집에 있었던 인형들을 다 갖다 버리고
<들어가지 마시오> 라고 쓰여 있는 곳은
절대 들어가지 않았다.

04 “세계 목욕탕의 역사”

강신율 이재원 이재현 최아준



세계 목욕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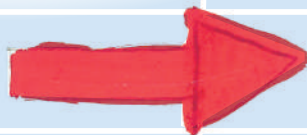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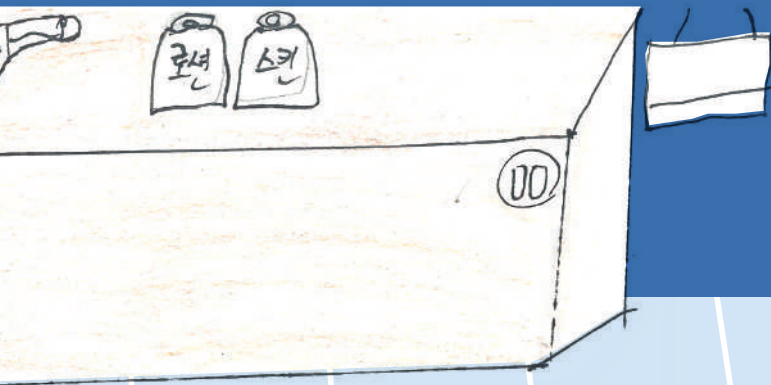
아, 시원하다.

오늘도 성중 아저씨는 목욕을 했습니다.
목욕탕은 송현초등학교 앞에 있는 세계 목욕탕입니다.

이 목욕탕은 물이 깨끗하다고 소문이 난 곳이었습니다.
아저씨는 이 목욕탕을 다닌 지 6년이 되었습니다.

목욕탕 →





아저씨는 목욕을 마쳤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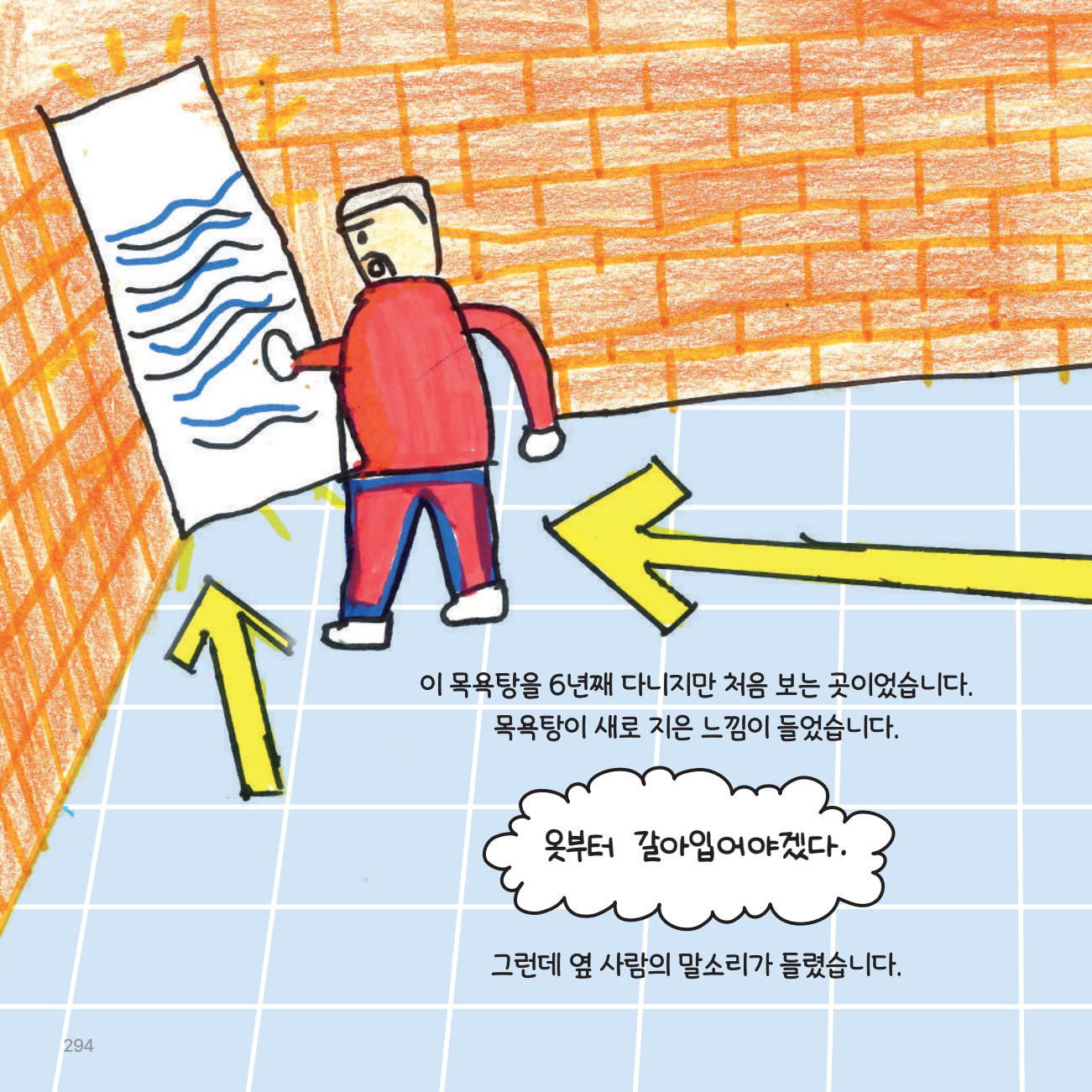
아, 목말라. 물을 마셔야겠다.

정수기를 틀어 물을 마시는데,
지하로 가는 계단 뒤에 빛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기 뭐지? 한번 가 봐야겠다.

지하 계단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목욕탕을 6년째 다니지만 처음 보는 곳이었습니다.
목욕탕이 새로 지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옷부터 갈아입어야겠다.

그런데 옆 사람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일본 말이었습니다.

일본 사람이잖아.
밖으로 나가 봐야겠다.

다시 내려가자 물이 출렁거렸습니다.
성중 아저씨가 그 물을 찍어 먹어 보니 바닷물이었습니다.

아, 짜! 뭐야 바닷물이잖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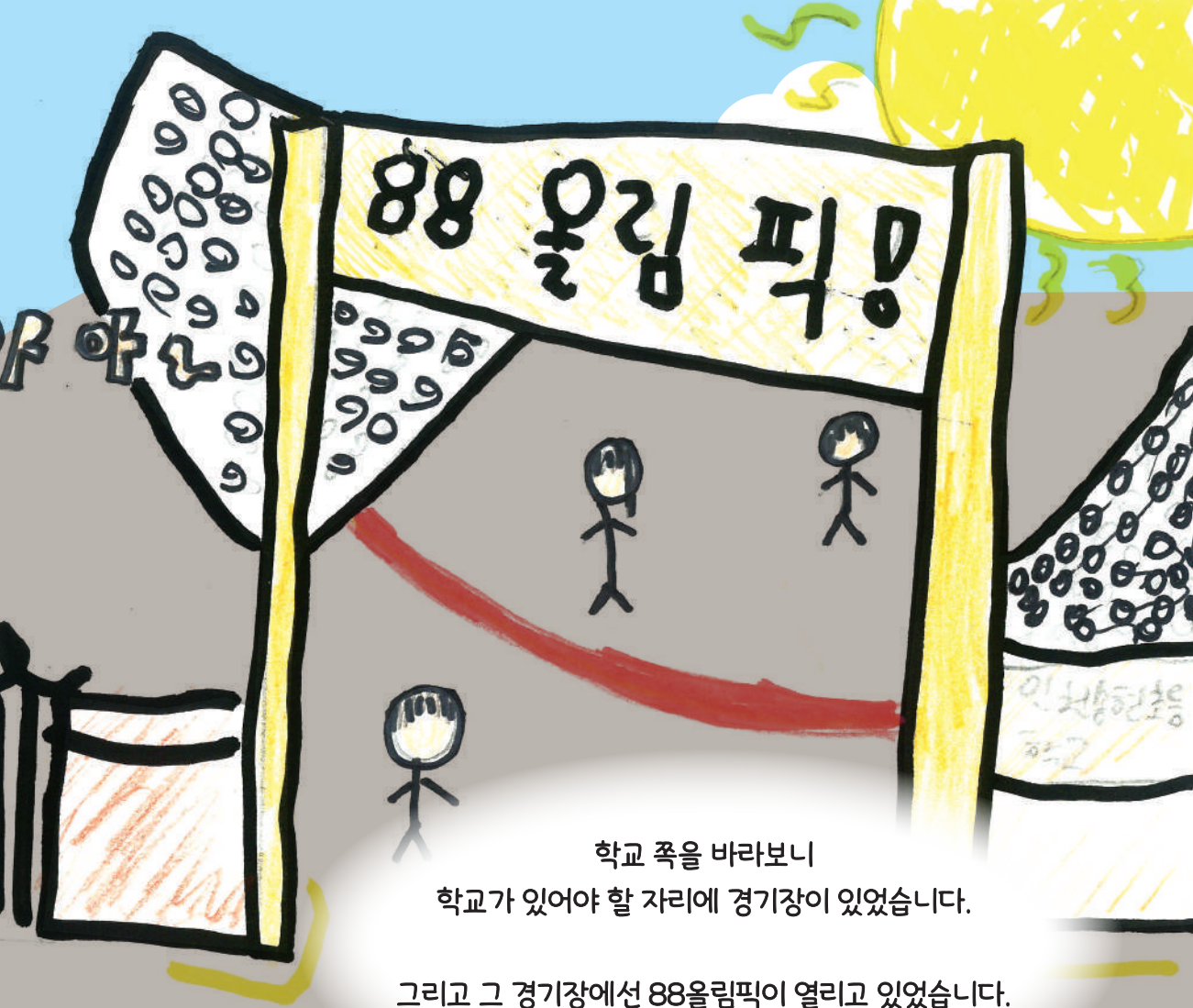
그런데 저쪽으로 세계탕 굴뚝이 보였습니다.
성중 아저씨는 다시 들어가 물을 마시니 다시
빛이 나서 들어 가 봤습니다.

뭐지?

성중 아저씨는 당황했습니다.


와아





학교 쪽을 바라보니
학교가 있어야 할 자리에 경기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경기장에선 88올림픽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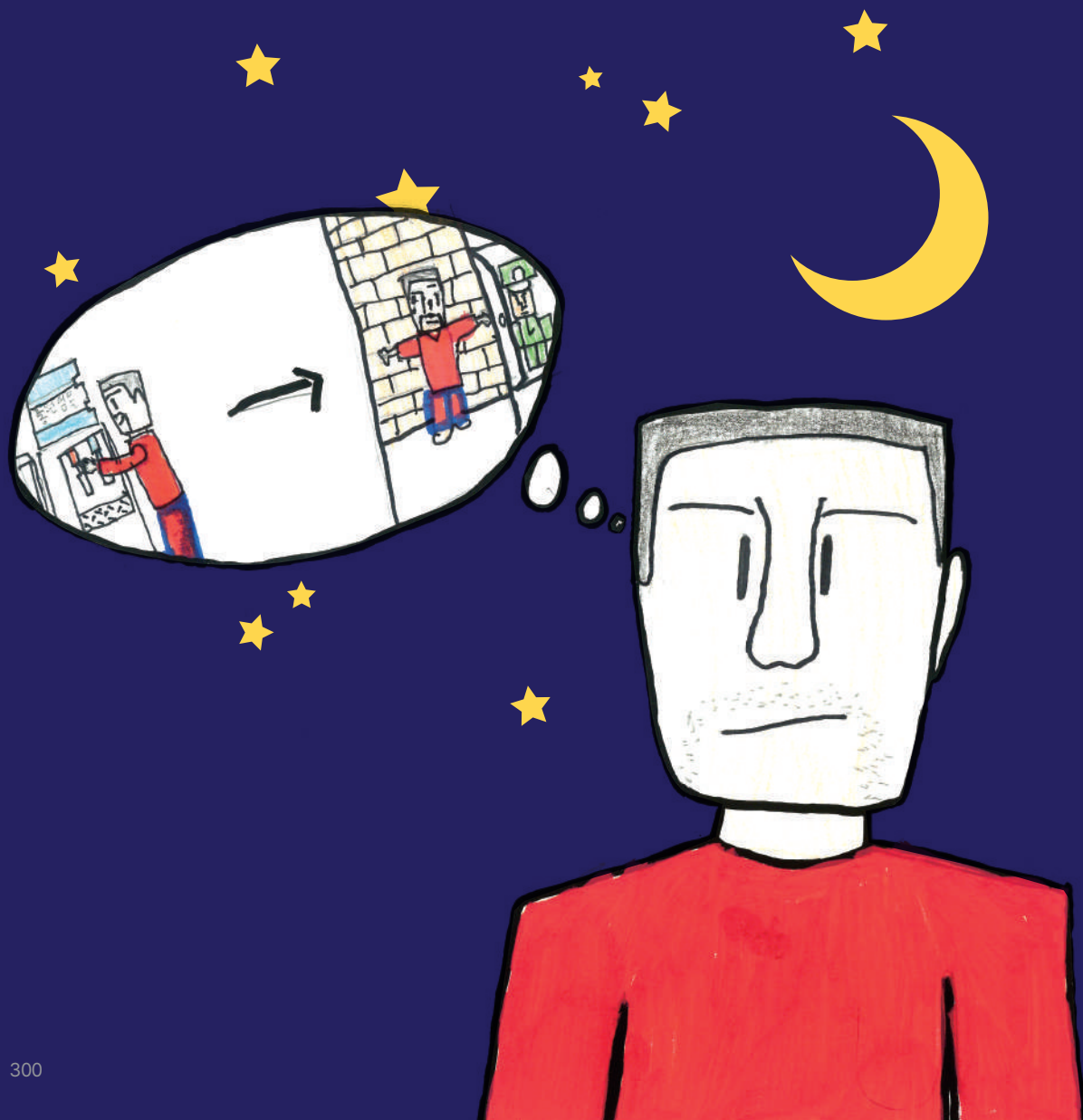


성중 아저씨는 경기장 입구에서
몰래 올림픽을 관람하고 있었습니다.
여기저기서 선수들은 경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저씨는 경기를 구경하다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까 세계탕에서 정수기를 틀었을 때
다시 현재로 조금 돌아왔는데,
한 번 더 정수기를 틀면 다시 돌아오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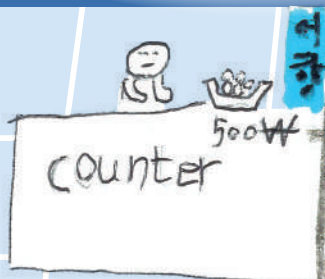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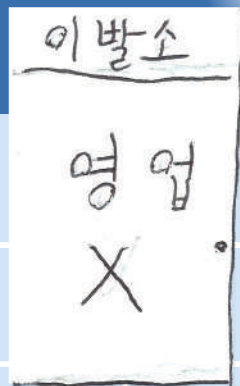


하늘을 보니 벌써 밤이 되었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올림픽을 본 것이었습니다.

목욕탕으로 돌아가야겠어.

성중 아저씨는 목욕탕으로 돌아갔습니다.
아저씨는 다시 정수기를 틀어 보기로 했습니다.

정수기를 통과
다시 한번 지하 계단에서 빛이 났습니다.
그리고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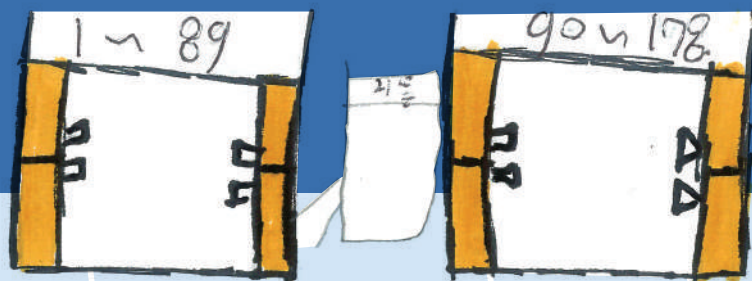


아저씨는 누운 채로 눈을 떴습니다.

꿈인가?

아저씨는 당황했습니다.





휴, 그래도 다행이다.
그나저나 세계탕이 이렇게 역사가 깊은 곳이었다니.
정말 믿기지 않아.



아저씨는 생각했습니다.
세계 목욕탕이 역사가 깊은 곳이었다는 걸
알려야겠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무도 아저씨 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10/24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저씨는 포기하지 않고
매일매일 시청을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드디어 시청이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시청은 세계 목욕탕의 역사를 조사해 보기로 했습니다.



드디어 직원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세계탕이 역사가 깊은 곳이라고 확인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유적지로 보존한다는 것입니다.

그날 밤, 뉴스 속보로 세계탕을 역사박물관으로
지정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아저씨는 뿌듯했습니다.
그 후로 아저씨는 매일 세계탕 박물관을 들렀답니다.

05 “달려라 만석! ,”

김대웅 이상율 최만성 최종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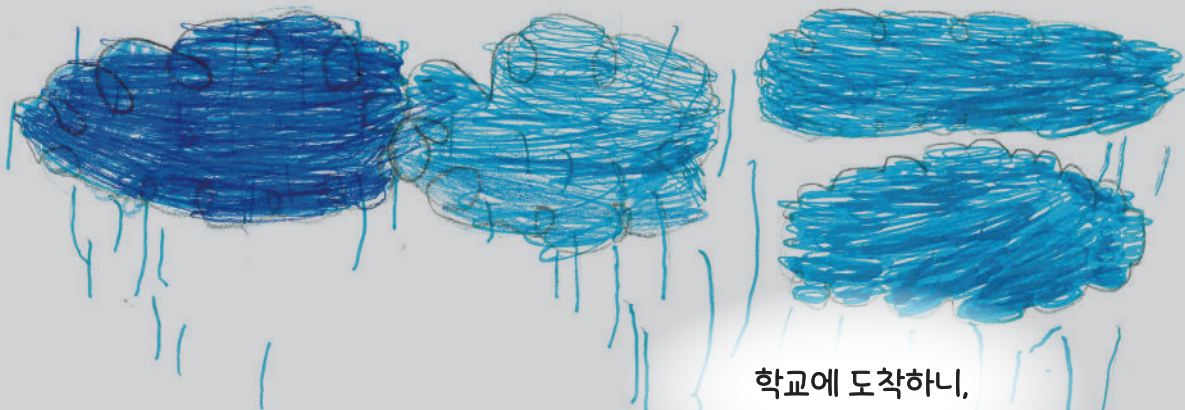


송현초등학교 체육대회가 다가왔다.

우리 학교에서는 계주 종목이 인기가 많다.
그래서 우리 반은 계주를 서로 하려고 한다.
계주 선수를 뽑기 위해 가위, 바위, 보로 결정하기로 했다.
나는 이겨서 계주 선수로 뽑혔다. 너무 설렌다.

드디어 체육대회 날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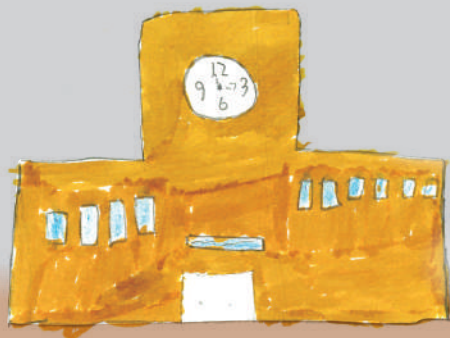
그런데 그날 아침부터 비가 내렸다.
체육대회가 취소되면 어쩌나 걱정이 되었다.



학교에 도착하니,

만석이는 달리기도 못 하는데
계주를 한다고?

하고 비웃는 친구들 목소리가 들렸다.





그 말을 들은 나는 속상했다.
정말 달리기를 하다가 실수하면 어쩌지,
하는 마음에 걱정이 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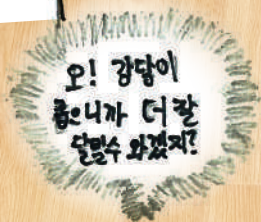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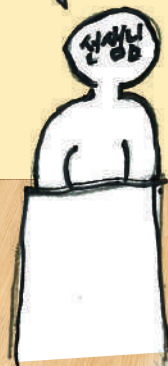
비록 내가 키도 작고 통통해서 못할 수도 있겠지만
잘해보자고 마음을 굳게 먹었다.



그러면서도 속으로 무척 걱정이 되었다.

오늘은 비와서 체육은
강당에서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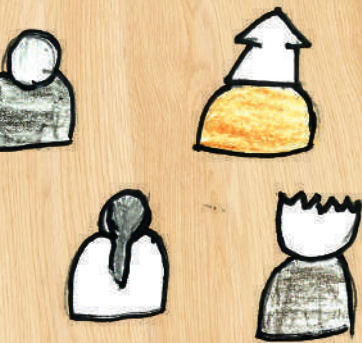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오늘 체육대회는 강당에서 한다고 했다.
비가 와서 어쩔 수 없다고 하셨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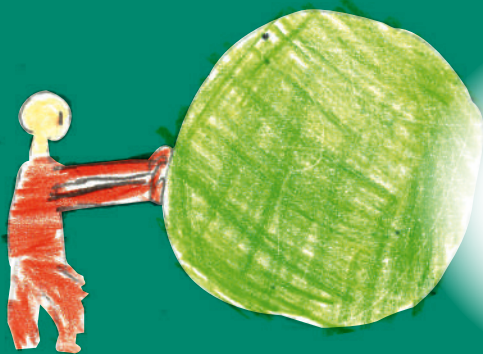




친구들은 좁다며 좋아하지 않았지만,
난 속으로 강당이 좁으니 달리기를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심 좋아했다.

좁으니까 더 잘할 수 있겠지?





드디어 체육대회가 시작되었다.

계주가 시작되기 전 멀리기 시작했지만
마음속으로 잘할 수 있다고 다짐을 했다.

줄다리기, 공 굴리기 등 여러 게임이 끝나고
드디어 계주가 시작되었다.

친구들은 응원을 해주기도 하고,
어떤 친구는 불만을 터트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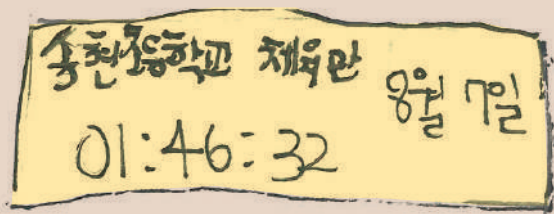
드디어 바톤을 받아서 뛰기 시작했다.



친구들은 느리다며 화를 내기도 했지만,
대응이는

괜찮아.
못 뛰어도 되니까.
열심히 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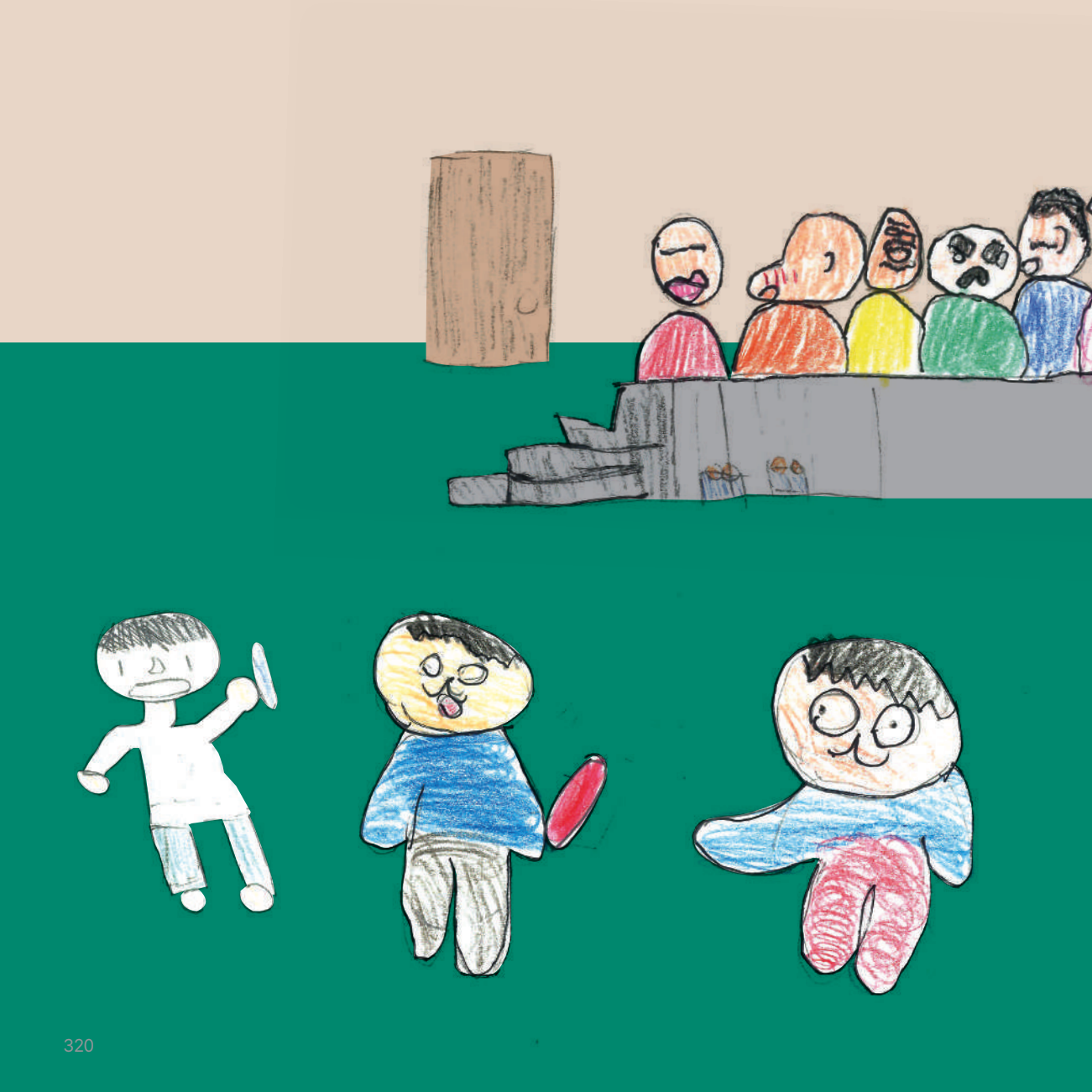
하며 화이팅을 외쳐 주었다.



만석이는 있는 힘을 다해 뛰었다.
만석이는 상대팀을 앞지르기 위해 열심히 달렸다.

열심히 달리다 보니 어느새 상준이가 보였다.







바톤을 상준이에게 넘겨주었다.
상준이는 폭발적인 힘으로 달려나갔다.

어느새 상대가 저 뒤에 있었다.
친구들이 화이팅을 외치며 응원을 했다.

마지막 주자로 종석이가 뛰었다.

종석이가 잘 뛰니 상대 선수들은 지치기 시작했다.
친구들의 응원에 힘입어 우리 반이 이기기 시작했다.

나를 비웃고 욕했던 친구들이 생각났다.
당장이라도 달려가 그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었다.

드디어 결승선에 도착했다.
우리 반이 이겼다.
체육대회가 끝나자 친구들의 사이는 더욱 돈독해졌다.



강당 8월7일
01:48:5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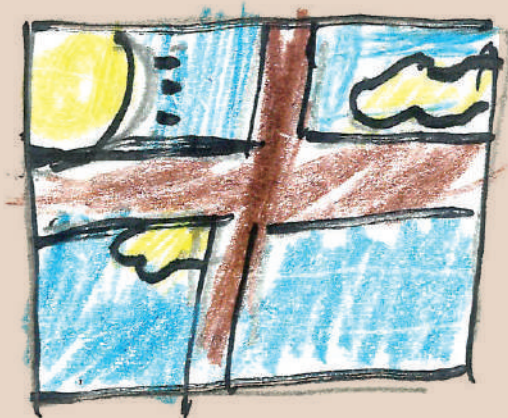
와!



친구들은 소리를 지르며 좋아했다.
다 같이 감싸 안고 수고했다고 말했다.

만석이는 친구들에게 응원해 주어서 고마웠다고 했다.
친구들은 아니라며 너도 열심히 달려주어 고맙다고 말했다.





체육관 밖으로 나가보니
하늘도 우리를 보고 기분이 좋아졌는지,
비가 멈추고 맑은 날씨로 바뀌어 있었다.

하늘은 우리를 보며 무슨 생각을 했을까
궁금했다.



발행일 2025. 12. 31

발행인 조장환

발행처 화도전문화원

인천광역시 동구 솔빛로 22번길 2

Tel. 032) 777-8957 | Fax. 032) 777-8958

글 지도 조연수 시인

그림 지도 이월숙 작가

디자인 및 인쇄  **한결디자인**
HANGYEOL DESIGN

인천시 동구 샛골로 210번길 9

Tel. 032) 766-7837(代)

ISBN 979-11-996460-0-1

© 본 도록은 발행인과 협의 없이 무단 전재 및 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without permission.

마음을 포개어,
너와 나의 이야기

비매품/무료

77810



9 791199 646001

ISBN 979-11-996460-0-1